

안동일 회장(전국염불만일회)
피안행의 길에서 만난 염불수행
정진으로 회향의 삶을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55호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말라.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아라.

의현 스님 재심 판결논란 대중공사서 해법 찾자

자승 스님 등 23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발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조계종이 논란이 최종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7월 23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재심 판결 논란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재심 판결에 대한 공식적 책임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자승 스님 등은 입장문에서 "개혁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종무기관은 현 종단의 기틀인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엄정 수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단 개혁불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오는 7월 29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5차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에서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도 종도들과 함께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총무원은 이번 재심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에 대한 후속 행정정차를 진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현 스님 재심 논란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적 유감 표명은 없어
"후속행정 조치 안한다"
불교신문, 사설 관련 사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사설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불교신문 사장 주경 스님은 "〈불교신문〉은 종단 기관지로서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설로 기존의 뜻과는 다르게 종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중공사, 논란 해소 가능할까

이 같은 입장은 그간 종단 안팎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통해 본 종단개혁'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공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해결의 분수령이 되거나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7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00인 대중공사가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다루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중공사는 공의를 모아 재심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100인 대중공사 위원 외에도 1994년 종단 개혁 참여 승·재가를 비롯해 비상대책회의, 중앙종회의원 등을 위원으로 초청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5차 대중공사에서는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이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전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스님이 '94년 종단개혁 정신과 종단의 미래'를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다.

브리핑 이후에는 성태용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체 토론과 모둠토론, 종합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7월 21일 환수식에서 공개된 선암사 '동악당재인선사진영'에 참배하고 있다. 이번 진영환수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내 도난불교문화재 환수 성과를 바탕으로 맺은 공조협약의 첫 성과다.

도난 '선사 진영' 본래 자리로

조계종 · 문화재청, 21일 선암사 '재인선사 진영' 환수식

불법 반출 뒤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기증형태로 받아온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 환수 공개식 및 정보공유 협약식을 개최했다.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은 1990년대 도난당한 것이다. 도난 전 진영의 화기(畵記, 불화 기록)로 제작연대(1738년)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진영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진영 환수에서 조계종과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먼저 문화재청은 지난 3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미국인 A씨가 경매에 이 성보를 출품한 사실을 파악했고,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임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경매장에 도난 문화재임을 통보하고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 진영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인 A씨와 2개월간 협상 끝에 기증 형태로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 임을 설명하고, 돈을 지불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고 불화를 환수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식 이후 두 기관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을 계기로 문화재청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국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불교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불교통일선언, 내실화 필요하다

민추본, 22일 '선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열어

'합심'으로 통일 이뤄낼
구체적 실천 방안 필요
北 종교성향 파악 시급

"이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에 입각한 구체적 실천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2015 불교통일선언' 핵심 키워드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후속 과제를 마련해 민족통일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7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2015 불교통일선언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 전통불교문화와 마음의 통일'을 발제한 유승무 교수는 "합리(合理)가 아닌 합심(合心)으로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실천법 2가지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통일 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지처'가 사라진다. 이때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불교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북한 주민의 종교적 성향 · 의식 · 태도 등 조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 대상 1차 조사 뿐 아니라 북한 거주민들 대상 연구도 실시해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유환 교수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은 반성해야할 문제"라며 "5 · 24 조치 등 사건 발생 시마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방법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차원 인도적 교류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고 교수는 불교계 차원 독자적 대북지원 방안으로 △불교계 통일기금 조성 △불교문화유적 공동발굴과 보존사업 △평양 불교문화원 건립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주요 발제 정리 31면〉

새연재 |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13면

공채 1기 기자, 불교방송 신임 사장 당선

7월 22일 이사회서 선상진 씨 선출

불교방송 신임 사장에 선상신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7월 22일 오후 2시 마포가든 호텔에서 92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선상신 교수를 차기 불교방송 사장으로 선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선상신 · 하동근 2명 최종 후보의 브리핑 후 참석 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1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대 8로 선상신 후보의 선출이 확정됐다.

선상신 당선자는 "불교방송 공채 출신이 개국 25년만에 처음 사장이 됐다.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부담감도 크다"면서 "세계 유일의 공중파 불교방송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개국 정신을 이어가겠다. 또한 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불교방송의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선 당선자는 향후 △신사옥 건립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재무 건전성 확보 △시청률 및 청취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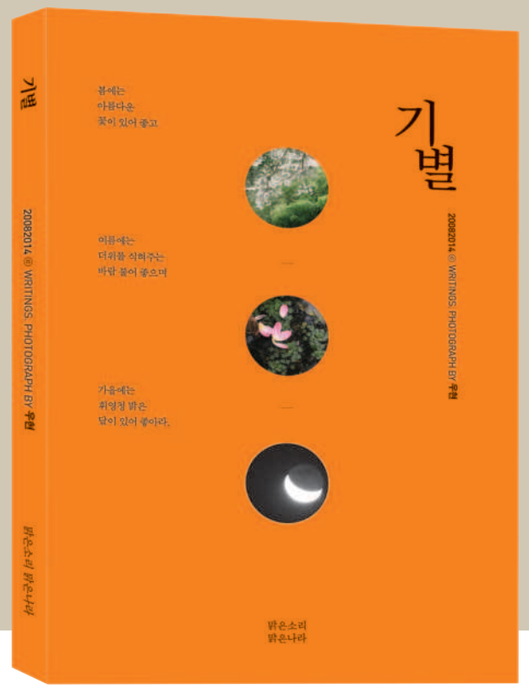
선 당선자는 1960년생이며 법명은 해원(海圓)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불교방송공채 1기로 입사해 기자를 거쳐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자연 통한 성찰,
시와 사진으로 그려낸
우현스님의 단행본 『기별』 출간

그대의 눈길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행 복 한 구 도 의 길

불성을 깨워주고 구름 같은 허영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는 것은 푸른 산이요,
행복한 구도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무심히 변화하고 있는 자연이다.
여기 깊고 넓은 법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자연과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낸 시선집이 있다.
관룡사 주지 우현스님이 마음으로 담아낸 '찰나'의 기록이다.

불법의 길에서
자연과 함께 초연히 걷고 있는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따뜻한 성정의 '부처'를 만나게 된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
누구나의 가슴에 선물로 다가오는 한 소식
'기별'이다.

울림 있는 스님의 일상 속 글귀와 사진은 불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스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범부에서 벗어나 부처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에서 '행복'으로 자신의 마음에 기별을 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

20082014 ⓒ writings. photograph BY 우현 | 글 우현스님 | 192쪽 | 12,000원

puremind-ms@hanmail.net 051-255-0263 밝은소리밝은나라

老 비구니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감동'

운문사 故 혜은 스님, 동행에 4천만 원 지정기탁

승려복지 · 생명나눔 등에 사용
평생 수행 · 가람 수호에 매진
"생명 구하는 일 써라" 유훈
문도들 검소한 장례 후 기부

지난 6월 19일 입적한 운문사 문수선원 선원장 혜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이 입적 한 달여 만에 알려져 화제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은 "운문사와 혜은 스님 문도회에서 평소 스님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 동행에 4000만 원의 기금을 지정기탁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동행과 문도회에 따르면 故 혜은 스님은 한 평생을 수행과 가람 수호, 이 두 마디로 설명이 될 정도로 청렴한 생활을 했다. 휴지 한 장도 반으로 잘라 쓸 정도의 근검절약과 해충일지라도 함부로 죽여선 안 됨을 누누이 강조하며 생명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을 보였다.

마지막 가는 길도 후학들에게 수행자로서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는 혜은 스님의 생전 유언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혜은 스님은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병마와 싸웠다. 1989년 암이 처음 발병한 후 2번에 걸친 대장암 수술과 1번의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앞으로 병이 재발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조용히 한 생각 참구하다 회향하도록 해주오. 묘전스님 조문 때 감명 받은 바 있어 부탁하노니 조의금이나 화환을 사절했으면 좋겠다. 조화는 낭비라 생각되어 부탁하니 간단히 쓰도록 하고, 고임새는 하지 말고, 화장 후에 유골을 수습하지 말고 바다나 강물에 뿌리도록, 재는 여러 곳을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운문사와 문도 스님들은 이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스님의 장례식을 경주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검박하게 치렀다. 일체 조의금은 받지 않았고 부고도 내지 않았다.

또한 문도들은 생전 혜은 스님이 사후 안구 기증을 신청한 뜻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입적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중동기호흡증후군(MERS)' 여파로 기증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실제 안구 기증을 하지 못한 문도 스님들은 "스님 생전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크게 죄스러워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운문사와 문도회는 혜은 스님의 마지막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아름다운 회향을 결정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혜은 스님의 장례를 위해 쾌적한 5000만 원의 기금 중 장례를 마치고 남은 모든 비용을 동행에 지정 기탁하기로 한 것이다.

총 4000만 원의 기금은 동행을 통해 선원수좌복지회(2000만 원)와 승려복지회(1000만 원), 스님의 안구 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1000만 원)에 각각 나눠 지정 기탁됐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조계종 원로회의 · 정상화 추진위 23일 회동서

조계종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단과 선학원의 만남이 선학원의 거부로 불발된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단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원로회의 의장단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과 부의장 명선 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상임위원 현진 · 도진 · 법준 · 강설 · 진각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양 쪽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이고자 한 것"이라며 "종단이 선학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 힘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의장 명선 스님도 "스님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 선학원 이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스님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선학원 이사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상화추진위와 함께 자리하는 것을 확인한 선학원이 완곡히 만남을 거절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회동으로 변경됐다.

한편, 선학원은 7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장학금의 액수 및 선발주기, 대상, 지급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계종의 교육제재조치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6월에 있었던 만해 스님 추모행사 보고의 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신성민 기자**

유예 조치 마감 앞두고 140개 법인 등록

오는 7월 31일로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유예 마감을 앞두고 조계종 소속 법인들의 종단 등록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7월 22일 현재까지 종단 등록을 마친 법인 수는 140여 곳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이 파악한 법인 등록 대상 수는 230곳으로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3월 1일까지 등록된 법인은 111곳으로 30여 곳이 증가했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보유하는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11개 대상 법인 중 8개 법인이 등록했다. 등록한 법인은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한마음선원법인이다. 조계종과 갈등 중인 선학원과 법보선원, 보리동산은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 법인'은 7곳 대상 중 5곳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았던 만불회가 7월 2일 등록을 완료했지만, 외국인들로 임원진이 구성된 숭산국제선원은 아직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대표 사찰인 능인선원 역시 종단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찰법인은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만불회다.

조계종 법인관리법 근거해
7월 31일 등록 최종 마감
3월보다 30여곳 등록 증가
마감시 160여곳 등록할 듯

8월부터 제재 조치 시행돼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예상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장 많은 등록을 보인 곳은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다. 3월 당시 64개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95개의 법인이 등록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7월 31일부로 유예 조치가 끝나면 곧바로 미등록법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의 입방이 불허되며 종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당장 문제는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이다. 법에 따르면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미등록법인 도제들은 더 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선원과 강원의 퇴방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아직 1주일가량 남아있고 등록 서류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감이 완료되면 약 160여 곳이 종단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미등록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상 법인에 대한 계도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美 '세컨드 레이디' 진관사서 한국을 만나다

미국 세컨드 레이디(Second Lady, 부통령 부인) 질 바이든 박사가 한국 첫 행선지로 비구니 사찰인 진관사(주지 계호)를 선택했다. 아시아를 순방한 바이든 박사는 7월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사를 찾았다. 바이든 박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관사에 머물렀으며, 주지 계호 스님과 총무 법해 스님이 직접 나서 진관사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 박사는 진관사 나가원의 조왕단 앞에서 조왕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독대를 둘러보고 효림원에서 우전(雨前 · 곡우 전후 따는 햇차로 만든 녹차)과 떡, 과일을 들면서 '여성 교육'을 주제로 차담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 진관사**

성보박물관 항온항습 국가지원 시작

문화재청, 올해 5억 1000만원 예산 편성

여름장마철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성보박물관의 항온항습비를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23일 지정 ·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주요 성보박물관에 대하여 유물의 보존 ·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1,490건, 비지정문화재 10만여 점으로 이들 문화재 대부분은 사찰 관계자 등 자체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관 · 수장고 운영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2015년 성보박물관의 항온항습비 지원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전체 35개 사찰유물전시관 중 교육용 전력 독립계량기가 설치된 대구 동화사, 경남 쌍계사 등 21개 사찰유물전시관이다. 전시 · 수장 시설규모와 유물 수량 등을 평가해 3개 등급으로 구분, 전기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사찰유물전시관뿐만 아니라 일반 문중의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도 유물의 보존 ·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 과세 재추진 이번엔 성공하나

기재부 8월 세재개편안 발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에 재도전한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 때 종교인 과세 방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되다 흐지부지된 이후 2년 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고,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새로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징수 방법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보다는 일단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해 왔지만 개신교계는 과세를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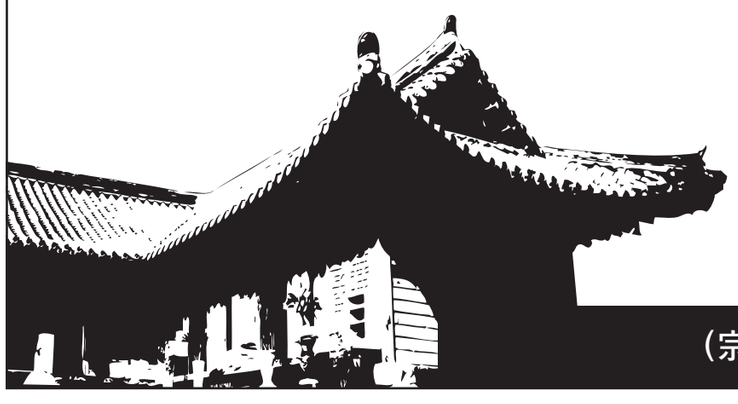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봉은사 중창불사 40년 만에 본격 시동

올 10월 첫삽, 2025년까지 3단계 불사 계획 돌입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의 중창불사가 40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7월 23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중창불사 계획안이 21일 도시공원위 심의를 통과해 올해 10월 안에 중창불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은사는 2만여 평에 달하는 입지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편의성, 역사성 등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시민들과 외국인이 즐겨 찾고 있다. 하지만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기도 · 수행을 비롯한 종교활동에 필요한 건물들의 신 · 증축과 시민 휴식공간 건립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요법당의 법회공간이 부족해 마당에 지어진 임시법당에서 법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님들 거처인 요사채를 비롯해 식당 등 대부분의 건물이 가건물이다.

봉은사는 이에 2008년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 계획이란 중창불사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3년 서울시 조례 개정에 이어 이번 도시공원위 심의 통과로 사실상 제한은 사라졌다.

봉은사는 총 3단계로 나눠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016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불사에는 정부와 시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불사에서는 현재 지장전 옆 가건물 7개동을 철거하고 이 곳에 전통문화체험관 2동을 건립한다. 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통문화체험실, 수행실, 강의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

2단계 불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외국인VIP 숙소를 비롯해 요사채와 신종루, 기도회랑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 중인 문화회관을 반환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신도회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관 설립부터
역사문화공원 조성 추진
봉은사 "40년만의 쾌거"
불사 의견 수렴도 진행

3단계불사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6층의 불교종합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법왕루와 진여문, 일주문 등도 1920년대 자료에 근거해 재건축될 예정이다.

원학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스님은 "현재 문광부 기금과 시 예산, 기도정진을 통한 불사금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예결위를 찾아 봉은사 역사공원 필요성을 홍보하고 문광부 기금 1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봉은사에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만 30만명이 넘는다. 예산 지원의 이유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때 비막이 임시법당 철거요청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위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공간 마련 후 철거하겠다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봉은사 중창불사 마스터플랜 조감도. 조감도 중앙이 현재 주차장 부지로 불사 후 공원으로 바뀐다.

스님은 "남은 불사금은 화주를 통해 충당하며, 내년 정부예산도 충분히 신청할 예정"이라며 "봉은사는 직영사찰이기 때문에 종단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봉은사는 불사추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한 상태로 위원장은 불국사 종상 스님이 맡았다. 불사추진위원회에는 종단 측 인사와 신도회도 참여할 예정이다.

스님은 "〈운영백서〉 발간 이후 매뉴얼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다. 종단에 보고가 이뤄지며 매분기 감사도 진행된다. 신도들에게는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상황이 공개된다. 불사 또한 매우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스님은 "직영사찰 주지는 재산 관리인으로 원장 스님이 주지"라며 "직영사찰 주지 임기 2년은 원장 유고시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이지 사실 제한은 없다. 떠나는 날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인근 지역이 다시 개발되며 현재보다 외국인 방문객이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봉은사에서 한국전통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불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은 7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5천 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맨 오른쪽)이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네팔 위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한마음선원, 포교원 산하단체 등 7월 23일 동행에 기금 전달

총 모금액 20억 원 돌파

네팔 지진 참사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 온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 네팔 구호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인 포교사단(단장 곽명희)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 등도 4069만8320원을 십시일반 모연해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다.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5곳의 지원에서 온정을 모았다. 네팔 지진 이재민들에게 뜻 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에서 570만원, 그 외 포교사단에서 3600만원의 기금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구호기금은 네팔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주요 기부 단체들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기금으로 모연된 성금은 7월 23일 현재 20억 원을 돌파했다.

신성민 기자

문제 풀면 기부 동참…진화하는 나란다 축제

조계종 포교원 · 은정재단, 제7회 나란다 축제 개최

9월 5 · 6 · 16일 동국대 등서 진행
1문제 정답시 100원 기부금 적립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에 동참

교리 경연 등을 통한 불교 인재 양성의 장인 나란다 축제가 이번에는 간접 기부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나란다 축제'는 9월 5 · 6 · 16일 등 3일간 서울 동국대학교 일원을 비롯한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지에서 개최된다. 부문별 참가접수는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다.

이번 나란다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부 동참'이다. 부문별 참가자 1인이 1문제의 정답을 맞출 경우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경시대회 및 댄스대회 참가자는 응시만으로도 100원이 자동으로 쌓인다.

'제7회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체험마당 △백일장 및 사생대회 △회향마당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등 6개 마당으로 펼쳐진다.

나란다 축제의 시발점이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 · 고등부는 서울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 지역별 시험장을 개설, 참가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시험장에는 문화마당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응시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경기 · 강원권은 서울로 집결하며,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K-댄스대회는 9월 5일 오후 7시 장소를 동대문 굿모닝시티 특설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예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영상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결선 진출자는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초등생과 일반부, 외국인 부문 모두 9월 5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오전 11시 시작되는 일반부는 개인별 참가가 원칙이며,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성민 기자

도난 문화재 전담 수사관직 창설된다

경찰이 문화재 전담 수사관을 두고 문화재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7월 19일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40명 내외로 구성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전문수사관은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의 전공자나 문화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위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추가된다.

그동안 문화재 범죄 수사에서는 도난이나 국외 밀반출은 광역수사대와 강력팀이, 유지보수 관련 비리는 지능범죄수사대와 지능팀이 각각 수사하는 등 이원화된 부분이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설 전문 수사관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해당 교육을 거친 수사관들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된다.

노덕현 기자

약자 자비행 '성과' · 균형 발전 '미흡'

조계종, 21일 상반기 사업 평가 보고회

대중공사 · 세계대회 긍정 평가
성역화 · 균형 발전 등 저조해
하반기 승가청규 제정 추진

조계종이 상반기 주요성과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세계평화기원대회, 해외구호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현 집행부 중점 과제인 중앙 · 교구 균형 발전 등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해 하반기 중점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21일 '불기 2559(2015)년도 제34대 중점 종책과제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차 · 팀장급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국장 남전 스님의 22일 브리핑에서 알려졌다. 보고회에서 기획실은 총평을 통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5.16 세계평화기원대회 △네팔 등 해외 구호 사업 △세월호 1주기 추모법회와 성소수자 초청법회 △'국유림경영및관리법' 개정 △1급 승가고시 △신도 선혜품계 첫 시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전 스님은 "대중공사는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 의견을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세계평화대회는 한국불교 사상 최대 인원을 동원하면서도 안전 사고 없이 무사 회향한 점과 연등회와 함께 간화선을 홍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적 사항으로는 진척이 없는 총본산 성역화 사업, 중앙 · 교구 균형 발전과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기된 종단 현안을 종책에 반영 등이 나왔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과 세계 대회 당시 종무원 차출로 빚은 업무 공백 등도 제기됐다.

남전 스님은 "총본산성역화사업은 예산 확보와 사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올해 안에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현 집행부 임기 중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교구 균형발전 계획은 하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가동되면 올해 안에 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와 승가청규 제정이 이뤄진다. 남전 스님은 "승가청규 초안은 이미 나왔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수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동국대 서울캠퍼스 업무보고회

일면 동국대 이사장 스님은 7월 22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제 14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 스님은 '제 14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와 연꽃 축제'를 8월 1일~3일 선원사 연꽃축제장에서 연다.



중국 북방불교 법왕과 환담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은 7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바이아마오서 중국 북방불교 법왕을 포함한 방한단과 환담을 나눴다.



한기늠 작가 개인전

한기늠 작가는 8월 5일까지 부산 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자연속에서, 홍죽 등의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인사〉 조계종 교역직 인사



해량 스님



보운 스님



석운 스님



덕운 스님



범하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 23일 감사국장에 해량 스님, 호법국장에 보운 스님, 조사국장에 석운 스님을 상임감찰에는 덕운 스님, 조사과장에는 범하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국장 해량스님은 정념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중대 사자암 감원을 맡고 있다.

호법국장 보운스님은 해경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금정총림 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덕숭총림선원, 묘관음사 길상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총무원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백룡암 주지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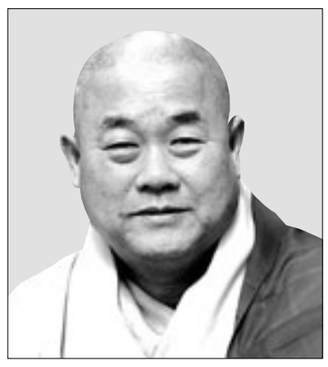
조사국장 석운스님은 수진스님을 은사로 1996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팔공총림선원, 쌍계총림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영축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덕운스님은 무문스님을 은사로 1994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직지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석남사 주지, 총무원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조사과장 범하스님은 진옥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에 韓불교 자비 전할 것"

송묵 스님, 8월 2~9일 씨엠립서 해외봉사 펼쳐



우물사업서 봉사 원력 생성
현지 사정 안타까움 느껴
교육 · 의료 등 다방면 확대
"한국청소년 참된 가치 깨닫길"

"현지 보살님에게 씨엠립 지역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 의료 · 교육 등 열악한 환경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봉사 반경을 넓히게 됐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사진〉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함께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파라미타 소속 중 · 고생 및 포교사단, 동국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7박 8일간 우물지원, 교실지원, 의료 · 약품지원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송묵 스님의 봉사 원력은 우물지원사업부터 시작됐다. 우물 지원을 위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던 중 열악한 교육 · 의료 환경을 알게 돼 봉사 영역을 확대했다. 동국대 의료진 6명이 합류한 의료 봉사단은 클링하이스쿨 학생들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묵 스님은 "동국대 의료진에 의료 봉사 지원을 요청하자마자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 참여의사를 내비췄다"며 "이번에는 지역사회 의료 봉사를 진행해 많은 일손이 필요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줘 기쁨이 배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평소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열성적인 송묵 스님은 씨엠립 지역 초등학교 '클링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해 약 1천만 원 예산의 25평 교실 건립한다. 이번 파견 기간 동안 기공식에 착수해 한 달여간 공사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3백여 명의 교복 및 학용품, 생필품도 지원한다.

송묵 스님은 "교실이 모자라 밖에서 공부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면서 "교실 건립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복, 학용품 등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스님은 "이번 봉사단에 참여하는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현지 아이들을 보며 인간의 참된 행복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봉사활동 및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세계적 안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한복 등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전거 30대도 증정한다.

아울러 우물지원은 약 80m 지하까지 파내어 건기 때도 식수가 공급되게 할 방침이다. 지역 대부분 우물이 평균 약 30m로 건기 때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박아름 기자**

"성철 스님 사상 널리 알려지길"

백련재단, 21일 고심정사서 선양 법어집 봉정법회



이사장 원택 스님이 부처님께 〈명추회요〉를 봉정하고 있는 모습.

1976년 〈한국불교의 법맥〉을 시작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성철 대종사 사상 선양 법어집들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봉정법회가 열렸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7월 21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성철 스님 선양 법어집 봉정법회'를 개최했다.

성철 스님 문도회 스님들과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봉정법회에서 대중들은 많은 국민과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선지식(善知識) 성철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발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법어집 발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 스님과의 인연으로 법어집 발간을 시작했다고 밝힌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당부가 담겨 있는 법어집들은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활동가 기반, 자정 실천운동 펼칠 터"

손상훈 신임 교단자정센터 원장, 21일 기자회견



지난 7월 9일 열린 교단자정센터 이사회서 선출된 신임 원장 및 정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이하 자정센터)는 7월 21일 서울 인사동에서 신임 교단자정센터 원장 및 정책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임 손상훈 원장〈사진〉과 조재현 정책위원장은 소감과 자정센터의 향후 방향성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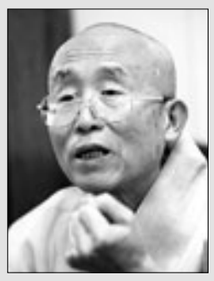
손상훈 원장은 교단자정센터 창립 이래 최초의 활동가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손 원장은 "정책위원들을 보강해 조계종책 연구를 통한 의제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활동가 출신을 기반으로 자정 실천 프로그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흥국사 탱화 반환 문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손 원장은 "우선 봉선사에 보관 중인 흥국사 탱화 간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화재법 위반 은닉행위 저촉불문 여부를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려낼 것"이라며 "문화재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흥국사 탱화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조재현 정책위원장은 "교단에 대한 객관적 문제의식을 해석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공공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前 김종규 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로서 교단자정센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월운 스님, 동국대 명예박사로



봉선사(주지 정수)는 7월 17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의 간청으로 월운 스님이 학위수여를 허락해 8월 19일 동국대 졸업식에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역경사였던 운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운 스님〈사진〉은 평생을 역경불사에 매진해왔다. 운허 스님의 뜻을 이어 37년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또 국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대작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스님은 1994년 4대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한 이후 후학양성에 매진해왔다. 2008년 불교학술원이 설립되며 당시 동국대 측의 일방적인 역경원장 해임 결정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명예역경원장 추대 등이 이어졌으며 2009년 동방대학원대의 명예박사, 2014년 중앙승가대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방불교대학 2015년도 입학식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15학년도 입학식이 신입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0일 서대문구 봉원동 동방불교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덕화스님,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호명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대은스님, 마산 세심사 주지 호정스님과 조준호 교수 등 교수진이 참석해 신입생들을 축하하고 장도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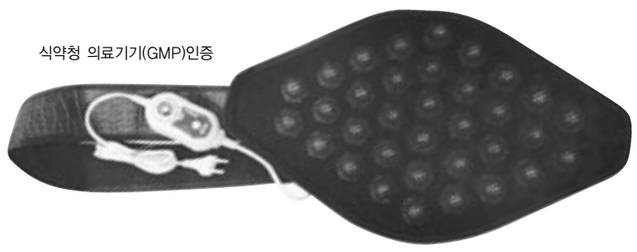
이번 동방불교대학에는 불교학과에 27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2년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입학식



춘천 현지사(주지 대원)는 7월 11일 대전분원 영산불교대학에서 제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영산불교대학 입학식에서는 760명이 입학했다. 이와 함께 현지사 제2본산 제주도에서는 7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불교대학장 덕산 스님은 "불자들의 신심과 정견을 연마시켜 우리나라 모범 불자리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차문화연구보존회는 다도시연 후 삼광사 어르신들을 무대로 초대해 즉석에서 다도를 가르쳤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차를 따르는 모습.



삼광사 다문화뮤지컬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이 식전 무대를 장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이 전통차 부스를 돌아보며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소외이웃과 함께한 '茶 공양' 축제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30주년 기념 '차문화 들차 어울림 한마당'

"차(茶)를 통해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을 만들어 항상 차와 같이 맑고 향기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날 이 자리는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30주년일 뿐만 아니라 차인들의 소통의 대축제입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힘찬 개회사가 무대 위에 울려퍼지자 1000여 대중들의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부산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김미규)는 7월 23일 부산 삼광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차문화 들차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했다. 차문화연구보존회는 1985년 차 공양을 시작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이날 자리는 차 전문가들의 다도시연부터 일반 시민들의 차체험 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차판매 수익금 전달식 등 부산 · 경남지역 다인(茶人)들의 차 축제로 펼쳐졌다.

개막식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먼저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다례인 '접빈다례' 가 펼쳐졌다. 들뜬 분위기도 잠시, 차분한 옷차림을 한 다인들의 모습에 장내는 이내 조용해졌다.

이들은 정갈한 보자기로 차상을 덮어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찻물을 내리기 전 보자기를 올리자 하얗게 드러난 백자다구들은 그 청명함에 좌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중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김미규 회장의 죽비소리에 맞춰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은 고요하면서도 느리지 않게 다도를 선보였다. 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를 보여줬다.

격조 높은 다도 시연에 이어 삼광사 내 신행단체들의 차문회연구보존회 30주년 기념 '차문화 예절 겨루기' 도 열렸다. 신행단체 대자비팀, 부일회, 삼광다도대학 초보팀, 어린이회 등 4개 팀이 참가했으며 우승은 대자비팀에게 돌아갔다.

앞선 보존회에 비해 다소 미숙한 몸놀림이었지만 대회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겨루기에 참가한 이수자 부일회 회장은 "다도를 통해 격조 높은 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단상에 올라 시연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은 부일회 회원들을 하나로 만들어는 주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차 문화, 지역민 위해 회향

신행단체 '차겨루기 대회' 도 눈길

1000여명 운집, 지역 차인단체도 참가

천태힐링템플명상, 서예체험 등도 펼쳐져

이날 삼광사 곳곳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도 마련됐다. 차문화연구보존회와 함께 신라대 신라차문화원, (사)한국다도협회 부경지부, (사)차인연합회 온비다례원 등 지역의 차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황차 · 홍차 · 청차 · 말차 등 전통차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장은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각 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차 테이블을 손수 준비한 수국, 국화 및 아름다운 다화로 장식했다.

부산 부암동에서 온 김영숙 씨(53)는 "다식을 맛보았는데 맛을 보기 전 까지는 옥수수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여서 기품이 느껴졌다"며 "직접 만든 티 워머와 전통 찻잔 등도 이색적이었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찻잎을 덖는 전통차 제조 체험과 세계 차문화 시음, 연꽃등 제작 등의 체험코너가 마련됐다. 또 들꽃 서예, 황산 이수백 도자기 특별초대전, 차 · 도예 명인전, 차문화 및 환경보호 특강, 캘리그라피 · 캐리커쳐 나눔 등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삼광사 신도 안금자 씨(74)는 "세계 차 문화 체험에서 몽골차를 마셨는데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특별했다"며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세계 각국의 차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차문화 보급의 대척점에 서있다는 커피문화도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동대 호텔 소믈리에 바리스타학과의 학생들은 이날 행사장에서 대중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바리스타로 참여한 김현지 학생(21)은 "커피 또한 인스턴트 방식에 대응해 전통적인 바리스타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통차 보존과 발전에 커피문화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도와 참선, 그리고 걷기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태힐링템플명상' 도 열려 양산 동원과학기술대를 비롯한 부산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차문화연구보존회 30주년을 맞아 모두가 차를 매개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를 열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차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하성미 기자

"30년 차문화 보급… 전문가 350명 배출"

김미규 차문화연구보존회장



"30년 전 봉사단체로 시작한 저희 삼광사 차문화 연구보존회는 지금까지 350여 명의 차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삼광사 행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소외계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으로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김미규 회장은 차문화연구보존회의 가장 큰 힘은 전문인재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을 위한 차문화 테라피 △청소년과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 명상 지도자 △다종교 공감 차문화 축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 문화 축제 등 수많은 차 관련 행사 등 차문화연구보존회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삼광사 차문화 연구보존회 정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모두 삼광사 다도대학 1년, 고급반 1년을 거쳐 총 2년의 수료과정을 마친 재원들이다. 특히 차문화연구보존회에서 마련하는 차 관련 강의는 전국의 대학교수 및 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강사진을 자랑한다.

"우수한 다도교수 초청은 물론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수여해 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많은 불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했던 일반인 주부가 차문화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미규 회장은 올해 하반기 천태종 사찰을 중심으로 천태다법을 배포할 계획이다. "천태종 교의인 원융삼제(圓融三諦)는 우주만물이 있는 그대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담은 천태다법은 그 어떤 다법보다 특별할 것입니다."

■삼광사 차문화보존회는 1985년 5월 21일 전통차 문화를 계승하고 연구개발 및 보존을 위해 창립됐다. 1990년 6월 박강자 강사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삼광사 다도대학이 개설됐으며, 같은 해 중국 항주 제1회 국제차문화대회 참가해 한국차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1995년 8월 (사)한국차인연합회에 가입해 차인들과의 교류에도 나섰으며 2002년 금당문화원 녹야 강옥희 선생의 다도 강좌를 개설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다도 시연에 참가했다. 2014년 제1회 다종교 공감 차문화를 주최해 종교를 뛰어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삼광사 차문화보존회는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차문화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27법난

2015년

미술전 공모

대한불교조계종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함께 10·27법난 2015년 미술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980년 10월 27일에 일어난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무고한 스님들과 불교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고초를 겪게 한 사건입니다.

10·27법난 2015년 미술전은 당시 사건을 현시대에 맞게 예술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10·27법난을 주제로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부문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10·27법난은 한 종교나 개인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의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뚜렷한 인식과 반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줄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제출방법 및 작품규격
- 제출서류 : 1) 출품신청서 〈별첨1〉 1부
  2) 작품설명서 〈별첨2〉 1부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 작품 제출방법 : 출품작은 제출서류(출품신청서(별첨1), 작품설명서(별첨2))와 함께 제출
- 작품장르 :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 작품규격
  1) 평면 : 가로 2m×세로 2.5m 이내 (액자 포함)
  2) 입체 : 가로 1m×세로 1m×높이 2.5m 이내 (좌대 포함)
- 출 품 수 : 1인 2점 이내
- 기타사항
  1) 출품신청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출품작은 국내의 미발표 작품으로, 주제와 맞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전시 장소가 개방형 공공장소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작품에 손상을 입을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2015년 1월 1일 현재)

■ 접수일정
- 접수일 : 2015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TEL : 02-2011-1821)
- 응모비 : 없음

■ 심사발표 및 작품반출
- 심 사 발 표 : 10월 22일(목)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및 개별통보
- 낙선작품 반출 : 10월 22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 입상작품 반출 : 10월 28일(수) 오후 4시~오후 8시
- 반 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작품 반출시, 반출증을 필히 지참

※반출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시상내역

시상내역	작품구분	상장 및 상금	시상자
대 상	1명	상장 및 부상 (상금 500만원)	총무원장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부상 (상금 200만원)	10·27법난위원장
우 수 상	3명	상장 및 부상 (상금 100만원)	운영위원장
특 선	10명 내외	상장 및 부상 (상금 50만원)	심사위원장
입 선	00	상장 및 부상 (템플스테이권 2매)	사무처장

■ 문의처 : 10·27법난 미술전 담당 이지은
Email : 1027bnan@naver.com
TEL. : 02-2011-1821, FAX : 02-735-0614
www.buddhism.or.kr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 10·27법난 미술전 운영위원회
● 후원 :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 미술전 운영위원장

불교사회적경제 '붐업' 소셜빅마켓 개최

불교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소셜 빅마켓이 열렸다. 소셜 빅마켓은 불교의 혁신적인 문화제품(Buddhism Innovation Culture)을 발굴·개발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상설적인 불교사회적경제 마켓이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7월 25~26일 홍익대 앞 카페 '느림'서 불교사회적경제 붐업을 위한 소셜 빅마켓을 개최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기여 활동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그간 불교기업 제품은 장점과 전통문화 스토리를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기여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단지 개인적 생계수단 중심으로 사찰이나 신도들에게 판매돼왔다"며 "대학가 젊은이들의 거리서 불교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켓을 개최함으로써 불교사회적경제 제품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빅마켓에는 디자인뮤, 고려공예와 선아·망수매듭 연구소, (주)나눔가계 도돌이, 다올한지인형, 아트앤크래프트, 효드림라이프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업체들은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불교계 사회적 기업들이다.

한편 2차 소셜 빅마켓은 8월 22~23일 홍익대 앞 카페 '느림'서 개최될 예정이다. (02)732-7273

박아름 기자

자살충동 고위험군… '불교테라피'로 치유를

불교상담개발원·생명나눔 등 자살예방 '다채'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포함 국민자살률 1위다. 특히 최근 정재계 인사, 고위 공무원 등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확산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 여러 단체들이 자살예방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자비의전화·불교자살예방센터협의회·생명나눔실천본부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나'를 포함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불교 생명관을 토대로 자살예방상담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이하 상담개발원)은 최근 서울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살사프로젝트'를 주최하고 템플스테이, 종교예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살사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준말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5대 종단과 연계해 주민 밀착형 지역사회자살 안전망 형성을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템플스테이 '참 나를 찾아서'는 지난 7월 25~26일 여주 신륵사서 열렸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자살 고위험군에 처한 자들을 대상으로 △동작테라피(불교상담대학 전나미 교수) △스님과 차담 △강연 '당신은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前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이근후 박사) △전문상담원의 1:1 개인상담 등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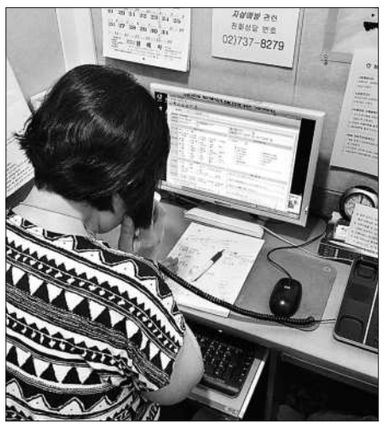
이밖에 오는 9월 4일에는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을 위한 천도재도 거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2015중앙자살예방센터 공모사업 중 하나로 '심리극을 통한 자살 이해-길' 주제로 심리극 및 퍼포먼스가 열린다. 집단심리치료방법으로 알려진 심리극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이를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개발원은 "문제나 주제들을 단순히 토론하기보다 사람들의 자발적 흥미를 이끌어 행동상 문제들을 자각하게 하는 과정"이라며 "타인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02)737-7378

불교자살예방센터협의회(회장 부명, 이하 자살예방협의회)는 상담개발원 부설단체로 7월 1일~8월 30일 자살예방홍보캠페인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5명 등은 조계사, 명동성당, 서울역 등지서 자살예방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부명 스님은 "불교계 포함 전국 지자체서 많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홍보가 미비하다보니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삶의 실의에 빠진 자들이 더 많이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자살예방센터는 전국 14개 기관서 운영 중이다. 상담개발원 자살예방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한편 기관별 독자 활동도 한다. 특히 부명 스님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몽운사 자체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삶의 의욕을 잃을 때 몽운사에 찾아와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자비의 전화는 5월~11월 서울시 공모사업 '살사프로젝트' 일환으로 종교상담서비스-전화·면접상담을 진행 중이다.

전국사찰 및 단체 예방센터 구축
불교생명관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
템플스테이, 심리극, 상담 등 다양
문턱 낮춘 예방센터 호응 높아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불교상담개발원 부설기관으로서 살사프로젝트 '종교상담서비스-전화·면접상담'을 5월~11월 진행 중이다. 전화 상담은 매일 9시~6시(수요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면접상담은 예약 접수 후 가능하다. 현재 일평균 5건 정도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자비의전화는 "한 번 전화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삶의 위기를 느낄 때 편안한 대화상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화상담 (02)737-8279 면접상담 (02)737-7378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생명나눔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부처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힐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희망나눔 걷기대회, 명상치유강의, 생명나눔 치유콘서트 등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생명사랑다이어리 △만나서 반가워 등을 비롯, 중고생을 위한 △생명의 신비 △마술·토크콘서트 'Life is'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또래관계 향상 훈련 '소울메이트' △자살징후 바로알기 등 자살예방교육 등이다. 이밖에 상담 기관 연계 및 상담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생명나눔자살예방 홈페이지(www.my-life.or.kr)서는 비공개 상담 및 심리척도자가진단 등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에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도 발족했다. 따숨은 '따뜻한 목숨'이란 의미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국의대생연합모임 메디키퍼 소속 학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5개월 간 자살예방캠페인 및 청소년 교육동영상 제작,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02)720-772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불교자살예방센터

권 역		명 칭	전화번호
서울	강남	서울사진치료연구소	02)541-5171
	마포	성림사	02)334-6465
	은평	묌행복차담명상	02)6338-7676
	은평	이경애심리상담소	02)354-4647
경기	용인	장경사	031)332-8981
	남양주	정혜사	031)576-8252
	이천	보림사	031)634-3150
강원	홍천	지장선원	033)436-7222
경남	산청	맑은명상상담센터(대원사)	055)974-1113
대전	중구	만불선원	042)222-3315
인천	인천	몽운사	032)836-0108
전북	무안	명상상담센터 '쉼'	061)454-2303
전남	목포	영은사	061)382-3373
충남	서산	망일사	041)663-8441

대불련 '영부디스트캠프'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대불련)가 포교원과 함께 8월 13~16일 하동청소년수련원 등지서 '제6회 영부디스트캠프(KBUF Young Buddhist Camp)'를 공동 주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성전 스님의 '청춘법문'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 및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초청강연 △쌍계사·보리암 사찰순례 및 지리산 불일폭포 탐방 △교리퀴즈대회 '도전 붓다킹' △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별빛문화제' △솔직 공감 토크 '19금 붓다 Ⅱ'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 및 사찰 대학생법회 회원을 비롯한 불교를 접해보고 싶은 일반 대학(원)생 등이다. 대불련 홈페이지 혹은 전화 신청할 수 있다. (02)732-0239

박아름 기자

불교계 최초 국악 경연대회 열린다

은정재단, 9월 5일 동국대 일원서 개최

고교생 대상 4개 분야 경연
문체부 장관상외 16개 시상
국악 인재 발굴·육성 '기대'

청소년 국악 인재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가 불교계 최초로 열린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국악과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일반 법인 단체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으로 종교계에서 국악 경연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첫 실시되는 경연대회는 지난 6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며, △성악 △기악 △무용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예선과 본선이 펼쳐진다.

총 장학금 1천 여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종합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인을 비롯해 분야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각 4명씩 총 16명의 우수 연주자를 선별해 시상하게 된다.

성악분야 예선은 판소리와 정가, 송서율창, 가야금병창, 민요 등을 경연 종목으로 하며, 본선은 예선과 중복되지 않는 바탕을 자유롭게 공연하면 된다. 기악분야는 산조를, 타악분야는 개인놀이를, 무용분야는 전통한국무용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연하면 된다. 제한시간은 예선과 본선 각각 5분이며, 무용 분야의 경우 7분 내에 공연을 마쳐야 한다.

오후 1시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펼쳐지는 본선은 분야별 예선을 통과한 4명씩 총 16명의 연주자를 선발해 분야별 경연으로 펼쳐진다. 종합대상 1명은 심사위원 전원이 각 경연 분야별 금상 수상자 중 최우수 연주자 1명을 투표지에 기입해 선정한다.

대상을 비롯한 수상자는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하는 등 꾸준한 인재 관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향후 고등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전과 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입시에 도움되는 상을 추가해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스케일 더 키워 나란다 축제와 함께 병행해 불교 인재 양성의 축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시상식 열려

전국 1만 5천여 명 응모… 대상 박세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7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장실서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박세원(영석고·2년), 최우수상은 동국대총장상 김시영(동대부속여중·1년)및 조계종포교원장상 김혜나(동마중·3년)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박세원군은 "사경 주제인 '안온해 지는 법'은 부처님 미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며 "부처님 미소를 떠올리니 따뜻함이 느껴져 노란색으로 배경을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지원 스님은 "요즘 인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수상한 모든 작품에도 학생들의 인성이 녹아있는 것 같다"면서 "불자 된 도리로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7월 20일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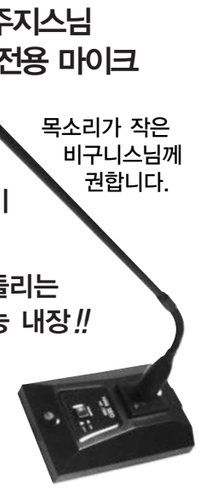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인문학으로 접근한 노인 소통 집단상담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행복시소〉 전자책 출판



전자책 행복시소 표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여전히 '돌봄의 대상' 이다. 대부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자살률도 높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통의 문제는 어르신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노인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전자책 〈행복시소〉로 출판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그간의 상담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시소〉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2013년 6월~8월 두 달 동안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호평 받았던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 '행복하고 시원한 의사소통(행복시소)' 의 내용을 전자책으로 엮었다.

'행복시소' 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인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재구조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인문학과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행복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그려 보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과 복지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상호지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어르신상담센터는 "사회복지의 실천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서비스의 총체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풍부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소통이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함께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복지와 인문학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전자책 〈행복시소〉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에서는 이론과 집단상담의 실제 내용, 평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책의 본문에 해당되는 4장은 총 8회에 걸친 '행복시소' 의 회기별 진행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다. 각 회기별 키워드를 인문학적 사유방식 중 특히 철학적 인식론과 관련지어 설명했으며, 진행자의 발언, 어르신들의 스토리텔링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향후 집단상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4장에서는 마주침, 경청하기, 반영하기, 공감하기 등을 키워드로 한다. '경청하기' 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 및 니체의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인식론적 의미를 소개했다. '반영하기' 에서는 라캉과 데카르트를 통해 근대와 탈근대적 사유에서 주체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반영적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소개했다. '공감하기' 는 레비나스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고찰해 공감이 의사소통의 문제일뿐 아니라 동시에 윤리의 문제임을 설명한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장 희유 스님은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의사소통 집단프로그램 '행복시소' 를 함께 공유하면서 노년기 가족과 지인 혹은 사회로부터 겪는 의사소통은 물론 소통과 공감이라는 우리 사회의 화두를 열어 가는데 의미 있는 노력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책 〈행복시소〉는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등 인터넷 서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가는 6,000원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 '행복하고 시원한 의사소통(행복시소)' 을 진행해 호평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전자책 〈행복시소〉를 발간했다.

소통 부재로 겪는 노년의 고통
8회기로 구성된 집단상담 담아
공감의 사회 만들어고자 기획

안전보건공단 중림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사업에 지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7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김영호)와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쌀 80kg은 지역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양질의 식생활 지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김영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6회의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학습지원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혜숙 기자



안전보건공단의 후원금과 물품식 전달

내서복지관 '건강한 복날 보내기'

7월 23일 어르신 300여 명에 삼계탕 · 다과 제공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3일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건강한 복날 보내기' 를 실시했다. 마산 서로타리클럽 회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저소득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했다.

초복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 대해 내서종합복지관은 "복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삼계탕과 다과를 마련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에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고단백 식사를 제공,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지역 단체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후원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내서복지관 '건강한 복날 보내기' 는 8월 12일 말복에도 이어진다.

정혜숙 기자



어르신들의 삼계탕 식사 장면

"시원한 팥빙수 먹으며 여름 더위 식혀요"

동행, 지역아동센터에 팥빙수 및 기기 지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7월 22일 혜명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접 빙수를 만들어 주는 시간을 보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7월 22일 서울 금천구 혜명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무성)를 방문해 빙수기를 지원하고, 아동들과 직접 빙수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동행의 '핫한 여름, 쿨한 나눔' 모금 캠페인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아동센터 또는 방과후 교실에서 보내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더위를 식혀주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팥빙수 세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빙수기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들이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팥빙수의 재료도 지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약 20명의 초등학생들과 아름다운동행 직원들이 함께 빙수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학생들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에게 빙수를 직접 만들어서 전해주어 훈훈함을 더했다.

혜명지역아동센터 이무성 센터장은 아동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센터장은 "아이들에게 빙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을 해줘 감사할 따름이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이번 캠페인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채희준(서울백산초 4학년)군은 "팥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맛있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보인고, 마천 복지관 어르신 '말벗 봉사'

7월 18일 떡 · 양말 등 후원물품 전달도

보인고(교장 김정헌) 학생들이 7월 18일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와 말벗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참가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안마와 말벗을 해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 떡, 양말, 라면 등의 후원물품을 학교를 대표해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춘식 어르신(가명)은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안마도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보인고는 지역 내 저소득층어르신들에게 물품지원과 안마 · 말벗서비스 등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학생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9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8월 17일
◆ 개강일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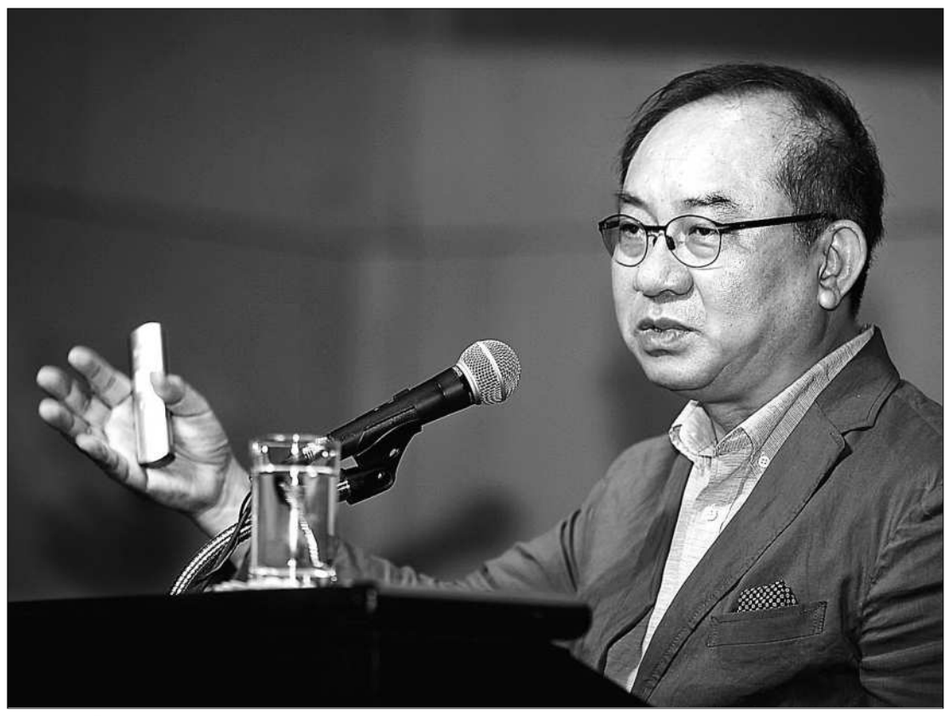
건축 구도미 위해선 '중력' 내려 놓아야

7월 불교포럼 '마음의 풍경, 비움의 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진정한 구도(求道)는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다. 건축에서 구도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중력' 이다. 중력을 벗어난 건축물은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된다. 절벽에 자리해 아찔한 긴장과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는 금강산 보덕암이 그러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은 7월 22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 호텔에서 열린 불교포럼서 '마음의 풍경, 비움의 건축' 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봉렬 총장은 한국의 독특한 사찰 건축 구조 몇 선을 소개하며 그 속에 내재한 미(美)의 가치를 해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김봉렬 총장은 …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前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1, 2, 3〉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1, 2〉외 등을 펴냈다.

백척간두 속 진리구도

'가져온 것이 없다' 는 관념마저도 내려놓을 때 진리가 보입니다. 마지막 집착도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하는 처절한 구도의 길입니다. 구도를 위해서는 건축물에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최후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력입니다. 건축 발전의 역사는 곧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습니다. 중력을 거부하려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야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건축의 아름다움 가운데 구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안정된 건축물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조미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보덕암은 아름답습니다. 사성암, 연주암, 중국의 솬꽁쓰, 부탄의 탁상 곰파도, 그리스 마테오라의 수도원들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구조적 긴장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거부할 수 없는 중력조차 내려놓았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딛을 때 중력이 없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파멸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순간 입니다. 수도자가 목숨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듯이, 건축은 중력마저 거부할 때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장애는 무애다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더욱 자유롭습니다. 대웅전에는 고려와 조선 사이 시대적 차이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부재(部材)도 버리지 않으려는 검약정신의 결과이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축적하고 역사를 남겨두는 고차원적인 건물이 되어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약사전은 비록 규모는 줄었지만 칸 수는 지켜내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재 크기의 부조화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유래 없는 연립 불전이며 기둥의 굵기가 너무 커서 과장스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 요인이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연립 불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무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약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독창성도 없는 것입니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건물들은 숱한 장애 속에서 지어졌지만 거리낌 없는 호쾌한 건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건축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거칠고 자유로운 건축들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우아한 매너리즘의 폐허

영암사의 건축과 예술은 그런 면에서 경주 문화의 매너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주의 고급문화 형식을 따랐지만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 산 속으로 입지가 변했고 귀족에서 호족으로 후원세력이 달라졌으며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의도 변화했습니다. 형식은 더 자유롭게, 장식은 더 화려하게, 규모는 더 크게 형태는 변형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기단석의 사자들은 사실적이기 보다 해학적입니다. 어떤 사자는 혀를 내밀고 있고 어떤 놈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용맹스럽고 규범적인 사자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애완견과 같은 모습의 사자들만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아무리 귀족문화를 따라가도 호족은 호족이듯 불국사의 구성을 따랐지만 영암사는 영암사입니다. 불국사의 건축이 정교한 고전적 규범을 따르고 전형적인 품격을 갖는 반면 영암사는 변형되고 자유로운 매너리즘적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풍부하고 해학적이며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가득한 독특한 폐허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칠고 원초적인 폐허

땅을 다지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벽을 치면 그 다음은 단청을 하고 장식을 달아 건물을 완성합니다. 무너질 때는 완전히 반대 순서입니다. 색칠과 장식이 먼저 벗겨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땅 위에는 초석과 기단만이 남아 흔적을 나타낼 뿐입니다. 돌과 벽돌로 쌓은 서양건축물은 무너져도 벽이나 기둥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땅 위에 나무구조물을 단순히 올려놓은 동양건축의 폐허에는 남아있는 것이란 그 뿐입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폐허가 옛사람들이 가람 터를 잡고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바로 그 광경인 것입니다.

그들의 취향은 미륵대원에 산재하는 석탑과 석등, 미륵불의 어설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련된 귀족적 건축이 갖지 못한 원초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의지가 숨어있습니다. 폐허인 미륵대원, 그 현장에 서면 1천 년 전 이 땅의 호족들이 뿜어내던 그 역동적인 힘들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무너질수록 최초로 돌아가는 폐허, 정교한 건축의 폐허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 애처로움을 일으키지만 미완성 건축의 폐허는 폐허인 채로 살아남아 지금도 최초의 생각과 감정들을 전해줍니다.

>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도미 피어나**
> **보덕암, 사성암, 연주암 등 대표적**
> **수행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깨달음 얻듯**
> **건축은 중력 거부할 때 아름다움 극치**

비밀의 야외 법당

허구와 같은 설화와 전설이라도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듯이 가설들도 조금씩 설득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미한 진실과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운주사에 얽혀있는 비밀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운주사 정도로 대규모의 유적들은 웬만한 재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탑과 부처들의 서민적인 미감으로 볼 때 그 주체 재력가는 중앙귀족이 아니라 지방 토착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솜씨들로 볼 때 이들은 여러 기문의 장인들이 참여한 것이어서 주체 세력도 일종의 지역 연합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작품들을 단기간에 완성했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일정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들은 집단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조된 독특한 집단을 이룹니다. 불상들의 다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석탑들도 온갖 가능한 형식들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탑마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천불천탑 중의 하나로 겸손하게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불천탑 전부는 바위 산 계곡에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뚜렷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사원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우주적 구성을,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묘한 원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최고의 설법장

불가에서 자연이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세계라 보았고, 인간 역시 사대의 물질에 의식(識)이 더해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식을 뺀다면 인간과 자연은 곧 같은 물질이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상태가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가 도시도 건물도 아닌 초원 한 가운데, 즉 자연에서 초전법륜을 시작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봉암사에는 건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보다 훨씬 위대한 건축, 자연이 살아있습니다. 신라의 도헌도, 고려의 긍양도, 반세기 전 성철도 봉암사에 웅지를 튼 것은 건축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법당도, 누각도, 어떤 아름다운 건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산철벽으로 둘러싸인 태고의 자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봉황 같은 산과 용 같은 물만을 의지하고 큰 뜻을 펼쳤습니다. 이곳을 거쳐 간 무수한 스님들은 건축물이 아닌 자연 속에서 처절히 수행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녹야원의 들판에서, 영취산의 산록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자연의 침묵인 것입니다.

부처를 보는 세 개의 시선

대승사, 윤필암, 묘적암은 신앙의 대상과 사찰이 맺을 수 있는 건축적, 풍경적 관계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대승사는 사불암을 등지고 법당을 배열하여 주불전 뒤에 또 하나의 겹쳐 진 신앙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대웅전의 불상을 예불할 때 당연히 뒷산 정상에 있는 사면불을 동시에 향하게 되는 중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윤필암은 법당의 불전을 없애고 창문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불암을 바라봅니다. 사불암 자체가 이 절의 부처이고,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인 셈입니다. 반면 묘적암은 법당이 사불암과 마주 앉아있습니다. 예불은 법당 안의 불상에게 드리지만 수행자들은 늘 사불암을 바라보면서 일상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게 됩니다.

사불암은 대승사의 중첩된 법당이 되지만 확장된 윤필암의 법당이 되며 묘적암과는 마주보는 또 다른 법당이 됩니다. 대승사는 사불암을 등지고 있지만 묘적암은 사불암을 바라보고 앉았고 윤필암은 사불암의 옆으로 앉아 있습니다. 세 절이 사불암과 맺고 있는 공간적 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사불암은 세 사찰의 공통된 야외 법당이 되어 떨어져 있지만 거대한 하나의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처를 보는 세 개의 다른 시선은 깨달음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세 개의 다른 구도의 길과 같습니다. 사불산을 무대로 펼쳐지는 거대한 건축적 방편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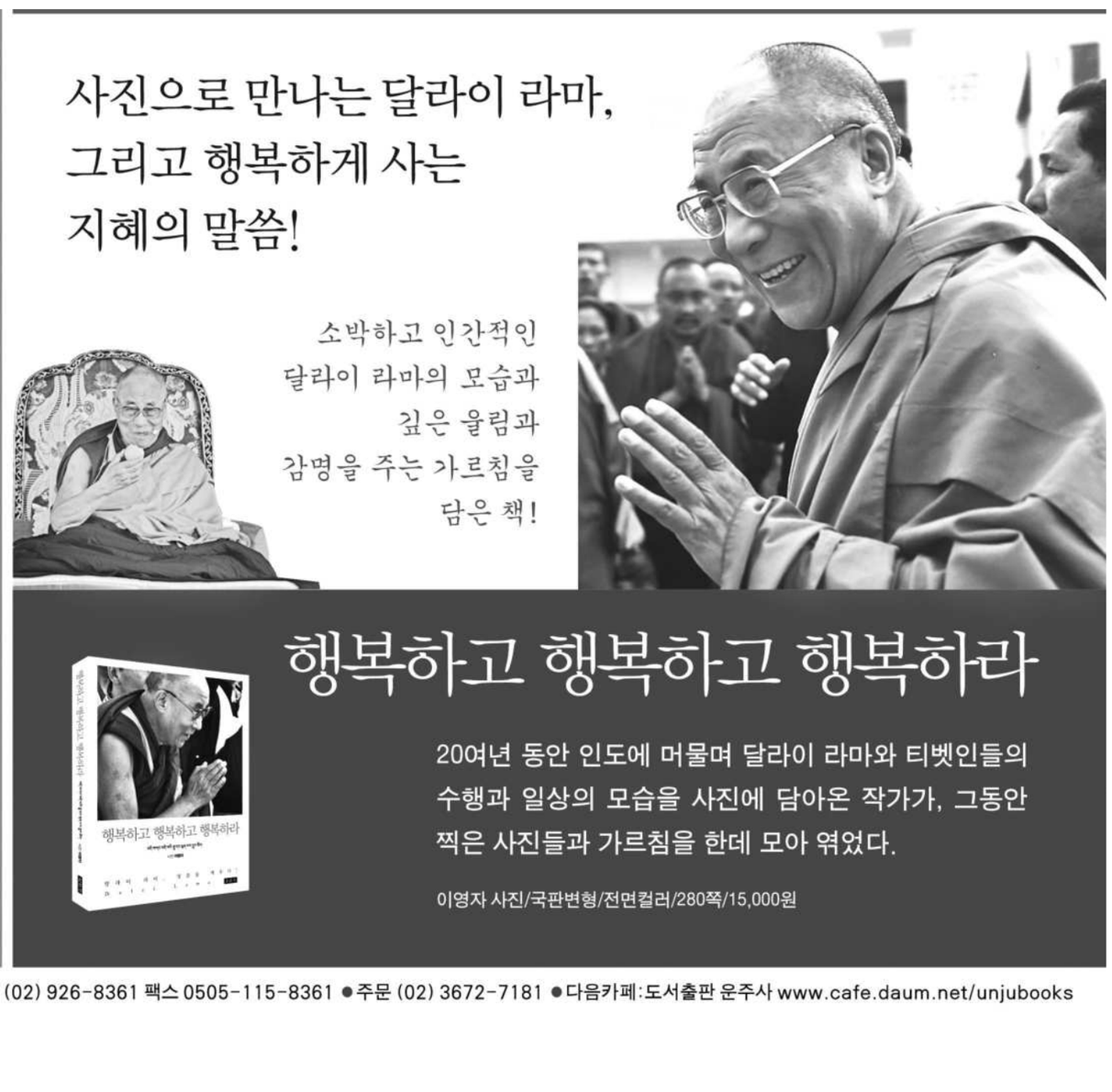
달마는 산이 되어

한국의 가람이 산과 일체화하는 원리는 미황사의 구성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응진당 앞에서 뒤를 돌아보면 남해안의 절경이 바로 눈 아래에 들어옵니다. 산 뿐 아니 라 바다까지도 가람 안에 끌어들여 총체적인 자연과 일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웅전과 응진당의 기둥들은 인근 앞바다의 보길도에서 구한 활엽수종입니다. 육송을 주로 사용한 내륙의 절집들과 다르게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웅전 기둥 아래의 초석들에는 연꽃 문양에 게와 거북이가 어우러져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절이 해안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특성과 아울러 바다의 영혼을 구제했던 해양 수륙도량의 역사적 흔적일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외로운 고혼들이 게와 거북으로 환생했을 수도 있고 게와 거북을 부처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극락왕생을 기원한 염원일 것입니다.

미황사의 스님들은 달마산의 지형과 하나가 되었고 해안 백성들의 염원과 하나가 되었으며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절들이 산악과 하나가 되어 지형적 토착화를 이루었다면 미황사는 더 나아가 수륙의 모든 생태계와 하나가 되어 신앙적 지역적 토착화를 이룬 것입니다. 산은 절이 되었고 스님은 생태계로 돌아갔습니다. 이 근원적인 회귀야말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방치된 성보문화재 불자들이 지킨다”

7월 19일 대불청 · 불교문화재硏 ‘폐사지 지킴이 활동’ 현장


한욱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사진 왼쪽)과 용주사 청년회원들이 관항리석탑을 둘러보고 있다.

“비지정 문화재는 어느날 없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해요. 지역 폐사지의 성보가 후대에 전해지는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청년회가 탑 앞에 작은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찾아 뵙고 허락을 받고 싶네요.”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7월 19일, 화성의 관항리 마을 입구에 자리한 석탑 앞에서는 청년 대여섯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화성 용주사 청년회 회원들과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로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진행하는 폐사지 지킴이 활동 차 모인 것이었다.

전국의 폐사지는 5300여 건, 이중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는 사지만도 220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방치된 상태다. 폐사지 지킴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불자들과 이런 폐사지를 연계해 보존과 관리,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청년회 등의 현지조사와 활동 등으로 이뤄진다.

화성 용주사 청년불자들과 관계자들은 용주사 권역 내 9개 사지 중 대표적인 관항리사지를 방문해 관항리 삼층석탑을 둘러보고 마을 환경을 점검했다.

관항리는 예전부터 탑이 많아 ‘탑상골’로 불리던 마을이었다. 관항리 삼층석탑은 본 석탑의 옥개석과 불상대좌 추정 석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쌓은 새 탑부재 등이 뒤섞인 기묘한 모양을 띄고 있었다.

교육관으로 나선 한욱빈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팀장은 “이런 문화재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조경석

방치된 문화재 보존에 앞장
지역 산재한 폐사지 순례 진행
문화재 전문가 교육도 병행

등으로 망실된다”며 “그나마 마을회관 뒤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탑으로 구성한 것을 보면 방치된 것보다는 다행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런 문화재 보존에는 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 지역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킴이에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준훈 용주사 청년회장은 “청년회 차원뿐만 아니라 신도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이 이러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보존에 도움이 될 듯하다. 안내판 설치 등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폐사지 탐방에 앞서 용주사 천제루에서는 전국 폐사지 보존관리 현황과 망실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지 내 소재문화재의 종류와 함께 훼손 사례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연 중간 중간 마다 청년회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각 김봉한 거사는 “지킴이 활동으로 보존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되고 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계의 활동으로 문화재가 지정된 경우가 있는가”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연으로 나선 한 팀장은 “보성 개흥사지의 사지 지정과 경주 미탄사지 석탑의 보물 지정 추진 등의 사례가 있다. 홍천 양덕원리사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탑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화성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제시대 만해와 경호의 현실인식 살핀다

만해학회, 7월 31일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세미나 개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경호 허영호 스님의 현실인식과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31일 오후 1시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 중 한명인 경호 허영호 스님은 1919년 3월 18일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제점수 동서대 교수의 ‘일제시대 허영호의 국내외 동향과 현실인식’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허영호의 1930 · 40년대 불교계 활동과 동국대’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만해의 대중불교론과 허영호의 신불교운동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만해의 〈불교대전〉과 허영호의 〈불교성전〉’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경호 현주의 불교 이해와 원효 인식’ △김도남 서울교대 교수의 ‘〈조선어기원론〉에 나타난 언어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범어사 비로전 및 미륵전, 부산유형문화재로


범어사 비로전과 미륵전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 비로전과 미륵전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범어사에 있는 비로전과 미륵전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7월 15일 부산시보 등에 고시했다.

범어사 비로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부불전(副佛殿)이다. 처마는 전면만 부연(附椽)을 둔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2014년 시행된 비로전 해체수리 때 종도리 밑면에서 발견된 〈동래도호부북령금정산범어사비로전상량문(東萊都護府北嶺金井山梵魚寺毘盧殿上樑文)〉을 통해 1684년에 중창된 건물로 부산 지역에서 현존건물 중 가장 오래된 점이 드러났다.

범어사 비로전은 1684년 중창 때 작성된 상량문이 현재 남아 있고, 주요 구조 부재들도 대부분 중창 당시인 17세기 말(1684년)의 부재를 유지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 목조 건축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던 익공식 맞배집의 우수한 사례로 익공식 공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건축 문화재이다.

범어사 미륵전은 대웅전 아래 중정(中庭)의 왼편에 비로전과 함께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식(翼工式) 맞배지붕 부불전(副佛殿)이다.

범어사 미륵전은 2014년 미륵전 해체수리 때 어칸 종도리 기문장처(記文藏處)에 보관된 상량문을 통해 1887년(고종 24)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건물의 건립연대가 밝혀졌다.

한편, 부산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조여래좌상 2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함께 지정돼부산시 소재 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07점으로 늘어났다.

하성미 기자

불교학술지, 한국연구재단 평가서 대거 하향

7월 3일 공고 평가결과 5개 학술지 하락…재심 신청

한국연구재단이 7월 3일 공고한 ‘2015년 학술지평가 최종결과’에서 불교계 학술지 8개 중 5개가 평가 하락했다. 평가기준 중 동일기관 투고논문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보면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가 등재학술지로 불교미술사학회의 〈불교미술사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불교학리뷰〉가 등재후보학술지로 발표됐다.

그동안 등재학술지였던 보조사상연구원의 〈보조사상〉,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변경됐으며,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는 일반학술지로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번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연구재단은 ‘학회는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3분의 1 미만일 것’과 ‘대학부설연구소는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분의 1 미만으로 할 것’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불교학계는 학회 대부분이 종립대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학 전공자들도 대부분 종립대학에 소속을 두고 있어 동일기관 투고 비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이번 학술지 평가는 소수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불교학 연구 전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별 학회 및 연구원의 문제가 아닌 학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연구기관은 7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심사는 모두 같은 기준에서 진행됐다. 소수 학문분야의 경우 차년도 사업 시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평양 석탑 반환 요청, 日소유 재단 거부

22일 오쿠라재단 측 밝혀, 일본문화 동조여래입상 손상도 지적



일본 오쿠라 문화재단 측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가 조선불교도중앙연맹(조불련)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평양 율리사지 석탑’ 〈사진〉 반환을 최종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 · 일 수교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7월 22일 도쿄간이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에서 오쿠라문화재단 측은 회답서를 통해 “재단은 동산(석탑)의 소유권을 100년 전에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관리를 해 온 반면 신청인(조불련)은 1945년에 결성돼 1965년 해산됐다가 1972년 재결성된 단체로 100년 전에 재단의 소유가 된 동산에 대해 법률상 하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재단은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불련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위임받은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대표인 혜문 스님은 이날 “재판부가 2차 기일을 9월 17일로 정한 만큼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율리사지 석탑과 함께 경기 이천 오층석탑 등 약탈 문화재를 남북 공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불련 측의 김순식 변호사는 “북한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첫 번째 문화재 반환 사례”라면서 “법원이 2차 조정기일을 9월로 잡고 오쿠라재단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은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오쿠라 문화재단은 일제강점기 이천 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석탑을 총독부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소장, 호텔 정원에 전시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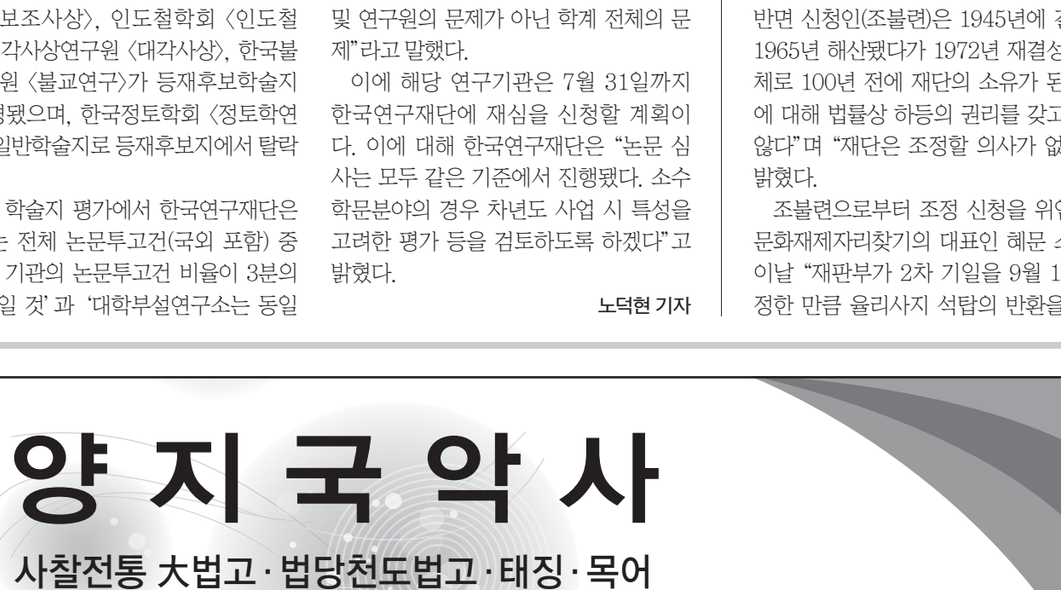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장충식 교수 10주 추모, ‘동악미술사학’ 17호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정우택)가 최근 ‘동악미술사학’ 제17호를 펴냈다. 나암 장충식 동국대 전 교수의 영면 10주기를 추모해 만든 이번 호에는 △15세기 왕실 발원 변상판화와 새로운 도상의 유입(김자현) △19세기 경기지역 신중도 연구(김현중) △한국 근대기 불화에 미친 외래 종교와 미술의 영향(최엽) △공민왕 전칭작들에 대한 고찰(이원복) △왕유 시의도를 통해본 조선 문인들의 이상(조인희) △민화 ‘소상팔경도’와 시가문학의 교섭 양상(장계수) △민화라는 용어와 개념의 비판적 검토(윤범모) △돈황 막고굴 제217굴 남벽 벽화와 회화성(장희정) △유림 19굴 ‘목련변문변상도’ 고찰(조성금)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서 한국 배우는 지구촌 청춘들

평창 월정사·서울 진관사 등에서 외국인 여름방학 캠프 열려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연꽃을 만들며 즐겁게 웃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들이 앞 다투어 지역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단국대는 7월 17~18일 1박 2일간 평창 월정사에서 국제여름학교(DKU ISS)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단국대 국제여름학교에는 16개국 120여 외국인 대학생과 아세안 우수이공계 학생 등 총 1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0여 명이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소화했다. 외국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들은 108배, 타종체험, 전나무숲길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템플 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미국인 앤서니 가르시아(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립대) 씨는 "한국에 오면 템플 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었다. 단국 국제여름학교를 통해 여러 친구들과 절에 머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은 7월 17일 서울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들은 진관사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행복 나누기' 강연을 듣고 참선과 다도예법을 배웠다. 또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절에 대한 역사와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세계 30여개국 220개 대학에서 학생 13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스탠퍼드, 캠브리지 등 해외 명문대학 현직 교수 53명으로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국어와 경영, 정치, 사회, 인문, 과학 등 8개 분야를 공부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금, 전북은 연꽃으로 환희심 물결"

전주 연꽃문화제 · 하소 백련축제 성료

연꽃의 계절을 맞아 전북 도내 곳곳에서 연꽃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 금산사 주지)은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2015 전주 연꽃문화제' 를 개최했다.

전주 연꽃문화제는 4만㎡에 이르는 덕진공원 연못을 가득 메운 홍련의 물결이 마치 연화장세계와 같이 장관을 이뤘다. 이틀간 연꽃문화제를 찾은 인원은 3만 여 명에 달했다.

문화제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불교 O X 퀴즈, 즉석노래자랑, 난타공연, 전북지역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공원에서는 투호, 굴렁쇠 돌리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과 연꽃만들기, 다도체험, 사경, 풍선아트, 염주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의 체험마당도 열렸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는 전문사진작가들의 연꽃 촬영대회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주 금선암과 자연음식문화원은 행사장에서 연꽃과 관련된 30여종의 연음식 전시회와 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열고 사찰음식의 우수성과 연 음식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에 앞서 행사 첫날에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스님들이 전주시민들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용왕재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도 7월 17~19일까지 3일간 '하소 백련축제' 를 개최했다. 백련축제는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아 하소로 불리는 청운사 백련지에서 열리며 올해로 14번째 맞이하는 지역 대표 연꽃축제다.

'메르스로부터 힐링을'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펼쳤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탱화장 도원스님이 직접 제작한 극락도 탱화 점안식과 전시회도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연꽃문화제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공연의 한 장면.

"아이들에게 장보고의 꿈을 심는다"

완도 신흥사 장보고아카데미, 7월 20~24일 中산동지역 답사

완도 어린이들의 장보고 역사 유적을 답사가 진행돼 화제다.

완도 신흥사 장보고아카데미(대표 법일, 완도 신흥사 주지)는 7월 20~24일까지 중국 산동지역 위해 · 봉래 · 연태 등에서 '장보고와 후예들이 만나는 장보고 유적답사' 를 진행했다.

신흥사 총무 법공 스님과 완도 아이들 30명, 지도교사 8명 등 총 39명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통일신라 말에 활동한 장보고 대사가 중국에 세운 적산법화원 등에서 장보고 업적을 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출발 전 19일 완도 신흥사에서 사찰체험과 불교예절을 배우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일 위해 선고정풍경구 및 해상공원 탐방21일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으로 통치를 했던 봉래지역 탐방, 22일 적산법화원 방문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장보고 퀴즈대회와 전래놀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함께 병행됐으며 적산법화원에서는 완도 신흥사와 적산법화원 측의 자매결연 행사도 마련됐다.

법공 스님은 이어 "특히 참가 아이들이 장보고대사의 고향이 완도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적산법화원 측도 "향후 한국 방문을 통해 3개국의 우호를 더욱 증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참가한 심명보(완도초등 6학년) 학생은 "너무 재미있고 신났다.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신흥사는 지난 2009년 장보고 범종 제작에 맞춰 한중일 삼국의 장보고 유적 사찰들이 참여한 기념 타종식을 개최했다. 이 방한 행사의 화답으로 이번 답사다 진행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보고 중국역사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초복 맞이 어르신 사찰음식 공양 '눈길'

광주 무각사 7월 17일 700명 초청 행사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7월 17일 서구 관내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대접했다.

초복을 맞아 진행된 이번 사찰음식 공양은 사찰만이 갖는 청결하고 담백한 음식이 선보여 참여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준비한 무각사 측은 "무더운 여름날을 사찰음식을 통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길 기원한다. 향후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선운사가 위탁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지설(관장 대원)은 지역내 난치병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대원 스님은 7월 16일 고창군 드림스타스 센터 추천으로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난치병 어린이 환우 2명에게 각 2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5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고창 선운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15회 3000배 철야정진' 을 통해 모금된 금액이다.

3000배 철야정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15회째 진행됐다.

대원스님은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인 사람들의 기원이 힘이 되어 아동이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이 환아의 아픔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실상사, 무더위 이기는 특별법회 봉행

전주 실상사(회주 진성)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법회를 봉행했다. 실상사는 삼복더위가 한창인 7월 18일 '무더위를 이기는 실상사 특별법회' 를 개최했다.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을 비롯한 실상사 신도, 지역주민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삼귀의례, 독경, 설법에 이어 실상사 밴드의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실상사 자원봉사 단체인 나누우리회원으로 구성된 실상사 밴드는 난타공연과 색소폰연주로 갈채를 받았다. 이어 신도 노래자랑에서는 유명숙 불자가 '숨어우는 바람소리' 로 1등을 차지했다. 6개월전 결성된 실상사 밴드는 양로원등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호응이 좋아 특별법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 진오 스님 초청 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는 7월16일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초청, '33人 선지식 초청법회' 를 개최했다.

진오 스님은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울트라마라톤 등으로 달리는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진오 스님은 "종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이라며 "불교는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 제33인 선지식 초청법회는 2015년 2월부터 시작해 매달 음력 초삼일 진행된다.

그동안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前 중앙승가대학 대학원장 종석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 등이 초청법사로 나선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부처님 말씀 변형없는 근본 경전에 충실”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7월 19일 창립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법당(선원장 해피 · 사진)은 7월 19일 부산 해피법당에서 ‘근본경전연구회’ 창립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테라와다 前 이사장이자 삼장법사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 뿐냐디빠 해피 스님 및 근본경전연구회 김법영 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했다.

법회는 테라와다 불교 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참가 스님들의 소개 및 축하 법문이 이어졌다. 이어 재가불자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앞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듣고 함께 의지를 모으고 발원했다.

법문을 통해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선한 결과가 있듯이 여기 참가한 여러분이 함께 선한 의지를 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근본경전연구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발원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이어 해피 스님은 “이 시대에 부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먼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설하시고 변형 없이 전달 된 근본경전을 아는 것”이라며 “근본경전을 알고 바르게 수행함으로 최고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현대 시대에 부처님법을 전하며 불교의 중흥을 위해 일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본경전연구회 김법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해 창립한 것”이라며 “근본경전인 니까야를 푸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경전 그대로 다시 풀어 정확한 가르침이 전달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 세미나 출판 등 교학에 매진

경전대로 수행하기 캠페인도 계획

8월 10일부터 새출발 법회도

앞으로 근본경전연구회는 연구 및 세미나 그리고 출판을 통해 교학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경전대로 수행하기 운동도 펼친다. 해피 스님은 “삶을 향상시키며 깨달음을 실현하는 수행은 오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정도뿐이다. 마치 칼날 위를 걷듯 엄정한 깨달음의 길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보편화를 꾀하기 위해 해피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법당은 7월 19일 부산 해피법당에서 ‘근본경전연구회’ 창립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8월부터 일반불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회를 개설한다. 시작을 알리는 새출발 법회는 8월 10일 오후 6시 부산 해피법당에서 열린다. 일반불자들의 신행 지침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테라와다 법회 의식 및 수행으로 시작해 강의 녹음 청취, 해피 스님과의 대화로 마무리 된다.

8월 11일 오후 7시 해피설법회는 대념처경 강의와 수행, 8월 12일 오후2시 초전법륜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및 강의도 진행된다. 서울에 있는 해피법당에서도 강의가 이어진다. △8월 13일 오후 7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8월 14일 오후 2시 기본기 ‘부처님의 역사’와 상윳따 니까야 육처 상윳따 자체 해설 △8월 15일 오전 10시 테라와다 탁발법회와 강의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서울 해피법당의 새출발법회가 진행된다. 앞으로 법회 및 강의는 매주 월 · 화 · 수는 부산 해피법당에서 목 · 금 · 토는 서울 홍제역 해피법당에서 봉행된다. (051)866-4284

하성미 기자

“고려시대 정통방식 그대로 재연하고자”

부산불교聯, 2015년 팔관회 주요일정 발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가 2015년 팔관회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부산 불교연합회는 지난 7월 14일 코모도 호텔에서 제 86차 정기 이사회를 통해 팔관회 일정 및 중요행사에 대해 의논하고 결의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8월 15일 ‘호국기원 풍등제’로 2015년 팔관회 시작을 알린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에 해군작전사령부 내 해운사에서 호국기원대회를 개최하고 순국열사 위령의식을 연다. 이어 독도함에서 호국기원풍등제 및 백희가무를 열어 불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한다. 백희가무는 고려 시대에 팔관회나 연등회에서 공연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날 행사는 함상을 주제로 한 공연과 음악회를 독도함에서 개최한다.

8월 15일 호국기원풍등제로 시작

특별세미나 · 수계 법회 등도 진행

팔관재계수계법회의 전승과 실천을 위한 세미나도 열린다. 9월 4일 오후 3시 안국선원교육관에서는 특별세미나 및 토론회를 위해 부산 및 경남 율사 스님을 초청한다. 범어사, 쌍계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각 율주 및 율원장 그리고 율원 스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5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10월 17일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팔관재계수계법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고증에 입각하여 여법히 진행될 것”이며 “고려시대 전통방식을 그대로 재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수계 법회 후 팔관회 호국 정신 계승을 주제로 한 백희가무 공연도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해에는 각 종단과 사찰별로 실정에 맞는 소규모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별도로 봉행해 팔관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어르신 여름 건강 우리가 책임집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사랑 삼계탕 DAY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삼계탕 DAY’를 진행했다.

용호복지관은 지난 7월 13일 초복에 이어 7월 23일 지역의 결식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500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한국남부발전(대표이사 김태우)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남구청장, 서용교 국회의원, 오은택 시의원,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후원물품으로 라면 및 쌀 등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앞으로 용호종합복지관은 다가오는 말복 8월 12일에도 사랑의 삼계탕 DAY를 개최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주)한국남부발전은 복날을 맞아 7월 13일 용호복지관 어르신들5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시로 만나는 불국토 범어사의 역사와 문화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개막식 7월 20일

천년 고찰 범어사의 찬란한 성보 문화재가 드디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부산박물관(관장 박방용)은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개막식을 7월 20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동화사 박물관장 지경 스님,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님, 이해동 부산시의회의장,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가했다.

9월 13일까지 열리는 천년고찰 범어사 특별기획전은 범어사와 부산박물관의 첫 협약 전시회로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범어사의 성보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1부 ‘불국토 범어사를 거닐다’ 2부 ‘공덕과 장엄을 만나다’ 3부 ‘역사 속 범어사에서 길을 찾다’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1부는 범어사 창건과 중창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선 불상 공예 불화 등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3부는 ‘사명대사진영’ ‘국청사 금정산성 승장인’ ‘대한승려 독립선언서’ 등이 전시돼 조선후기와 일제 강점기 호국사찰로서 범어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명대사 진영 · 삼국유사 등

찬란한 성보 문화재 일반에 공개

특히, 성보박물관 소장 〈삼국유사〉 권4~5(보물 제419-3호), 〈불조삼경〉(보물 제1224-2호), 〈주범망경〉(보물 제894-2호), 〈금장요집경〉 권1~2(보물 제1525호)를 비롯해 부산 국청사 동복(보물 제1733호) 등 보물 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어사 사천왕도(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1호) 4폭도 전시된다. 이는 단독 사천왕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림이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서기 678년 신라 문무왕 때 개산한 범어사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풍부한 불교사상과 문화유산을 간직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범어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와 부산박물관이 주최하는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개막식을 7월 20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테이프 커팅식

홍법사, 어린이 한문학당 개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홍법사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홍법사는 8월 15일~22일 ‘한문학당’을 개최하고 한문, 문화체험, 발우공양 및 다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이며 참가 신청서와 함께 참가 학생의 ‘10년 후 나의 모습’이란 주제의 글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8일이며 반드시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가비는 35만원. (051)508-0345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 모집합니다



종정 석능인

●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 총무원장 : 대웅당 혜송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근본교리와 조선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선풍을 이어받은 우각도일선사 법맥으로 종지종풍을 세우고 종정 석능인대종사께서 본 종을 16년전 창종을 하여 많은 종사들을 품계를 품수하였고 품수받은 종사큰스님들이 각 종단을 창건하는 등 불교중흥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불타 탄생지 네팔 룸비니를 무려 서른 다섯번이나 다녀오면서 한국불교위상을 널리 알리고 2년전에는 룸비니동산 마야데비사원에서 세계최초로 세계불교문화평화축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지금도 네팔, 대만, 태국, 중국 등으로 세계적인법회행사에 초빙되고 있으며 수행자들을 적극 추천하여 불교국가에서 수행 및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본 종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종에서는 종도모집하오니 총본산에 연락을 주시면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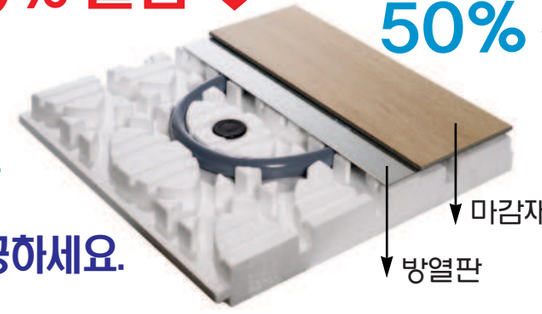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번지 각황사
행정실 | 053) 325-0400. 팩스 / 053) 325-4848. 문의 / 010-7283-0089
총무원 |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0-1 불광사
선 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004-1 홍제선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안산 : 010-2487-3393
화성 : 010-3168-9250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대구 : 010-3821-4849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서산 : 010-7301-5854

東國 제일의 선원… 더위도 느릿느릿 쉬어간다

여름 계곡이 수려한 산사

① 양산 내원사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비구니 명찰이다. 사진은 내원사 사찰 전경 모습.



소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경치가 빼어난 내원사 계곡



1959년에 낙성된 선원인 '선해일륜(禪海一輪)'.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비구니 수도하는 명찰이다. 절 아래 4km 정도 뻗은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 도지정기념물로 돼 있다. 계곡마다 기암절벽과 3층 바위, 작은 폭포, 소병풍바위가 둘러싸여 있다. 한여름에도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가워 피서객들의 발길이 넘쳐난다.

연둣빛으로 물든 나뭇잎들 아래 바위 사이로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여름철 내원사를 찾은 사람들에게 안겨진 선물이다.

내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1898년 석담유성(石潭有性)선사가 설우(雪牛), 퇴운(退雲), 완해(玩海) 등과 더불어 수선사(修禪社)를 창건해 절이름을 '내원사'로 개칭하고 동국제일선원이라 명명한 후 선찰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경허선사의 법제자인 혜월선사께서 조실로 주석하시면서 운봉, 향곡선사 등 한국 선종사의 선맥을 잇는 명안종사를 배출한 도량이기도 하다.

6 · 25전쟁으로 사원이 전소되자, 비구니 수옥 스님의 원력으로 10년만에 독립된 비구니 선원으로써 새롭게 중창되었다. 1958년의 일이다. 그 후 만공스님의 법제자인 법희, 선경스님 등 납자들의 정진처가 되었다. 1979년 도용스님을 입승으로 모시고 18명의 스님들이 모여 삼년결사를 시작한 이후 1999년 여섯 번째 회향을 하였고, 지금도 비구니 선객의 정진도량으로 선불장이 되고 있다.

남아있는 문헌에 따르면 조선 인조대왕 24년 병술년에 의천대사가 중건하고, 헌종대왕 12년 병오년에 용운화상이 3차 중건하고, 고종황제 13년 병자년에 영해화상이 4차 중건하였다고 되어있다. 1957년 2월 18일에 전후의 어려움 가운데에 중창불사를 시작하였고, 1959년 3월 29일에 선방인 선해일륜(禪海一輪:바다와 같이 크고 가늠할 수 없는 선의 세계가 끊임 없이 굴러가는 곳)을 낙성하고 동국제일선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기나긴 세월의 풍화작용속에 대둔사, 상중의 내원암과 89개의 암자는 조선중엽쯤 이미 거의 다 폐허가 되고 없었으니, 마침내 적막한 천년사지에 새로이 향화를 받드는 감회 어린 순간이었다. 수덕사 견성암에 이어 남방에서도 비구니들이 참선수행토록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후, 성우, 해운, 종현, 자광, 향엄, 혜등스님 등이 차례로 주지를 역임하면서 옛 하내원인 지금의 내원사는 선나원, 정려헌, 죽림원, 원화당, 간월당, 심우당, 산령각, 일주문 등 13동에 달하는 불사를 계속하여 비구니 선찰로서 사격을 갖추어 나갔다.

또한, 산내 암자로는 금강대, 금봉암, 노전암, 대성암, 미타암, 비로암, 성불암, 안적암, 원효암, 익성암, 조계암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이곳엔 그 옛날 천명의 성인이 배출되었던 이 산중은 오늘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각고의 정진을 아끼지 않는 무수한 눈 푸른 납자들의 깃드는 바가 되었으며, 신심이 깊은 불자들의 참배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창건설화를 살펴보면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전해지는데 당시 동래 척판암에 주석하시던 원효성사께서 당나라 산서성 태화사에 수도하던 천명대중이 뒷산이 무너져 위급한 사고를 당할것을 미리 아시고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拓板救衆)"이라고 판자에 써서 태화사 상공에 날아다니게 했다. 대중이 공중에 뜬 판을 보고 놀라 일주문 밖으로 나온 순간에 산사태가 나서 절은 무너져 버리고 대중은 모두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신라 선덕여왕 15년 원효대사 창건
한국 선종사 선맥잇는 명안종사 배출
1958년 수옥 스님이 새롭게 중창 불사

그 후, 구출된 천명의 대중은 도를 구하여 성사를 찾아왔으므로 성사는 그들을 데리고 머물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중방리(지금의 용연리)를 지날적에 원적산(圓寂山) 산신령이 마중 나와 "이 산에 천명이 득도할 곳이니 청컨데 이 곳으로 들어와 머무소서" 하니 성사는 산신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지금의 산령각 입구 까지 온 즉 원적산 산신령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산령각을 짓게되어서 유독 내원사 산령각은 큰절에서 5리 밖에 떨어져 있게 되었다.

성사께서 왼쪽 계곡을 따라 들어와서 대둔사(大屯寺)를 창건하고 상, 중, 하 내원암과 아울러 89개의 암자를 창건하시어 천명의 대중을 머물러 수도케 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산 상봉에 모이게 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였으므로 지금도 그곳을 화엄벌이라 하며,988명이 이 산에서 득도하였고 나머지 12인중 8명은 팔공산(八公山)에서, 4명은 사불산(四佛山)으로 가서 도를 깨달았다하여 이후로 원적산을 천성산(千聖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창건 후 고려시대의 사적은 전하는 바가 없다.

내원사는 고즈넉한 사찰도 아름답지만 천성산을 안고 흐르는 내원사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그러나 내원사 계곡이 생태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정작 아름다운 풍광 때문이 아니다. 내원사 산감으로 천성산 지킴이를 자처한 지율 스님의 기나긴 단식투쟁 때문이었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2003년 3월부터 스님은 고행을 시작했다.

내원사 계곡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도롱뇽은 지율 스님과 함께 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의 상징적 원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의 목숨을 내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허리춤에는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내원사 계곡물은 그러한 아픔에도 소리 없이 마냥 흐르고 있다. 산사에서의 시간은 느릿느릿하게 흘러갔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초록이 지천이라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잔잔한 계곡물에 발을 담가보면 속세의 찌든 번뇌는 이내 훌훌 날아간다. 도시의 번잡함과 갑갑한 일상의 짐을 털어내기에 내원사는 그저 감사한 공간이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성보문화재



▲석조보살좌상(문화재 자료 제342호 · 사진)

불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각각 가지런히 두고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보살상이다. 머리에는 두건(頭巾)을 쓰고 있으며, 어깨 뒤와 등 부분을 1/3정도 덮고 있다. 결가부좌를 한 보살상으로 소장처에서는 법기보살이라 부르고 있으며 법기보살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금강산 일대에서 법기보살들이 다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은 상호 · 조각수법 및 착의법 등 전체적인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이다.

▲아미타삼존탱(유형 문화재 4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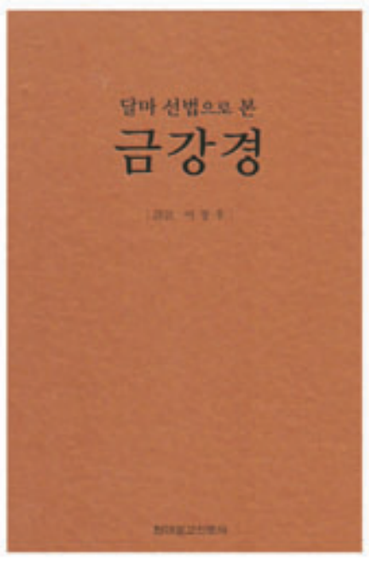
세로 215.5cm, 가로 288.0cm의 비교적 큰 화폭에 아미타 · 관음 및 대세지보살상 3존 모두 입상 형을 취한 도상이다. 화기에 의하면 조선시대 함풍(咸豊)7년(1857)에 조성됐다고 한다. 아미타삼존상은 보편적인 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삼존 모두 입상형식은 조선후기 괘불탱에 보이는 도량 강림현상의 입상불 외에 주로 고려후기~조선 전기에 조성된 아미타 내영 형식의 불화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선후기 전각 안에 봉안된 정면향 좌상형식의 후불 탱에 비해 사례가 적은 입상 형식의 삼존도이다. 조선후기 아미타 불화 연구에 가치가 높다.

▲청동금고(보물 제 1734호)

불구(佛具)는 사찰의 행사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말한다. 금고는 이러한 불구 가운데 범종 · 운판 · 목어 등과 함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징모양을 하고 있고 반자라고도 부른다.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쇠북이는 뜻에서 금고라 부르고,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자라고 하였는데, 후대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내원사의 것은 한쪽 면만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가운데 부분에 2중선을 돌려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안쪽 원에는 6개의 잎을 가진 꽃을 새겼고, 바깥쪽 원에는 4곳에 구름과 꽃무늬를 새겼다. 옆면 위쪽에는 동그란 구멍을 가진 돌출된 귀를 달았고, 아래에는 고려 선종 8년(1091)에 금인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금고는 만들어진 시기가 분명하고 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고려 전기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내원사 계곡(경상남도 기념물 제 81호)

용연천 내원사 계곡은 영남알프스의 남쪽 주봉인 천성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으로 흐르며 만들어 놓은 계곡이다. 내원사 위쪽에서 내원사 입구까지의 약 6㎞가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어서 경남의 소금강이란 말을 듣는 곳이다. 계곡 곳곳에는 작은 폭포와 소 그리고 삼층바위가 첩첩히 서 있으며 절벽에 "소금강"이란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병풍모양으로 바위가 길게 뻗어져 있어 병풍바위라 불리는 것도 있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제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반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막힘없는 법거량… 佛·儒 꿰뚫은 선비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① 추사 김정희

조선시대는 흔히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시대로 잘 알려져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유교'로 삼은 조선은 사대문 안에 승려가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승려는 당시 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식인이자 교양인이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넘어 서로의 학문과 사상을 교류했던 유학자와 스님들은 상당수다. 본지는 억불의 시대 조선에서 불교를 만나 혜안을 넓히고 유·불의 지평을 키웠던 유학자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추사 김정희(1786~1856)처럼 그 명성이 후대까지 회자되는 인물도 드물다. 이는 그의 사상과 예술의 지향점이 추사체로 완성되었고, 고증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적 성향 또한 교유했던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게다. 이뿐만 아니라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통해 간난(艱難)한 제주 유배 시절을 견디며 그의 사유세계를 폭넓게 구축했던 일이나 차를 통해 심신을 위로했던 그의 일상은 통상적인 유학자와는 다른 것이다.

특히 그는 해붕 전령(?~1826)과 백파 긍선(1767~1852)뿐 아니라 초의선사(1786~1866)이외에도 여러 승려들과 폭넓게 교유하면서 서로의 혜안을 밝혀나갔다는 점에서도 그를 조선 후기 유불교유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그가 불교를 탐구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이에 앞서 그의 생애의 따라가 보면 증조(曾祖) 김한신(1720~1758)은 영조의 장녀 화순옹주에게 장가를 들어 월성위에 봉해졌고,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가 조부와 10촌 형제간이며 부친 김노경(1766~1837)은 이조판서 등,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다. 후일 백부 김노영(1747~1797)의 양자로 피양(被養)되어 월성위의 봉사손(奉祀孫)된다. 따라서 그의 가문은 지체 높은 종척(宗戚)이었다.

한편 조선 사회는 양란(兩難:임란과 호란)이후 성리학은 명분만을 중시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을 드러냈다. 예론 또한 형식을 강조한 허례(虛禮)가 조장되었고 족벌세가들의 전횡이 난무했던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 회의를 품었던 신예들은 청에서 일어난 고증학에 관심을 두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를 주도한 것은 바로 북학파들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조는 국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이들을 후원하여 점차 성장해 나아갔는데 이 무렵에 추사가 태어났다.

어린 시절, 천재적인 그의 재기(才氣)를 한 눈에 알아본 인물은 박제가다. 그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추사는 자연스럽게 북학에 눈을 떴을 것이니 그에게 미친 박제가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후일 그의 학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옹방강(1733~1818)과 완원(1764~1849)을 만남도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추사는 박제가로부터 이들의 학문적 위상과 깊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 연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추사의 천재적인 자질과 결기는 익히 소문이 나 있었던 듯한데 이는 연경을 출입했던 박제가나 추사의 벗들에 의해 퍼진 듯하다.

특히 추사가 고증학의 골수인 경학뿐 아니라 금석학에 대한 관심을 지녔던 배경엔 청의 문예를 이끈 옹방강과 원원이 있다. 수많은 장서와 해박한 학식을 겸비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학문적 충격은 컸을 것이다. 특히 추사는 차와 불교에 깊이 침잠된 이들의 품 넓은 학문의 포용성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옹방강의 사경(寫經)에 대한 열의 또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옹방강이 존경했던 소동파의 학문세계, 다시 말해 소동파의 불교적인 삶과 수행에 대한 깊은 식견은 추사의 학문적 시야를 넓힌 계기가 되었다.

후일 추사의 학문은 경학만큼이나 불교학의 비중도 크게 두었다. 그는 승려들과 폭 넓게 교유한 유학자이며 불경을 연구한 선비였다.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안반수경〉 등 경전 뿐 아니라 〈법원주림〉, 어록, 전기 등을 섭렵하여 불교에 대한 안목이 높았다. 특히 초의 의순(1786~1866)과는 차뿐 아니라 불경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함께 담론한 지음(知音)이었다.

조선 중·후기의 불교계에서는 선 일변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새바람이 일어났으니 이는 화엄학에 대한 관심이었다. 편양 언기(1581~1644)의 법손 환성 지안(1664~1729)은 종풍을 드날렸다. 전라도 대흥사를 중심으로 화엄강회가 일어났는데 화엄종장으로 꼽히는 인물은 설파상언(1707~1791)이다. 이후 연담 유일(1720~1799), 묵암 최눌(1717~1790) 같은 학승들이 출현하였다. 특히 연담은 사기(私記)를 저술하여 자신의 선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백파의 〈선문수경〉에 드러난 오류를 지적한 초의의 〈선문사변만어〉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활발한 선리 논쟁을 이끈 동인(動因)이었다.

이 논쟁에는 추사와 신헌 같은 유학자도 참여하여 초의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특히 추사의 〈변망증십오조〉는 백파의 오처(誤處)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는 유학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정쟁의 상처와 간난을 절감한 유학자들 중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유불회통(儒佛會通)을 말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추사의 입장은 달랐다. 바로 유학과 불교가 지닌 특장을 깊이 인식한 학자였던 것이다.

학계에서 그의 친불 성향은 이미 예산의 영내 화암사 건립을 위시하여 집안의 친불 환경과 유배로 인한 굴곡된 삶이 작용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지만 소동파의 외유내불(外儒內佛)의 학문적 경향이나 옹방강, 완원의 친불교적 입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동파의 학문적 경향과 문인의 이상을 실천하려했던 삶의 방식은 조선 유학자들이 흠모했던 것이다. 특히 추사 또한 동파가 승려들과의 폭 넓은 교유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심화했던 사실에 주목했던 듯하다. 이는 그가 1815년 겨울 학림암을 방문하여 해붕과 나눈 법거량(法去量)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초의의 〈제해붕대사영정첩(題海鵬大師影幀帖)〉 발문(跋文)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추사 김정희의 진영. 추사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불교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대표적 유학자다.



수락산 학림암 전경. 이곳에서 추사는 선암사 승려 해붕을 만나 거량을 한다. 도성출입이 금지됐던 조선에서 학림암은 상경한 승려들의 거점 사찰로 활용됐다.

불교·금석학 등에 밝았던 유학자
초의 스님과 차·불경 담론한 지음
옹방강·소동파 '친불'에 영향

해붕 스님과의 법거량서도 드러나
〈금강경〉 꼬 사상의 일견 보여줘
학림암, 상경 승려 거점사찰 역할

"지난번 을해년(1815)에 노화상을 모시고 수락산 학림암에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하루는 추사가 눈을 헤집고 찾아와 해붕노사와 공각의 능소생에 대해 논했다. 하루를 묵고 돌아갈 적에 노사가 행축(行軸)에 게(偈)를 써 주었다(昔在乙亥 陪老和尙 結臘於水落山鶴林庵 一日阮堂披雪委訪 與老師大論空覺之能所生 經宿臨歸 書偈於老師行軸)"

1815년은 초의에게 의미가 깊은 해이다. 이는 첫 상경 후 추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당시 초의의 첫 상경의 연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산의 장남인 유산 정학연(1783~1859)과의 언약이 있었던 듯하다.

이 당시 승려들은 도성을 출입할 수 없었기에 초의는 한강진에서 배를 타고 수종사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의가 당도하여 두릉의 다산 댁을 찾았지만 유산은 출타 중이었다. 난감해진 초의는 우선 수종사에 머문다. 당시 수종사의 수행 환경은 열악했다. 물자가 풍족하질 못했던 시절,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건 어려웠던 듯하다.

출타에서 돌아 온 유산은 이런 사정을 알고 다른 거처를 주선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학림암이다. 바로 학림암에서는 선암사 승려 해붕이 수행 중이었다. 초의는 이곳에서 해붕을 찾아온 추사를 극적으로 만난 셈이다. 더구나 추사는 연경에서 돌아온 후인데 수행이 깊었던 해붕과 공, 각의 소생을 논했던 것이다.

추사는 이미 〈금강경〉은 공 도리와 각처(覺處)에 대해 일견(一見)이 있었던 듯하다. 하루 밤을 묵은 다음 떠나는 추사를 위해 해붕은 게를 써 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후일 추사가 〈해붕선사영찬(海鵬先師影讚)〉을 쓴 인연은 공각의 법거량을 통해 서로의 그릇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이 영찬은 추사의 묵적(墨跡) 중에서도 귀한 글이다.

"해붕이 말하는 공은 오온개공의 공이 아니라 곧 공즉시색의 공이다. 혹자는 그것을 공종 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종에 있지 않다. 또한 혹자는 또 진공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런듯하다. 나는 또 진이 그 공을 얽맨다면 또한 해붕의 공이 아니다. 해붕의 공은 곧 해붕의 공이다. 공이 대각을 이룬다하니 이는 해붕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해붕이 홀로 나아가 홀로 통했으니 또한 잘못 이해한 것이다(海鵬之空兮 非五蘊皆空之空 卽空卽是色之空 人或謂之空宗 非也 不在於宗 又或謂之眞空似然矣 吾又眞之累其空 又非鵬之空也 鵬之空 卽 鵬之空也 空生大覺 是鵬之錯解 鵬之獨造獨透 又在錯解中)"

이 글은 추사의 유작이나 진배없는 작품이다. 영찬(影讚)을 쓴 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이는 추사와 승려들과의 교유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영찬은 해붕과 추사가 눈이 내린 학림암의 깊은 암자에서 공각(空覺)의 능소생(能所生)을 토론한 인연으로 세상에 남겨진 것이다. 대부분 공(空)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의 첫 만남에서 나눈 법거량은 그때까지도 추사에게는 미흡했던 것이었던가 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해붕이 관통한 공(空)은 진공(眞空)이라 하고 공종(空宗: 공의 교리를 종지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추사의 견해로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바로 해붕의 잘못은 공이 대각을 이룬다고 료해(了解)한 점이었다.

추사가 내린 결론은 해붕이 홀로 공의 도리에 나아가 홀로 통했기 때문에 이런 착해(錯解)가 일어난 것이라 본 듯하다. 그럼 공사상에 정통했던 해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범해의 〈동사열전〉에 의하면 스님의 이름은 전령이고, 자는 천유이며 호는 해붕으로 순천사람이다.(師名展翎 字天遊 號海鵬 順天人) 선암사에서 출가하여 묵암 최납(庵崔訥)선사의 법을 받았다.(出家於仙岩寺 受 庵崔訥先師之法印) 호남칠고붕(湖南七高朋) 중에 한 사람이다. 해붕은 문장을 잘했다고 전해진다고 하였다. 당시 호남의 칠고붕 중에 이삼만은 글씨에 능했던 인물로 초의와도 교유했으며 김각은 도가의 양생에 밝아 초의에게 호흡법을 가르쳐 준 선비다. 그와 초의가 나눈 시문이 수십편이 전해진다. 따라서 해붕은 호남에서 손꼽히는 학승으로 유학자들과의 교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측하건대 이는 다산이 승려들과 학연을 맺었으며 교학했던 것도 호남지역의 유불교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밖에도 해붕이 선암사를 떠나 학림암에 머물며 수행했던 사실이나 백파가 이곳에서 수행했던 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에 학림암은 지방에서 상경한 승려들의 거점 사찰이었던 듯하다. 다시 말해 사대문을 출입할 수 없었던 승려들의 출입 동선을 생각해 볼 때 학림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겸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이 비약 일궈내

〈飛躍〉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⑩ 어떤 걸 배울래? 골라 잡아!

이름을 얻고 제자가 된 손오공
배울 것도 많아라.
경을 배우고 도에 대해 토론하며
글을 배우고 향을 사르고
청소하고 밭 가꾸며
물긷고 꽃 기르고 나무 심고
그렇게 보낸 세월 어언 6,7년

어느 날 수보리 조사 대중을 크게 모으고
높은 선(禪)과 도(道)의 경지를 설파하다.
그 동안 남모르게 닦아온 손오공
환하게 마음이 열리니
그 기쁨 말할 수 없다.
손과 발이 저절로 들썩이네
원숭이 식으로 촐랑 촐랑~

눈 밝은 조사님
이 모습 지나치실 리가 없지.
"야! 이 사람같이 생긴 녀석아!
미쳤느냐, 가려움증이냐?
몸은 왜 그리 들썩이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사님 오묘한 설법 듣다 보니
희열이 넘쳐 저절로 손발이 들썩이네요."

"엥? 이 녀석 봐라!
무언가 얻은 게 있구나!
내 문하에 온지 몇 년이냐?"
"햇수는 잘 모르지만
뒷산에 복숭아 일곱 번 익어서 따먹었구만요."
"어허 그래? 칠 년이 흘렀구나.
그 동안 착실히 바탕을 닦은 듯하니
본격적으로 도를 배운다면 뭘 배우고 싶으냐?"
"헤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뭘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죠.
도대체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그 녀석, 말뽄새 하고는…
그래, 일러 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도'(道)라고 부르는 문 안에는
360개의 갈래 길이 있고
그 길마다 다 수행의 성과가 있느니라"
"다 드시긴 힘들 테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차례로 설명해 주시죠"

"험! 그러자꾸나.
우선 첫 번째로 '술'(術)이라 부르는 문이 있다.
신선을 청해서 모시거나,
괘를 뽑아 점을 치는 등등 이러 저러한 술법으로
흉한 것을 피하여 길한 쪽으로 나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이거 가르쳐주기 아까운 건데… 배울래?"

"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 수 있나요?"
"택도 없지!"
"그럼 그런 건 안배울래요!"
"호~ 이놈 봐라. 욕심은….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자, 우리 손오공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로 접어듭니다. 우선 기초부터 착실히. 기초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바닥 잘 다지지 않고 고층 건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요.

우리 손오공은 그런 일없이 착실히 기초공사 합니다. 무려 장장 7년 동안이나. 도대체 몇층짜리 건물 올리려고 그렇게 오래 기초공사를 하느냐구요? 헤헤~. 그렇게 기초공사 하는 동안의 갑갑함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잔재주 피우는 길로 나가면, 그런 사람은 크게 되기는 틀린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 발전이라는 것이 덧셈 식으로 하루 하면 하루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한 동안은 진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갑갑한 세월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확 달라지는 것 같은 비약이 일어나죠. 차곡차곡 양적으로 쌓아 오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차츰차츰 질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변화는 하루 하면 하루 한 만큼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서, 어느 날 완전히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질적 변화를 통해 '비약'(飛躍)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약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불행이 따르죠. 비약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맛있는 술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오래 묵은 포도주 같은 거 있자나요. 술뿐이 아니죠. 저는 요새 어떤 분이 보내준 50년 묵은 천량차라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주로 호남성(湖南省)에서 나는 차(茶)인데 보이차와는 또 다른 풍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유통되는 천냥차나 보이차 몇십년 묵었다는 것 거의 가짜라고 하더군요. 천냥차는 그 원산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오래 묵은 것이 그렇게 나간 일이 없다고 한다니까, 거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차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구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유통되는 그 많은 가짜들은 결국 어떤 속성의 방법을 써서 만든 사이비라는 이야기죠. 사이비라도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무슨 천만의 말씀! 절대 사이비가 제 맛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자칫하면 몸에도 해롭구요. 거기다 사이비가 진짜 노릇을 하면서 한 근에 몇 백만 원씩하고 있으니, 그 비싼 돈 들여서 몸 해치는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쓸데없는 사치에 몸 해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좋은 차 구해 마시는 것이 낫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된 고급의 차나 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분야 최고의 기준으로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올바른 노력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차 이야기로 헤맸군요. 그렇지만 차 이야기는 헤매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죠. 올바른 차문화(茶文化)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육체건강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차 이야기로 헤매니즘의 정수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재빨리 본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손오공, 무려 7년이나 묵묵히 배웠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룰 시점도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올바른 스승의 역할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잔뜩 고인 물이 나갈 곳을 찾지 못할 때 한 곳을 툭 틔워주듯, 가스가 꽉 찬 방에 불씨를 던지듯~ 엥? 무슨 폭발사고 낼 일이 있냐구요? 아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 한발 먼저 깨우친 사람의 조그만 도움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이룩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먼저 깨달은 이의 이런 촉매가 없으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다행이 손오공은 올바른 스승 수보리 조사를 모시고 있네요. 그리고 그 스승께서 손오공의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꽉 찬 마음에 아무튼 꽉 찬 마음에 라이타불을 착~ 켜 대었네요. 꽝!!! 손오공 마음에 무엇인가가 폭발! 그 폭발의 여파로 손과 발이 촐랑촐랑! 가볍게 표현하느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 희열은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죠. 유식한 한문으로 표현하면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부지수지무지 족지도지)"라. 해석하여 가로되 "자기도 모르게 손이 춤을 추고 발을 구르게 되는도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다시 제자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스승의 역할! 요 사람 닮은 녀석아! 뭐 쪼금 깨달았다고 촐랑대지 말아라! 훠얼씬 더 좋은 거 많단다. 한번 골라잡아 배워볼래? 거창하게 구미를 돋구어 놓고는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 째 보따리~. 술(術)의 문(門)이라. 이건 무슨 문일까요? 기대되시죠?

음~. 나칠계님 목울대가 움직이시네요. 거 이름도 좋은 문이라구요?

동동주의 문, 맥주의 문, 꼬냑의 문, 소주의 문..... 얼른 설명해 달라구요?

애고! 한자좀 함께 읽어보세요. 그런 술이 아니라, 술법(術法), 기술(技術)이라 할 때의 술입니다. 아무리 한글세대라 해도 그정도는 아셔야죠. 다음 시간까지는 한자 공부도 조금 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그림 · 최주현

> 7년간 기초 다진 손오공
> 수보리조사 스승으로 연마
> 속성의 문제는 언젠가 발견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연기,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과 성찰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2. 분석과 직관 ㊤

불교는 분별의 가르침

능히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상층계급 출신의 지성이 우수한 청년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근본불교는 저절로 일종의 계급성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자기비판의 중대한 과제가 있었다.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이 우수한 청년들을 벗어나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대체로 붓다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이었기에 그러하였을까.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연원(淵源)을 더듬어 보자.

이점에 관해서 먼저 상기(想起)해야 될 점은 이 가르침이 본래 '분별(分別)'의 가르침이었다는 점이다. 오랜 대승불교의 영향 밑에서 불교란 것을 생각하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르침이 원래 '분별'의 가르침이었다는 지적은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된 불교인들은 이 가르침의 성격을 규정하여 '불교는 분별의 가르침이다'라는 명제(命題)를 앞세우고 있었다. 그 명제는 석존의 가르침을 조금만 검토(檢討)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붓다가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지적(知的)인 활동은 줄여서 말하면, 관찰과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투철한 관찰로써 여실(如實)히 지견(知見)하는 것이 그 점이었다. 주의 깊은 분석으로 존재를 여러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간의 관찰과 분석에 있어서의 붓다의 그것은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불교의 술어에 '오온(五蘊)'이란 말이 있다. 또 인간은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의 존재라고도 말한다. 그것도 붓다가 시도한 인간분석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온(蘊 · skhandha)이란 요소 또는 부분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인간 존재를 몇 가지의 요소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이 용어 자체가 잘 표시하고 있다. 그 분석의 방법은 물질적 요소로서 색(色) 정신적 요소로서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합하여 다섯 개의 부분 즉 오온의 외에는 무언가 늘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영혼이니 아(我)니 하는 것을 조정(措定)하지 않으며, 다만 다섯 가지의 부분의 유동적(流動的)인 결합과 추이(推移)에 있어서 인간 존재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오온가화합이란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오래된 술어에 '육처(六處)'라는 것도 붓다에 의해서 시도된 인간분석 방법의 하나였다. 그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그 대상에 관련하는 관련 방법을 눈 · 귀 · 코 · 혀 · 몸 · 뜻의 여섯 가지 감관(感官)에 의해서 생각하였다. 또 이 여섯 개의 감관에 따라서, 인식의 대상을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위 존재란 이러한 여섯 개의 감관과 그 대상과의 결합에 있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 분석의 방법은 얼핏 보기에는 퍽 소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인식의 사고방식은 근대의 인식론과 같은 분석적(分析的)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진 십이연기(十二緣起)도 붓다에 의해서 시도된 하나의 인간분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전에 의하면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에 여전히 나무 밑에서 머물면서 이 무명(無明)에서 생사(生死)에 이르는 12항목의 연기(緣起) 즉 조건의 상관관계를 순(順)으로 또는 역(逆)으로 여러 번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기의 계열이 설명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관해서는 예부터 여러 가지의 이론(異論)이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이르는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연속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예부터 널리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붓다가 그러한 것을 문제로 삼았을 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붓다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인간이었다. 이 현실적 인간의 모습은 고(苦)이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苦)의 인간모습이 있는 것일까. 이 고(苦)의 인간모습이 있는 것일까. 이 고(苦)의 인간존재 '생기(生起)의 조건'(그것이 연기란 것이다)을 탐구하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것이 저 열두 항목의 연기였었다. 즉 십이연기(十二緣起)는 인간의 괴로운 실존(實存)의 생기(生起)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조건을 찾다

분석한다는 것은 다만 대상을 나누며 따지는 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이란 것을 정의(定義)하여, 그것은 "주어진 것이 혼돈(混沌)한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限定)하며 규정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더 단적으로 표현하면, 문제를 단순화하는 길이며 또,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대상은 언제나 '혼돈한 전체'이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관찰한다. 관찰하면서 여러 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상(抽象)하며 우연적(偶然的)인 것을 사상(捨象)한다. 그리하여 본질적인 여러 요소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선명하게 한다.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붓다가 깨달은 법은 그러한 법이었다. 어떤 사물이 있다는 것은 그 생기(生起)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생기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연기(緣起)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또 인간이 그 외계(外界)와 상관하려면 어떠한 조건으로서 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육처(六處)'라는 생각이 세워진 것이다. 혹은 또 인간이 지금 있는 것과 같은 고(苦)의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일까.

이 조건이 추구되었을 때 그것이 무명(無明)에서 노사(老死)에 이르는 순열(順列)의 십이연기(緣起)가 되었다. 다시 또 그러한 고의 상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없애면 좋을까. 그 조건이 추구되었을 때 그것이 생사에서 무명에 이르는 역(逆)으로써의 십이연기가 된 것이다.

옛 경전에는 자주 붓다의 이러한 사유(思惟)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언제나 먼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노사(老死)가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 노사(老死)가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또 계속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老死)가 없으며 무엇의 멸(滅)에 의해서 노사(老死)의 멸(滅)은 있는 것일까"라고 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즉 인간 존재의 조건을 탐구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은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을 통해 깨달음을 이뤘고, 이는 12연기 등의 가르침으로 나타났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선문답에 대해

선문답을 설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고 끼니마다 김치를 만나게 된다. 커피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김치 맛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커피를 스스로 마셔 보게 하고, 김치를 스스로 먹어 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어와 문자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물맛을 물어 올 경우 대답 대신, 그 물을 물은 사람에게 주어 스스로 물맛을 알게 하라(如人飮水冷暖自知)는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어록(禪語錄) 또한 격외(格外)의 깊은 도리(道理)를 함축된 언어로 표현, 도반끼리, 스승과 제자끼리 비밀스럽게 주고받았던 것이다. 팔만장경의 대의(大意)를 묻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와 '마른 똥 막대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쯤에서 내가 직접 나눈 선문답을 소개해 옮겨 보겠다, 선문답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하루는 사자암의 내 처소에 해인사의 구참납자인 스님이 찾아왔다. 그 스님

지극한 도리, 격외의 언어로 나누니 이 자리 떠난 극락 · 지옥도 없다

의 세속 나이는 70세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할 경우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까?" 하여 내가 대답했다. "날마다 좋은 곳(日日是好處)이지요."

그 뒤, 해인사에서 건장한 체격의 중년쯤 돼 보이는 스님 둘이서 찾아왔다. 그들과 나눈 대화다. "사자암, 사자암해서 찾아왔더니 사자(獅子)는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뜰 안의 개가 그들을 보고 짖고 있었다. 하여 나는 말하였다. "눈(眼)은 없고 귀만 달라 붙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대뜸 목소리를 높이며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자(獅子)를 보여 주십시오."

나는 매우 큰 소리로 사자처럼 포효(咆哮)했다. "악!"

그 중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제무왕은 용화세계에 출현할 미륵불을 기다리며 미륵사를 창건했다는데, 스님이 보시기엔 언제쯤 미륵불이 출현할까요?" 하여 내가 대답했다.

"이르는 곳마다 용화세계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륵불인데, 스님은 왜 용화세계의 미륵불만 찾고 있는가?"

상락아정(常樂我淨)에 대해

〈열반경〉에는 열반의 4덕(四德)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열반(涅槃)을 성취하면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을 누린다고만 명기 되어 있다.

열반은 불교 수행의 최고의 경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열반락(涅槃樂)인 상락아정은 무슨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불교에는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뜻으로, 도장 인(印)까지 끌어들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가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일체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해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諸法無我)로,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영원한 주체로서의 나(我)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체개고(一切皆苦)로, 삶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요, 생존 법칙에 있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세 가지 세계관은 불교의 인생관일 수 있는 것이다. 삼법인(三法印)은 이름 그대로 세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셈이다. 그러나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누리는 열반의 4덕이 있으니 상락아정(常樂我淨)이 바로 그것이다. 간략히 설명하겠다.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아니라, 제행(諸行)은 유상(有常)인 것이다. 일체개고(一切皆苦)가 아니라 일체(一切)가 개락(皆樂)이 되는 것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있어서도, 제법(諸法),무아(無我)가 아닌 유아(有我)인 것이다. 끝으로 사바예토(娑婆穢土)가 아니라, 청정정토(淸淨淨土)가 되는 것이다.

이 자리를 떠나 따로 극락이 없고, 이 자리를 떠나 따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없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이다. 모두가 이웃이요 형제이며 이르는 곳마저도 마음 편한 극락이 되는 것이다. 변두리가 없는 중앙 그대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삼법인(三法印)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만나 천지개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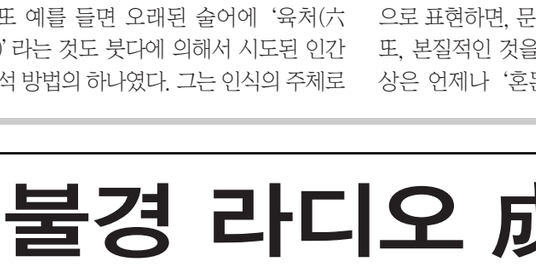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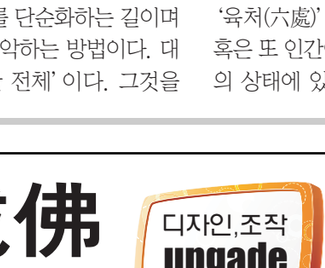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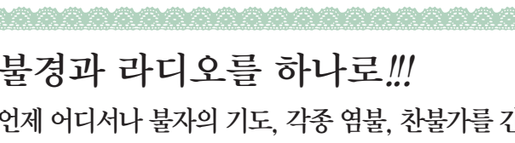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마음명상 효과 검증 '장기 프로젝트' 실시

연구집단 11~16세 설정
향후 7년간 장기 분석
약 1천 2백억 투자돼
단계별 효과 입증 '최우선'


영국 유명대학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이 영국 청소년 약 7천명을 대상으로 '10대들에 대한 마음챙김명상 효과' 연구를 시작한다. 사진출처=Huffingtonpost

옥스퍼드 · 런던대학 등 청소년 7천명 대상
FOX News "유례없는 대규모 연구 실험될 것"

현대인 마음 치유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음챙김명상',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영국 유명대학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이 이에 호기심을 품고 영국 청소년 약 7천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연구를 시작한다. 마음챙김명상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과학적 분석으로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뉴스전문채널 'FOX News'와 인도 'NDTV'는 7월 16일 "마음챙김명상이 10대 청소년층 정신 건강을 신장시키는지 영국이 실험에 착수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가장 큰 실험"이라며 "영국 76개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11~16세 또는 18세까지 다니는 학교) 학생들 7천 명을 모집중"이라고 보도했다.

옥스퍼드대, 액서터대, 런던대 등 영국 유명대학으로부터 연합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앞으로 7년간 일반 교육법과 비교해 마음챙김명상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요즘 청소년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지 조사한다. 11~16세 청소년 7천명을 통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음챙김명상이 청소년 정신 건강 향상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명상 교사들을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실험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인 런던 UCL대학 사라 제네(Sarah-Jayne Blakemore) 교수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 상태서 마음챙김명상을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진행될 때 마음챙김명상이 단계 마다 어떤 다른 효과를 나타낼지, 또 10대들의 정신건강을 정립하기 위한 최적 시기가 언제인지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FOX News'는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10대가 정신 건강에 매우 취약한 시기로, 특히 의사결정능력, 감정통제능력, 사회성 등 정신 기능의 75퍼센트 이상이 이 시기에 결정된다"면서 "연령대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끌어온 마음챙김명상이 질풍노도 10대들에게는 어떤 과학적 효과가 입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NDTV'에 따르면 국제자선사업기구 The Wellcome Trust는 이번 연구 실험을 위해 6천 4백만 파운드(한화 약 1천 2백억) 자금을 지원했으며, 연구 과정은 정책 입안자에 의해 밀접하게 감시된다.

'NDTV'는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성인들에게 최근 몇 년간 마음챙김명상은 그야말로 '붐'이었다. 해마다 약 2천 2백 명이 마음챙김명상 교사로 훈련받았으며, 약 70만 명 이상이 'Headspace' 등 스마트폰 앱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서 "이번 실험은 마음챙김명상이 과학을 능가한다는 열광론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티베트인 나왕 로둡 법사 '록스타'로 부상

WOMAD 페스티벌… 영국서 23~26일 개최
로둡 법사 "실향민 아픔과 불교적 신념 담고 싶었다"

어린시절 사원서 몰래 악기 연습
불교음악 현대적 해석 인정받아
티베트서 대중음악가 활동도
유럽 등지서 싱어송라이터로 '각광'

전 세계 음악인의 축제 'WOMAD(World of Music, Arts and Dance)' 페스티벌서 티베트인 재가법사가 '록 스타'로 주목받아 화제다.

'Telegraph'는 "영국 잉글랜드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에서 7월 23~26일 열린 WOMAD 페스티벌서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진 실향민의 아픔과 종교적 신념을 노래한 티베트의 나왕 로둡(Ngawang Lodup · 32) 법사가 록 스타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암도(Amdo) 지역에서 나고 자란 로둡 법사는 "영국에서 열린 WOMAD 페스티벌에서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며 "어린 시절 소와 야크를 돌보는 동안 뒤편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민요가락과 저녁마다 형들과 함께 대자연과 부처님을 찬양하며 연주했던 드람옌(dramnyen)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소감을 전했다.

'Telegraph'에 따르면 로둡 법사에게 '불교와 음악' 아니 '음악과 불교'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 어린 시절 음악에 푹 빠져 있었고 청소년기 6년 동안 사원에서 기숙하며 불교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14세 때 가족 전통에 따라 히말라야 고원에서 사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로둡 법사는 "사원에서는 불교의례 악기 외에는 가지고 있을 수도 연주할 수도 없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음악에 대한 그리움에 몰래 드람옌을 밀반입해 가지고 있다가 스님들께 혼난 일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사원 생활의 엄중함도 로둡 법사의 음악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에 사원 대중 스님들은 차츰 로둡 법사의 음악에서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엿보기 시작했다. 대중 스님들이 때론 민속악기인 드람옌으로, 때론 티베트인이 즐기는 만돌린으로 울려 퍼지는 그의 음악에서 '현대화된 불음의 참맛'을 느낀 것이다.

로둡 법사는 19세가 되던 해에 교육과정을 마친 후 사원을 나와 네팔과 인도를 거쳐 21세가 되는 해에 영국에 정착했다.

'Telegraph'는 "로둡 법사는 영국에서 11년째 티베트 불교를 알리는 법사로 활동하는 한편 티베트에 뿌리를 둔 대중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는 티베트 역사를 담은 대중음악을 만들기도 선보이기도 하고, 영국인에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티베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는 싱어 송 라이터로서 영국을 비롯해 유럽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런던에서 티베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가피"라는 로둡 법사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티베트 불교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 노래 대부분 티베트 불교의 수행과 만리타향에서 살고 있는 티베트인의 향수, 매서운 칼바람 같은 망명 생활 등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elegraph'는 "로둡 법사는 이번 WOMAD 페스티벌에 앞서 80세를 맞은 달라이 라마에게 자신이 직접 작사 · 작곡한 노래를 헌정해 주목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둡 법사는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달라이 라마 성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며 "어릴 적 티베트에 살 때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까지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가족들이 세상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7월 23~26일 열린 WOMAD 음악 페스티벌서 티베트인 나왕 로둡(Ngawang Lodup · 32) 법사가 록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계 사원에서 춤춘 4대 여성불자 가족

뉴저지 시브룩 사원 오봉 70회 축제… 그 의미 더하고 싶어


미국 뉴저지 시브룩(Seabrook) 사원서 열린 오봉(Obon) 축제에 로렌 푸처(Lauren Pucher)와 딸 리라(Lyla)〈사진〉을 비롯한 일가 여성불자 4대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미 뉴저지 컴벌랜드카운티 소도시 어퍼 디어피어(Upper Deerfield)의 시브룩(Seabrook) 사원서 열린 오봉(Obon) 축제에 여성 불자 4대가 동시에 참여해 화제다. 시브룩 사원은 지난 1945년 건립된 이후 매년 오봉 축제를 지역 불자들과 함께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70회를 맞았다.

'Daily Journal'는 "일본불교계 시브룩 사원의 오봉 축제에 4대의 여성 불가 가족이 참여해 지역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며 "화제의 인물은 로렌 푸처(Lauren Pucher) 씨와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다섯 살 딸 리라(Lyla)"라고 보도했다.

"할머니는 시브룩 사원의 신도였다"고 말한 로렌 푸처 씨는 "그래서 어머니와 저 역시 시브룩 사원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70회를 맞은 시브룩 사원의 오봉 축제에 의미를 더하고 싶어 할머니, 어머니, 저, 딸아이까지 오봉 축제 군무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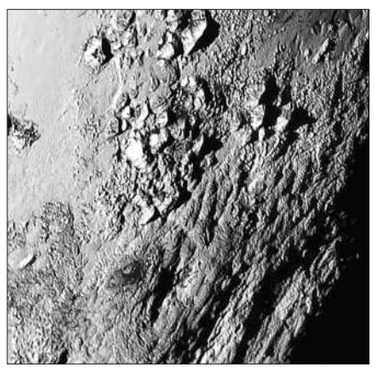
'Daily Journal'는 "오봉 축제 군무를 연습하며 연로한 할머니와 어린 릴리가 모두 어려워했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여성 불자 4대의 동참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객의 관심이 고조됐다"고 전했다.

한편 오봉은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행해진 죽은 조상의 영혼을 추모하는 일련의 불교 행사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왕성에 등장한 '불교 여신'

NASA, 명왕상 특정 지역을 멩포(Meng Po)로 명명


NASA가 중국의 불교설화 속 '죽은 자의 기억을 지우는 여신' 멩포(Meng Po)를 명왕성의 한 지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NASA(미 항공우주국)가 명왕성의 특정 지역을 불교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인 멩포(Meng Po)로 불러 화제다.

'Lion's Roar'는 7월 15일 "NASA가 중국의 불교설화 속 '죽은 자의 기억을 지우는 여신' 멩포(Meng Po)를 명왕성의 한 지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명왕성은 로마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신 플루토(Pluto)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명왕성 지역들의 이름도 픽션과 신화에 나오는 지하와 해저의 캐릭터에서 가져오고 있다.

명왕성 남극 근처의 어두운 지역은 '크툴루(Cthulhu)'라고 부른다.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Howard Philips Lovecraft)에 따르면 크툴루는 남태평양에 가라앉은 도시 르리에(R'lyeh)의 지배자로, 깨어남과 함께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사악한 신적인 존재이다.

톨킨(J.R.R. Tolkien)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고대 악마 '발로그'의 이름을 붙인 곳도 있고 마야의 죽음의 신인 부쿱 카메(Vucub Came)와 훈 카메(Hun Came)도 있다. 지금까지 이 이름들은 비공식적 명칭이지만 천체에 이름을 붙이는 IAU(국제천문학연합회)에 공식 명칭 후보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IAU는 보통 발견을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권리를 준다.

한편 이 이름들은 'OurPluto.org'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의 화신불인
약사여래불의 원력을 믿는지요?
누구나의 마음에 존재하기에
약사여래불의 가피와 선근공덕으로
진귀(眞歸) 수행자와 인연되어
차 한잔 혹은 강의 시간 만으로도
각종 암(癌)세포와 영가 및 저승사자 등
모든 질병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믿기 힘든 기적같은 원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은은한 차향 · 그림이 함께하는 '화엄 세상'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쿱이 여는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

차문화 체험은 물론 그림과 도자기도 감상하며 여유 있는 낭만의 여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쿱은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를 8월 30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에서 연다.

이 전시는 차 향기와 어울리는 그림으로 화엄의 세계를 감상하는 자리로 생활 속의 차문화를 지향하는 티쿱(teacoop, 한국차문화협동조합)에서 발효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하철 풍경소리 그림작가로 유명한 박준수 작가를 비롯해 예술가공동체 '공동'의 기획전과 차와 어울리는 도자기 찻잔과 차통도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전시는 △'공동'의 그림 전시회 '잔향(殘香)-여운이 남는 향기' △발효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매일 오후2시~4시) 코너 △'차가 머무는 공간' 천 개의 찻잔 & 차가 사는 차통 △차와 차 도구의 어울림 등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잔향' 전은 예술가공동체이자 사회적 나눔 그룹인 '공동'의 그림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준수, 조원희, 정지아, 심영신, 홍석민 등 다섯 명의 작품 69점이 전시된다. 특히, 박준수 작가는 '연꽃과 탑'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심영신 작가는 식물의 씨앗과 씨방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조원희 작가는 '선운사 동백꽃'과 '기다리다' 등 불교와의 인연을 작품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조 작가는 "때로는 강하게, 또는 천천히 스며들어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마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휴식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예술가공동체 '공동'은 전시, 행사, 아트상품 등 수익금 창출과 후원단체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마련해 '공동성장플러스, 예술가,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전시 역시 수익금 일부는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발효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은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발효차를 중심으로 차를 이해하고 시음하는 체험의 코너에서는 100여 종이 넘는 차 샘플이 선보인다. 이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발효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차 마시며 그림 감상 동시에
다양한 찻잔과 차도구도 선봬
발효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도

또한 '차가 머무는 공간' 전시는 천 개의 찻잔과 차가 사는 집 차통(茶桶)이 소개된다. 국내 일반 작가 20여 명과 단국대 전통도예연구소 소속 작가 1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차와 차 도구 관련, 작가와 소비자와 유통자가 협동으로 진행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차를 마시는 찻잔과 차를 보관하는 차통에 대해 국내 도자기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정품관 서해진 본부장은 "차 도구는 미학적 안목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제작해야 한다. 오랜 시간 이어진 차도구학에서 찻잔은 '차의 호수'라 한다. 어떤 찻잔은 녹차의 호수가 되고, 어떤 찻잔은 홍차의 호수, 어떤 찻잔은 보이차의 호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각각의 찻잔은 찻물의 성질과 색깔에 따라 다르며, 시간과 풍경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차도구를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최근 국내에 발효차가 유행하면서 차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차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차통에 대한 대안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쿱은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 생활 속의 차문화 정립을 목표로 차와 차도구 등을 유통하고, 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련 사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차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전시도 마련하고 있다. (02)765-563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쿱은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를 8월 30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에서 연다. 사진은 전시장 전경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경주박물관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된다.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한눈에

경부박물관 개관 70주년 특별전 11월 1일까지
'불국토' 신라 불교문화의 융성 보여줘

'덕업일신 망라사방'(德業日新 網羅四方)은 덕업이 날로 새롭고, 사방을 망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호 '신라'는 여기에서 따온 이름으로, 변화와 개혁 또는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신라는 오늘날 유물로 남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갈망했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1월 1일까지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신라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국내 특별전으로 '황금문화', '능묘', '대외교류', '왕경', '불국토' 등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경주에 전시되는 것은 물론 금관총 금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22건 30점을 포함한 600여 점의 다양한 신라 문화재를 선보인다.

각 부분별로 전시를 살펴보면 제1부 '황금문화'에서는 금관총 금관을 비롯해 경주 보문동합장분 출토 금귀걸이, 경주 노서동 출토 금목걸이 등 일제강점기에 출토된 신라 문화재가 전시된다. 오늘날의 시각적 표상으로서 신라가 부각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근대적 학문인 실증적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의 관점에서 신라문화가 재조명되며 '문화재'라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등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1921년 금관의 발견이었다. 금관총에서 금관을 비롯해 처음 보는 신라의 황금 유물들이 세상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이 황금문화의 절정을 1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2부 '능묘'에서는 신라능묘의 발굴로 1970년대에 큰 전환기를 맞은 우리의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시기가 바로 1970년대다. 광복 이후 신라능묘 출토품과 금제 관식, 은제 관모 등 천마총 · 황남대총의 화려하고 다양한 부장품 전시를 통해 신라 왕릉의 실체와 의의를 보여준다.

제3부 '대외교류'에서는 계림로 14호묘 보검, 황남대총의 봉수형 유리병, 식리총 식리 등을 전시한다. 또한, 신라 통일기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경주고등학교 소장의 무인석상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제4부 '왕경'에서는 신라 왕경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다양한 성격의 유물들이 전시된다. 월지의 용얼굴무늬 기와와 보상화무늬 전, 황룡사터의 각종 공예품, 경주박물관 남쪽 부지에서 나온 '동궁아'가 새겨진 단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5부 '불국토'에서는 신라 불교문화의 융성을 보여주는 불상과 불교공예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경주에서 처음으로 2주간 전시된다(8월 2일까지).

또한 경주 구황동 석탑의 국보 제79호 금제 아미타불좌상(8월 4일~11월 1일), 사천왕사터 출토 '동탑서'가 새겨진 금동장식, 경주경찰서 소장의 부처가 새겨진 탑신석(경주 외동읍 입실리 절터) 등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신라'를 소재로 한 이응노, 박대성, 배병우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02)740-7535 **정혜숙 기자**

큰스님 법문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BTN불교라디오 '울림' 매주 목·금 방송

옛 큰스님들의 법문이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BTN(대표이사 구본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불교라디오 '울림'의 4개 채널 중 법문채널을 통해, 열반 후 다시 듣기 힘들었던 스님들의 법문을 방송한다.

BTN불교라디오는 前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과 前태고종 초대 종정 묵담스님의 법문이 담긴 옛 테이프를 입수해 지난 6월부터 복원작업을 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릴 녹음기와 웍 스테이션으로 50년 전 녹음된 큰스님들의 육성테이프는 한달여간 잡음제거와 음원을 보정하고 클리닉 마스터링 등의 기술적인 작업을 거쳐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큰스님들의 법문은 7월 23일부터 BTN불교라디오 '울림'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11시에 들을 수 있다.

매주 목요일은 종교를 뛰어넘는 거침없는 법문으로 알려진 전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 매주 금요일에는 前 청정율사로 시대의 스승이었던 태고종 초대 종정 묵담스님 법문이 방송될 예정이다.



BTN은 불교라디오 '울림'을 통해 스님들의 법문을 복원해 방송한다.

이번 복원작업에 대해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큰스님들의 법문 복원 작업을 시작으로 잊혀져가는 옛 법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대를 초월하여 불자들에게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TN은 개인, 문중 및 종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스님들의 음성 및 동영상의 법문 제보를 기다린다.(02)3270-3338 **정혜숙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 여행 문의 상품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인도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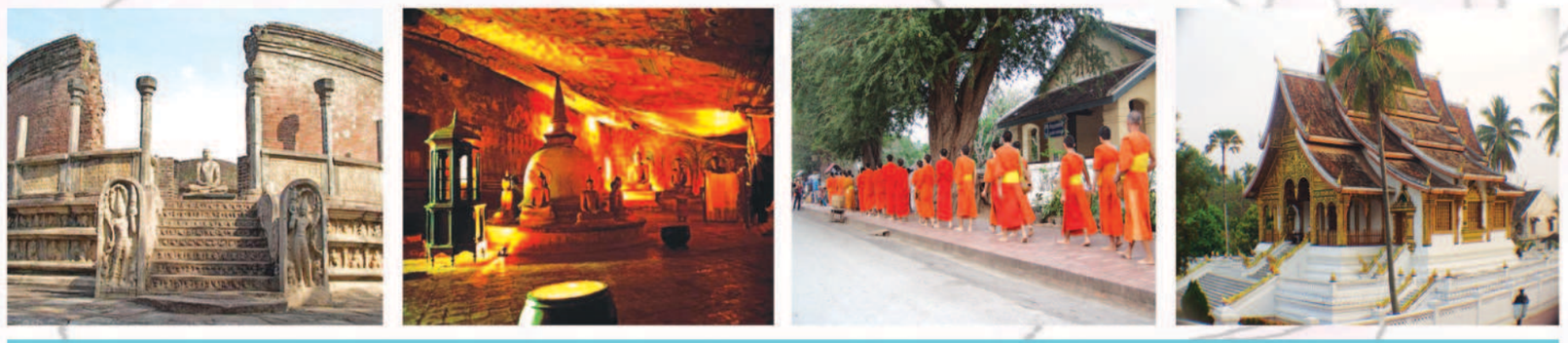
인도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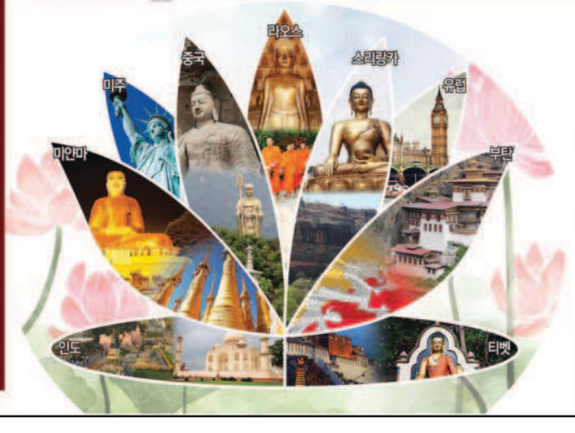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인도양의 찬란한 빛 스리랑카
구름도 머물다 가는 곳 라오스



1.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
4.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6. 8인이상 출발 가능



● 스리랑카 완전 일주 8일 출발일: 매주 일,월,수,금 출발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 6일 요금문의 출발일: 매주 수요일 출발
● 라오스 6일 출발일: 매주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출발일: 매주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 여행사 만의 알찬 일정 〉〉

BTN 드라마 '붓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지난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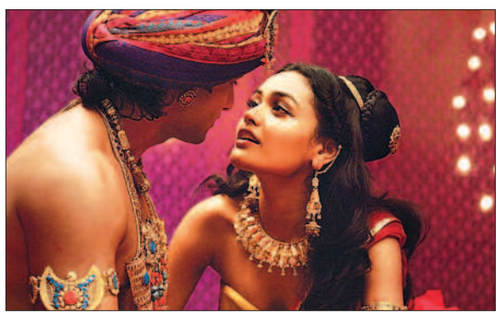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왕자에게 세상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왕의 계획은 점점 어그러진다. 신도시로 이사 간 백성 중 한 명이 왕궁으로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싯다르타는 불합리하게 일어나는 세상의 일에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강한 승부욕을 보이는 데바닷타와의 대결에서 싯다르타가 번번이 승리를 거두며 데바닷타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데…



스승은 왕궁을 떠나며 싯다르타에게 분노, 증오, 마음의 끌림, 미혹, 갈애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 한다.



싯다르타는 치타에게 물린 아기를 구해낸다.



향락궁에서 기생 우르밀라를 만나게 된다.



우르밀라의 연인에게 공격당하는 싯다르타

치타가 마을의 아기를 물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싯다르타는 우선적으로 아이를 살리는 것에 치중한 반면 데바닷타는 싯다르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치타의 머리를 쳐서 들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자 둘은 치타를 죽인 것이 옳다 그르다로 설전이 벌어졌고 왕궁 전체가 이 문제로 술렁인다. 데바닷타는 치타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죽이는 게 맞다고 말하자 싯다르타는 이렇게 반문한다.

"우리 인간은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심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지요. 형에겐 사냥이겠지만 그들에겐 목숨이 끝나는 거지요. 이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이 일을 계기로 싯다르타가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자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숫도다나 왕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싯다르타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스승이 떠나고 공허해 하는 싯다르타
향락궁에서 기생 우르밀라 만나
사랑과 슬픔 비애 등을 경험

이어 왕의 꿈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왕은 싯다르타에게 비폭력과 명상을 교육하는 스승 카운다냐를 나무라게 되고 그는 결국 사직하게 된다. 싯다르타는 떠나는 카운다냐에게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 제 교육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시지 않았잖습니까… 완벽한 은둔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싯다르타.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게야. 분노, 증오, 마음의 끌림, 미혹, 갈애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이 익은 다음에야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카운다냐는 자신의 책을 건네며 명상할 것을 당부한다.

스승을 떠나보내고 공허해하는 싯다르타를 보며 왕은 싯다르타를 향락궁으로 보낼 결심을 한다. 이렇게 향락궁에 들어간 싯다르타는 기생 우르밀라를 만나게 된다. 싯다르타는 우르밀라에게 성가를 부를 것을 권하지만 우르밀라는 자신은 성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희는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저희들의 경전이고 매력이 저희의 성가이며 욕망이 그 열매랍니다."

그녀와 밤을 보낸 싯다르타는 마음이 불안할 때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숄을 선물한다. 이후 둘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싯다르타는 우르밀라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편, 드로나단은 싯다르타가 향락궁의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겨 타락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아들 데바닷타가 취해서 궁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여성과 술의 향락에 빠진 데바닷타는 향락궁의 기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기생이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들 것을 강요해 병세를 악화시키니 향락궁은 슬픔에 빠지고 싯다르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가슴 아파한다.

또한 향락궁을 나오는 싯다르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바로 우르밀라의 연인이자 코살라국의 칙사인 발데프였다. 싯다르타는 우르밀라와의 관계를 의심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남자를 용서하고자 한다. 그럴 수 없다는 숫도다나왕에게 싯다르타는 칙사를 살해하면 두 나라의 관계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라 말하며 설득시킨다. 그렇게 싯다르타는 살아남은 발데프를 우르밀라와 결혼시켜 코살라국으로 보낸다. 한편 숫도다나 왕은 발데프가 국경을 넘어갈 때 살해하고자 하지만 이를 미리 안 싯다르타가 막아주면서 둘은 무사히 국경을 넘는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철저하고 처절한 의심과 질문

한국의 스님들은 아침마다 부처님을 예경하면서 행선축원(行禪祝願)을 한다. 축원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붓다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참선정진(參禪精進)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단독로(疑團獨露)이다. 의심이 덩어리가 되어 드러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 왜 이런 축원을 하는 것일까? 의심은 무엇이고, 덩어리는 무엇일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이 그득하지만 해결했을 때는 전쟁하다가 사로잡혀서 밧줄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것 같은 시원하고 후련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의심이 지극하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도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이고 대강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듯 도저히 풀어낼 것 같지 않은 문제가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했을 때는 생각나지만 밥 먹거나 잠자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지만 골똘히 생각하고 그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그 문제만 또렷하게 다가서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따라오고, 뒤로 가면 뒤로 그리고 잠자거나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 꿈을 꾸어도 그 문제는 나타난다. 그렇게 마치 작은 실마리가 뭉쳐져서 실타래가 되듯이 의심도 덩어리처럼 되는 것을 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깨우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심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이 덩어리가 되어 드러나게 되면 해결은 어느덧 와있게 된다. 아난다가 결집에 참여하려고 수행하다가 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나는 초기불교도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생각한다. 착실하게 한 계단씩 밟아나가는 점수(漸修)의 방법을 쓰지만 깨달음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99.999%는 100%가 아니다. 100%는 이뤄지는 순간에 이룬다.

세상의 모든 일에 질문에 질문
의심을 붙들고 있는 싯다르타

드라마 붓다의주인공인 싯다르타는 이 의심이란 놈이 영락없이 잡힌 짐승이나, 도둑이나, 적처럼 아니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애인처럼 척하니 다가서고 있다. 아니 항상 그와 함께 하고 있다. 8~10회를 통해서도 싯다르타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의심이다. 그리고 그것의 표현은 질문이다. 드라마 붓다의 시청자들은 그의 의심이 어느 곳에 머무는 가를 살피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한국의 불자들은 의심과 질문이 습관화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싯다르타의 의심과 질문을 잘 새겼으면 한다. 싯다르타가 수행자로서의 길을 선택할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 숫도다나는 향락궁이라는 여인들과의 정염을 마음껏 누리는 유흥가에 가도록 한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않는 데바닷타는 비아냥거리며 말한다. 또,또,또 질문이지. 추가질문이요~오. 데바닷타가 경전에서는 계속 못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경전의 기록자들의 시각일 수도 있으나 싯다르타만큼 철저하고 처절한 의심과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의 한국불교는 금강경, 화엄경을 위주로 교학을 공부하면서 참선정진을 하는 참선행자나, 염불정진을 하는 정토행자나, 주력(呪力)정진을 하는 밀교행자 그리고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마타행자 등이 있다. 기본을 모두 알고 특징적인 정진을 따로 하면 좋은데 하나만 알다보니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조금은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해소하고 바른 신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의심이 덩어리 되게 사유하고, 생긴 의심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 물어서 해결하고, 물어서 안 것은 또한 골똘히 사유해서 확인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 308쪽 | 15,000원 | 민족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패널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족사 02.732.2403~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2~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6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7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8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9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빼들린포체/고수연	민족사
5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10	스승과제자,함께걷다	성재헌	(주)조계종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어떻게 살 것인가" 금강경서 답을 찾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 5천원

사색 · 통찰 담긴 '금강경 해설서'
空의 허무주의적 해석 경계하며
사유로서 벼려낸 경전 풀이 '눈길'
"함께 살아가자" 관계성 회복 역설

〈금강경(金剛經)〉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다. 이런 이유로 가장 많은 해설서가 나온 불교 경전이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사진〉이 발간한 〈금강경〉 해설서인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은 조금 색다르다. 적지 않는 해설서가 원전과 그 해석에 집중한다면 일감 스님의 해설서는 사유와 통찰을 통해 경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이전에 일감 스님은 템플스테이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것 저것 분별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내비두세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한 금산사와 불교 텔레비전 내비둬 콘서트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산사에서 내비둬 콘서트를 진행, 갖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대중들이 마음 깊이 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삶을 고요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한다"는 스님의 바람은 템플스테이를 거쳐 이번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은 불교 수행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첫 책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스님의 깨달음과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래서인지 〈금강경〉사구게에 대한 일감 스님의 해석은 새롭다. 스님은 사구게를 이렇게 해석한다. "만약 모양 속에서도 여래를 보고 소리 속에서도 여래를 본다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래를 볼 수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모양과 물질 등의 허망함을 알아 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님은 이 세상이 공한 것이 아니라 부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가는 곳마다 부처를 볼 수 있으리라"는 따뜻한 사유를 통해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의 공(空)사상을 텅 빈 것,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이들의 생각을 바꿔준다. 〈금강경〉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활공(活空)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일감 스님이 잠실 불광사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한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하였기에 생생한 현장감이 있고, 그 덕분에 살아있는 〈금강경〉,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생활 속에서 〈금강경〉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강경〉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실제 지난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스님은 〈금강경〉 제23 정심행전분으로 접근하며 '무엇이 중요한가치' 인지를 현대인에게 되묻는다.

"하루를 살더라도 '삶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종착역은 늘 사람이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중략〉 부처님이 고구정녕히 말씀하신 '나만 나' 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 나와 남이 함께 하나가 되는 자리에서 선법(善法)을 행하고, 이런 마음이 무상정등정각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감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고찰과 역설이다. 이는 스님이 쓴 머리말에도 잘 나타난다. 스님은 "〈금강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한 말씀이 있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 존재하니 관계를 좋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스님의 생각은 해설서 곳곳에 묻어난다.

"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만의 나' 가 아닙니다. 독특한 하나의 존재가 아닌, '연기적(緣起的)으로 존재하는 나' 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해 보자면, 내 옆의 공기가 오염되면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야 나도 깨끗합니다. 공기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곧 나' 입니다."

기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스님의 말처럼 우리 사는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고 이웃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팔정도' 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람과 환경의 관계 또한 연기적 관계다. 이 관계의 미학을 알면 이 시대의 온갖 갈등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 과 '연기' 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로 이르는 길을 설명한 것이다. 해설서의 마지막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처로 사는 삶' 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옆 사람을 부모와 스승같이 존중하고 이웃과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 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독자들을 위해 던지는 메시지도 한결같다.

"우리 모두 부처로 삽시다."

"인생 길지 않다…남 미워하는데 낭비말라"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

쉐청 지음, 센판 · 센수 그림, 유연지 옮김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는 불이사(不二寺)에 사는 동자승 셴얼의 좌충우돌 절집 일상을 담은 만화다. 동자승 셴얼이 스승에게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들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94편의 만화에 재미있게 그려냈다.

이 책은 2014년 7월 중국 출간 직후 중국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저자인 쉐청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회장이자 베이징에 위치한 용천사의 주지이다. 스님은 불교 포교를 위해 동자승 셴얼을 주인공으로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중국 대표 SNS인 '웨이보' 에 올리고 있다. 이 계정의 팔로워 수가 무려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30만명씩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동자승 셴얼에 빠져든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아직 수행이 덜 익어 천방지축인 동자승 셴얼이 날마다 벌이는 사건 사고, 셴얼을 웃고 울리는 도반과 신도들, 진지하면서도 짓궂은 스승의 캐릭터가 절집을 배경으로 한 시트콤을 연상케 한다. 셴얼의 활약(?)을 보며 웃음 짓는 사이, 자연스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불교의 참뜻을 알아 가는 보람도 크다. 간결하면서도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그림도 중요한 인기 비결이다. 특히 작고 통통한 동자승 셴얼 캐릭터는 요즘 국내에서 인기 만점인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이모티콘 캐릭터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이스크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욕심쟁이, 눈이 떠질 때까지 실컷 자는 게 소원인 게으름뱅이, 틈만 나면 사부님께 도반들 잘못을 이르는 고자질쟁이. 이것이 동자승 셴얼의 실체다. 하긴, 셴얼이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동자승이었다면 애초에 이 만화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천방지축 사고뭉치이기에 절집의 일상이 공부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다행인 점은 셴얼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 고 솔직할 줄 알고, 경전 공부나 생활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도반을 보면 스스로 반성할 줄 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칭 '일등 수행자' 다.

이런 연유로 셴얼은 날마다 스승에게 묻는다. 동자승 셴얼이 천진한 얼굴로 불법(佛法)을 구할 때마다 스승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셴얼이 어리석은 상념에 젖어 허송세월을 보낼 때면 따끔한 질책을 던지기도 한다.

동자승 물음 통해 불교 참뜻 전달
현대인이 겪는 마음 문제의 답 제시

셴얼: '아집' 이란 무엇인가요?

스승: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체면에만 사로잡혀 매 순간 '보이는 것들' 에 연연하며 이를 방어하고 집착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것들이 온갖 갈등과 번뇌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아집' 이다.

셴얼: 사부님,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전혀 기쁘지 않은 걸까요?

스승: 뿌린 만큼 거둔 것이 자연 이치이나, 정작 마음은 뿌린 것 그 이상을 바라서이다.

셴얼: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부님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스승: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이미지' 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나를 방어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 모두 내면의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동자승 셴얼의 물음과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을 통해 우리는 2,600년간 전해온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무상무아 번뇌 인욕 등 익히 들었지만 자신의 일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지 못한 불교용어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려놓음' 이나 '마음챙김' , '깨달음' 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동자승 셴얼이 이 책의 주연이라면 불이사를 찾는 사람들은 훌륭한 조연이다. 성적이 나빠 부모에게 야단 맞고 주눅 든 어린이, 애인에게 이별 통보받고 괴로워하는 청년, 결혼 못해서 우울한 노처녀, 주식이 폭락해 낙담한 중년 남성 등 불이사를 찾아온 다양한 중생의 모습에서 '나 자신' 을 발견할 수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분노에 휩쓸려 중요한 일과 인간관계를 망치고 후회하는 내 모습 말이다.

셴얼과 그의 스승은 그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충고를 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일러 준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짓는 신도에게 셴얼은 자원봉사를 권하며 이렇게 위로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을 미워하는 데 쏟지 마라. 마음속의 미움을 비우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 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잃게 된다."

많은 것을 헌신한 상대에게 냉대 받아 속상한 사람에게 셴얼의 스승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속상한 것"이라고 충고한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셴얼은 거울을 내민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에 자신의 화난 모습을 비춰 보라."는 말과 함께.

불이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셴얼이나 그의 스승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서 괴로움의 원인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된다. 책장을 덮은 뒤에도 셴얼과 스승의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비워진 마음자리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 것이다.

주인공이 동자승이니 언뜻 보면 불자만을 위한 책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교신자나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불교 용어와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거제멸치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실치 등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택배는 멸치 5박스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선입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 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건 물 안 내



■ 위 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 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 액 : ① 4억 5천만원 (조정가능 합니다.) (1억 5천대출안고 2층 건물 및 토지 상가하고도 나머지 교환 가능함) ②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874-9번지
■ 2,143평 /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일체 만물이 자성인 관음의 현신이다"

대광명

석암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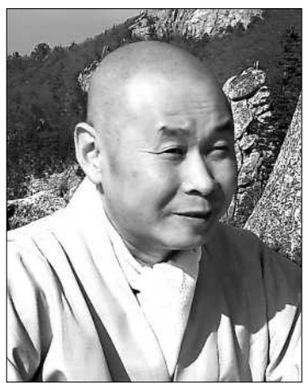
한국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은 아마도 염불이며, 그 가운데서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이 가장 널리 행해지는 수행법이다. 특히 천태종에서는 전 종도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주말 철야정진 또는 집중수행을 통해 관음정근을 닦고 있을 정도다.

불법의 많은 수행방법 중에서 일심칭명(一心稱名)의 관음선(觀音禪) 수행법은 만수행을 모아 회통시키고 안전하면서 쉽고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공부법이다. 관음선은 관음염불 일심칭명으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성관음을 바로 보는 최상승선이며, 내생의 정토왕생이나 소원성취의 기복적 기도정진을 아우르면서 금생에 깨달음을 얻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 마음수행방법이다.

이 책 〈시공간을 넘어선 대광명〉은 양구 관음선원장 석암 스님〈사진〉의 염불선 구도기인 동시에, 자성관음을 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행체계를 안내하는 관음선 수행법 지침서이다. 저자는 방법론적으로 '관세음보살' 일심칭명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독보적인 불법수행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참선법을 아우르면서 염불하는 자신의 힘과 관세음보살의 힘을 부여받아 만 사람이 닦으면 모두 깨달음과 가피가 충만한 '관음선' 이야말로 지금 물질만능으로 흐르는 정신이 나약한 시대에 알맞은 수행으로 적합하다는 소신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며 펼쳐왔다.

저자는 염불이든 화두를 들든 묵조를 하든지 스스로를 다시 되돌려 볼 줄 알아야 이것이 진짜 선(禪)이라고 말한다. 불성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 수행단계이다. 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에 따르면, 관음염불을 하는 자는 바로 '나(참나)' 이다. 내 안의 '자성관음(自性觀音)' 이다. 염불하는 마음을 돌이켜 놓으니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나' 는 비로소 대광명의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즉, 관세음보살 일심칭명을 하면 나는 관세음보살이 되어 내 자신이 염불하는 그 소리의 자성을 바로 관(觀)하고, 그 자리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안락한 마음의 해탈(解脫)을 얻으며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염불소리를 듣고 마음을 보아 자성관음을 깨닫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진은 저자인 석암 스님

관음선,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행법

불성 바라보는 기초적 수행 단계

관음선 프로그램도 부록으로 수록

이것은 자력수행이며 간절하고 힘차니 자성의 발현과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따르는 양가득성(兩家得成)의 진실한 법문이 되는 셈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이 염불선이며, 끊임없이 칭명함이 애절하고 정성마저 깃드니 하나의 살아있는 화두가 되어 의정심과 더불어 둘이 아니니 간화선인 것이고, 염불하는 이를 돌이켜 회광반조하니 묵조선이 되는, 그야말로 올바른 정법수행에 수많은 대들보를 얻으니 천군만마가 따라온다는 주장이다.

"일체 모든 만물이 관음(빛과 소리)의 현신이며, 모든 붓다의 화신이 관음이고, 관음진신은 당신들의 자성인 것입니다. 관세음은 수 대겁(大劫) 전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다하여 없어지지 않는 자성과 우주의 근본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구도 체험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풍부한 예화와 더불어 알기 쉽게 관음선 수행법을 소개하면서, 부록으로 '관음선 프로그램'을 수록해 생활 속의 마음공부를 권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석암 스님은?

대구 팔공산 은해사로 출가를 했다. 남해 보리암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원, 기도처, 토굴 등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며 수행 정진했다. 교화의 원력을 세워 강원도 양구에 관음선원을 창건한다. 저서로는 〈꽃 피니 열매 맺네〉 〈독송용 관음경〉 〈그대가 보살입니다〉 〈빛과 소리〉 〈반야심경의 진실〉 〈소설 군야〉 등 구도에세이와 소설 그리고 경전해설서 등이 있다. 저자는 자성관음을 발현하는 관음선(觀音禪)을 제창하며 중생교화, 인재양성, 성불창조의 원력으로 현재도 꾸준히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관음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여행작가들이 풀어낸 템플스테이

아 · 생 · 여 · 당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 | 조계종출판사 펴냄 비매품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콘텐츠가 됐다.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템플스테이 사찰 중 13곳은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13곳의 특화 프로그램 사찰은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으로 2014년에 런칭됐다.

한국의 대표적 여행작가로 알려진 유철상, 김혜윰, 이종배, 이강 씨가 '아생여당' 템플스테이를 참가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심상을 촘촘히 그려낸 4인 4색 에세이집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여행을 당신과 함께 나눠요〉이 발간됐다.

위안과 평화를 선물하는 '아아' 템플스테이(금산사, 법주사, 심원사, 반야사)는 유철상 씨가 건강한 생명력을 꽃 피우는 '생생' 템플스테이(대원사, 도갑사, 삼화사, 용문사)는 김혜윰 씨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깨우치는 '여여' 템플스테이(미황사, 수덕사)는 이종배 씨가 꿈을 향해 성장하는 템플스테이(백담사, 낙산사, 법륜사)는 이강 씨가 담당해 집필했다.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느끼는 작가들의 감성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한결같이 따듯하다.

"'촛불 아래 마음 내려놓기' 명상을 마친 일행 중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이도 있고, 눈가가 촉촉하게 젖은 이도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사연은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 놓는 일은 가장 값진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심(下心), 즉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첩첩산중 적막이 흐르는 산사의 작은 촛불처럼 이제야 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아아 템플스테이 법주사 中)

여행 작가 4인의 그려낸 템플스테이 힐링 에세이집은 아생여당 사찰 13곳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오는 8월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와 앱매거진 서비스앱 탭진(Tapzin), 그리고 온라인 서점(반디앤루니스, 예스24, 알라딘)에서 e-book 형태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에세이집 발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온라인에서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여행을 당신과 함께 떠나요〉 e-book을 다운로드한 후 인증사진과 함께 간단한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pr@templestay.com로 보내면 된다. 당첨자 3명에게 템플스테이 에세이집,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비롯해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VONDINA)의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된 20만원 상당의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짧은 운문속에 녹아있는 불교적 키워드

한줄로 된 깨달음

김상백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이미 몇 권의 저서를 통해 불교적 수행과 사유의 경계를 세상에 선보이는 저자가 이번에는 시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특히 1부로 엮인 독특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들은, 시인 듯 화두인 듯, 독자들을 깊은 사유의 세계, 아니 사고(思考)와 의식 너머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알 듯 모를 듯한 기분좋은 여운이나 혹은 무릎을 탁 치는 경쾌한 공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시집을 들어 펼치는 순간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도 '낯섬' 일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툭 던지는 짧은 첫 구절, 그리고 긴 여백, 두 번째 구절이자 마지막 구절인 짧은 한마디. 작가가 이 시집의 1부에 엮은 시들의 형식이다. 단 두 행, 압축과 은유라는 코드가 시(詩)가 보여주는 모습 중의 하나임을 감안해도 그렇다.

이처럼 김상백 시인의 이번 시집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불교시들을 모았다. 길고 난해한 현대시들이 주류를 이루는 요즘 시단에서, 짧고 간결하게 한 줄로 된 시적 깨달음을 전하는 선시풍의 이런 시집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짧고 간결한 시의 문장은 적기수사로써 마치 화두나 공안과 같이 '무슨 소리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의구심을 한 편의 그림처럼 펼쳐낸다.

가령 〈세월〉이란 제목의 시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라고 뜬금없이 운을 뗀 뒤, 한참 뒤에 시의 맨 끝에다 "내가 없으면"이라고 한 줄을 덧붙이는 식이다. 또 〈꽃〉은 "너에게로 갈 수 없다"며 한 마디로 잘라 말한 뒤, "꽃은 꽃을 알 수 없기에"라고 툭 던진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비로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김춘수의 〈꽃〉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이, 시집의 내용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회광반조의 노래도 있으며, 한편으로 '무아' 를 깨달을 수 있게 던지는 시적 적기수사(賊機修辭), 즉 시의 문장이 이미지나 의미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충격적 내용으로 인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의문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작자의 시적 의도에 몰입도를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의 선시가 그렇듯이 은유로 점철된

짧고 간결한 불교시들 모아 묶어

은유로 점철된 시어 공안 연상

시인의 시선, 종교 스펙트럼 초월

시들은 선문답의 화두나 공안과 같다. 물론 일반의 현대시도 은유를 통한 이미지로 드러내면 독자는 숨겨진 뜻을 찾아가는 시적 독해 능력을 동원해야 하며, 나아가 작자의 의도와 맞아떨어질 때 그 시적 감상이 더욱 증폭되고 동일한 깨달음의 희열에 휩싸인다. 그리고 김상백 시인의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들, 즉 툭 던지는 한마디와 그에 대한 응변은 마치 선사들이 공안을 주고받거나 법거량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물론 시인의 모든 시들이 그렇듯 선적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풀어 놓기도 하고, 몇 년 전 입적한 스승 봉철선사의 〈다비〉를 통해 제자들 각자가 스승의 사리임을 증명하라는 단호한 결의를 보인다.

한편, 시인의 시들은 화두참구, 참선, 명상 등 불교적 코드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곳곳서 만나는 소소한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시인의 시선이 종교적 스펙드럼에 만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김상백**은 1961년 서울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경북 풍기에 있는 성혈사의 봉철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시창(是窓)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2011년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2014년 계간 〈문예바다〉 신인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등단했고, 저서로는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법성게 강해〉 〈은그릇에 흰 눈을 담다〉 등이 있다.

강원 영동의 수호신 범일국사 이야기

큰 스님 대관령 신이되다

범일국사문화축전위원회 | 채륜서 펴냄 | 1만 5천원



〈큰스님, 대관령 신이 되다〉는 대관령국사성황이 된 스님, 범일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범일국사는 신라 말의 선승으로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하고 평생을 불법에 정진했으며, 현재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으로 추앙받고 있다. 덕망 높은 큰스님이 '신' 이 되었다는 이런 독특한 배경에 호기심이 인다.

살아서는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 입적 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의 수호신으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범일국사. 어떻게 한 인물이 이토록 오래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시선으로 접근하여 총 열 가지의 이야기로 엮어 내었다. 관련 사진을 풍성하게 넣어 시각적인 만족도를 더했으며 사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도 상상력을 더한 삽화를 통해 표현해 냄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범일국사는 신라 말의 선승으로 지금의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서 태어나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한 분이다. 더불어 수차례에 걸친 '국사' 의 청을 거절하고 평생 굴산사를 지키며 선종 확산에 크게 기여해 조계종 성립의 밑거름을 일군 큰스님이었으며 입적 후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원 영동 지역을 수호하는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범일국사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 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명리학 화상강의
사상 처음으로....
명리학 화상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명리학에 관심은 많지만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이제 강의실과 똑 같은 분위기로 실시간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명리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므로 다양한 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할 수 있는 직업 : 부동산이나 보험 등 각종 영업, 진로적성 컨설팅, 심리상담사, 철학원, 직업컨설팅, 결혼상담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경선생님의 강의는 유투브에서 '도경명리' 를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과목
□ 명 리 학 :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 개강일자 : 중급반, 고급반 2015년 8월 5일 수요일
– 중급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고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입문반, 초급반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입문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초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수강료 선납 시 : 6개월 수강료 75만원,12개월 수강료 150만원

도경명리학당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010-8844-4654 / 010-9664-8959
도 경 명 리 학 당
국민은행 585001-04-119718 예금주 : 김연주

관 음 수 련 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반도에 온 불교… 한국적 융합문화 발현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불교, 한반도에 들어오다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인 기원후 4세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교의 공인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각각 고대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던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로, 지역적 특성이나 국가와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대략 15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인다. 그 중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여 삼국 중 고대국가로의 발전단계가 가장 빨랐고 불교의 수용과 공인 또한 제일 앞섰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인 372년에 국가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공식법률체제인 율령을 반포하는 등 일련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당시 북조 전진의 황제인 부견이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는데, 숭불군주였던 부견은 군대를 파견하여 중앙아시아 구자국에서 활동하던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오게 만든 일화로도 유명하다.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것은 앞서 전진이 전연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외교적 보답 차원으로 행해진 일이었다.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지고 2년 뒤인 374년에는 승려 아도가 고구려로 왔고 고구려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와 이불란사가 건립되었다. 이어 391년에는 고국양왕이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고, 392년 광개토대왕 때는 다음 장수왕 때 고구려의 수도가 된 평양 지역에 9개의 사찰을 건립하였다. 또 395년에는 동진의 승려 담시가 고구려에 들어와 불교를 홍포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국왕이 주도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 불교 수용에 앞서 최소한 요동지역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불교가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 남조의 양나라 때 나온 〈고승전〉에는 고구려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4세기 중반에 고구려 승려와 동진의 고승 지둔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한반도 중남부의 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백제는 고구려보다 10여년 뒤인 384년 침류왕 때에 동진에서 온 서역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에 백제의 도읍이었던 위례성, 즉 한성(현재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 인근에 10개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이후 전개된 백제 불교의 학문적, 문화적 수준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일본)의 불교문화 형성에 미친 백제의 영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52년에 성왕은 왜에 불교를 전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승려와 와박사 등의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불교 교학과 문화를 전수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불교 수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한반도의 선진 불교국가로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삼국 중 고대국가로의 발전단계가 가장 늦었던 신라에도 5세기 전반에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등에서는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역에 있던 모례의 집에 아도 혹은 검은 얼굴의 묵호자로 칭해지는 이방인 승려가 와서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 루트는 신라가 상국으로 받들었던 고구려를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433년에 신라가 고구려 대신 백제와 손을 잡으면서 고구려를 통한 불교 전래의 길은 막히게 되었고, 대신 백제 불교의 영향이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신라에 일찍부터 불교가 전해졌고 민간에서 점차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과 종교적 독자성을 가진 귀족세력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불교의 공식 수용은 약 1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5세기 전반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 백제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였고 삼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이른 상황이었다. 앞서 396년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를 쳐서 아리수(한강) 건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하였고, 백제 아신왕은 남녀 1천 명과 포 1천 필을 바치고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백제의 58성, 700촌락을 얻고 백제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볼모로 잡아갔다. 하지만 고구려의 신민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가 3년 만에 이를 파기하고 왜와 연합하였고 백제와 동맹을 맺은 왜가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자 고구려에서는 400년에 군사 5만을 보내 왜구를 내몰았다. 신라는 그 보답으로 내물마립간이 직접 고구려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신민임을 확약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박제상(363-419)의 일화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박제상은 눌지마립간으로부터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보내진 동생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고 418년에 고구려에 가서 장수왕을 설득하여 복호를 데려왔고 같은 해에 왜로 가서 미사흔을 몰래 신라로 도망치게 했다. 이를 안 왜 왕은 박제상을 유배 보낸 후 불태워 죽이고 목을 베었다. 〈삼국유사〉에서는 그가 왜 왕의 회유를 받자 "계림(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망정 왜왕의 신하는 될 수 없고 계림의 형벌을 받을망정 왜의 벼슬과 상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박제상의 부인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치술령 고개에서 왜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어서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하며, 민간에는 그녀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후 지속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433년에 나제동맹을 결성하여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백제를 침략하여 결국 475년 개로왕을 죽이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여 요충지인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이때 신라는 1만 명의 구원병을 파병하였는데, 고구려는 481년 신라를 공격하여 7개의 성을 점령하고 신라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때는 백제가 신라를 도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고 493년 백제 동성왕이 신라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면서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후 551년에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빼앗았고, 553년 신라 진흥왕이 백제의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하면서 굳건했던 나제동맹이 깨지고 백제와 신라는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백제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해가던 법흥왕 때에 이루어졌다. 법흥왕은 즉위 후 527년에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애기 위해 신라 최초의 공식 사찰인 흥륜사를 창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찰의 건립을 반대하는 귀족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이차돈을 처형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때 이차돈의 목에서 하얀 피가 솟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며 그의 순교를 통해 결국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구미 도리사의 아도화상 동상. 아도화상은 고구려에 최초 사찰인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했고, 신라에는 도리사를 만들었다. 〈해동고승전〉에 따르면 그를 서축 혹은 오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치는 않다.

> 기원후 4세기 이전 한반도에 도래
>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수용
> 허황후 일화, 해상 통한 전래 의미
> 불교 수용으로 세계사적 확장 가져와

한편 일본에서도 불교 수용을 둘러싸고 신라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6세기 전반 무렵으로 당시 문화적 선진국이었던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다. 즉 538년(552년 설도 있음) 킨메이 천황 때 백제의 성왕이 불상과 경전을 보낸 것이 공식적 불교 전래의 시초였고, 당시 일본 정계를 주도하던 한반도 계통 도래인들이 불교수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국왕과 왕실은 불교 도입에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독자적인 조상신 숭배나 신령 신앙을 가졌던 일부 귀족세력이 정치적 기득권의 약화를 우려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이에 백제 도래인 계통인 소가씨 가문이 국왕을 도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교 수용에 반대한 모노베씨 세력을 진압하고 불교가 공식 수용되었다. 이어 일본 최초의 사찰인 호코지가 소가씨의 씨사로 건립되었고 선진 불교국인 백제와 고구려의 승려들이 일본에 초빙되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쇼토쿠 태자는 율령과 관위를 정비하는 등 고대국가의 체제와 기틀을 다지는 한편 불교가 일본에서 정착,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호류지와 시텐노지를 창건하였고 불교교학의 이해와 연구에도 일가견을 가졌다.

한편 삼국 외에도 한반도 남부 낙동강 유역에는 연맹체 국가인 가야가 1세기에서 6세기 중반까지 존재하였는데, 대륙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 남방 불교가 수용된 정황이 있어 주목된다. 〈삼국유사〉에는 가야 연맹체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 출신으로서 바다를 건너올 때 바다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는 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탑의 모양이나 재질이 매우 특이하며 한반도 밖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비록 이 설화가 김수로왕 당대의 모습이 아닌 후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방의 해상 루트를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한반도에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도 바다를 통한 이방인의 도래나 이질적 문화의 수용 사례가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제4대 군주 석탈해는 다파나국 출신이라고 하며 알로 태어나 궤짝에 담겨져 바다를 건너 금관가야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도 거두지 않자 다시 진한의 아진 포구로 흘러왔다고 한다. 이는 유·이민 출신으로 신라의 임금까지 오른 석탈해의 기이한 행적을 그린 것으로 당시 해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물의 유입이 종종 있었고 그 중에는 신라 사회의 주류가 된 이들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역사는 특수와 보편, 고유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면서 양자의 대립과 공존이 반복되며 전개되었다. 지리적, 문화적 여건상 주변부의 속성을 지닌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층 공간 속에서 문명의 수용자 및 전달자로서 기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한 보편성을 갖는 불교는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제3의 파생문화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한국적 로컬리티를 창출하였다. 불교의 수용 이래 한국은 문명의 세계사적 확장을 경험하였고 횡단문화의 교차를 통해 복합적 융합문화를 일구어왔다. 그리고 그 발단은 인도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로 넘어온 불교의 수용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사는 새로운 전환기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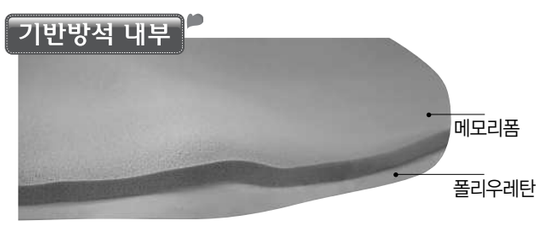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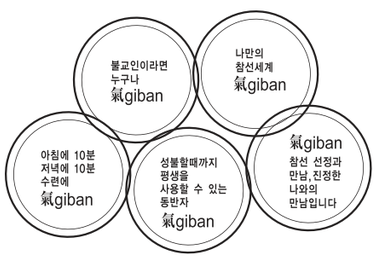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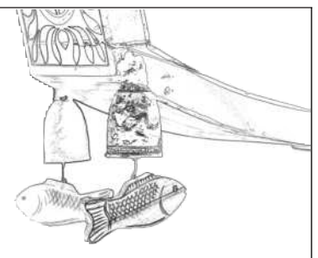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 현우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정확한 방편술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확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
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들어 드립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
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합장
010-2586-7938

영혼천도 잘하는 스님

49재, 천도재, 기타의식
대행 (바라,작법무,살풀
이,회심곡) 이 인연으로
성취하소서
보현사 011-482-2091

철학 / 천도재

실력자를 구함
포교원,부전,공양주 상담
010-5381-141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0-3774-4099

스님을 모십니다

보시받고 계시다 인연
맞으면 주지 이어 받을
40대 스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서창)
010-8503-5037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373-1125

해가 돌아가는 도력으로

산신벌전으로 식물인간 고
쳤음. 신으로 빙의로 정신
이상한 사람 고친 도력으
로 퇴마 개인지도.
신앙상담도 함
017-257-6795

물상 및 형상통변 공개강의

- 2015. 8. 1(토)
  오전10:30 ~ 13:30(3시간)
- 무승철학원(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뒤로돌아 먹자골목
  두번째 건물)

*직접 오셔서 物形통변의
진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10-5506-9457 토우 선생

원하는대로 이루는기도비법

- 내공도법을 익히면 신장도 부릴 수 있습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산중 조용한 암자)
010-4484-575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6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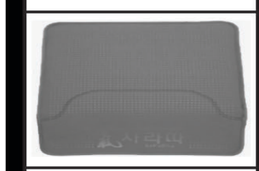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의심과 두려움 및 가지가지 장애가 있는 자는
응당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처소에서 언제나
부지런히 나의 명호를 외우며 생각해야 한다.

- 점찰선악업보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군 대산면 모산리
- 대지1,001㎡, 법당20평 외 건물 4동
- 특징 : 스님, 보살님, 명리철학 하시는 분 적합 일반인도 가능, 교통편리, 주차공간 많음, 텃밭 있고 마을 안에 있음. 집기류 일체 양도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5억(절충)

010-8988-34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충남,천안 ◎ 위치:대전시내
◎ 부지:500평 ◎ 부지:1500평
◎ 법당:30평 ◎ 건평:500평 신축
◎ 요사:40평 ◎ 납골:5000기
◎ 양도:4억5천 ◎ 양도:가격협의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사찰 급 양도
* 법당 69㎡, 요사채 73㎡, 토지 850㎡
* 논산훈련소부근 사찰. 주차장 있음
* 인수가 7천만원(융자5천만원 별도)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마 산 암 자 안 내

- 위치 :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삼존불,용왕당,에어컨 등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800만원,월세15만원 (주변임야 활용가능)

010-7169-9878

작은암자(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대지 100평, 건평 25평, 실평수 35평정도
- 신축 목조주택 임법당, 몸만오시면 됨 불사 완벽하게 했습니다
- 동네끝집 절옆으로 조용한 차도로 있음
- 가격은 1억 9천 정도이나 직접와 보시고 형편대로 절충하셔서 상의하십시다
- 꼭필요하신 분께서만 전화주십시요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급)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교당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격 : 보증금 300백, 월50만 보증금 포함 1천 5백만원 방문 후 가격절충
- 은사스님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9071-60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산세좋고 물 맑은 곳 기도하기 좋은 사찰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3억 2천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관음전,종각, 요사채
- 방총13칸,공양간,창고,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건물 총13동
- 대형버스 5대주차장, 소형차주차장 20대 등
- 가액 : 3억 9천만원(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총 1.250평
- 법당 30평
- 요사3동 75평
- 가액 : 2억원

011-370-590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70평(목조, 3포, 7포, 단청)
- 요사채 : 2동 150평
- 기타 : 종각, 천불전 등
- 가액 : 8억원
- 특징 : 서귀포 바닷가에 위치한 대가람의 사찰로 주지스님의 신변 관계로 급히 양도코져 함 타건물과의 교환도 가능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5848-0455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 (복현동 1층)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소재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 30평(1층)
- 기타 : 산신각 등
- 가액 : 2억 7천만원
- 특징 : 청주 IC에서 5분거리이며,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적지임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음성IC 3분
- 부지 1,187평, 법당 39평 삼선각 5평, 용왕단 7평
- 요사채 60평, 법회즉시 가능
- 법당 미등기
- 산세가 수려하고 정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음
- 가액: 7억 (조절 가능)

010-3708-173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3101-11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 신축건물 2년 후원 30평 법당 20평, 토목공사 완료
- 대지 500평, 밭 3필지 500
- 법당을 짓지 못하여 준공 검사 못했음
- 절앞에 청정지역 1급수 계곡 흐르고
- 재정문제로 급 양도
- 가액 : 2억 2천

010-5424-4969

사찰싸게(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9평, 법당 23평 조립식
- 주택-한옥 및 양옥 35평
- 지하암반수 50미터, 수목, 담장, 대문
- 가액 : 2억 2천
- 2016년 복선 전철개통(상반기) 남이천 IC개통 2015년 말
- 비구니 수행도량 최고, 시내 5분거리(자가용)

010-2813-1381
010-3194-3738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주 인근, 옥과면
- 사자봉 적송림 7부능선
- 산 : 1만2천평, 종교부지 650평 노천 약사석불12자
- 건물 : 조립주택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인근 초중고, 대학교 있음
- 가액 : 3억 7천만원, 조건부협의가능

010-8224-16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감전시장 옆 새벽시장과 감전시장이 바로 인접한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 명리공부하신 스님 최적!
- 평수: 38평, 3층 건물 3층
- 법당:삼존불,약사불,신중,영단 후불 금탱화,친견실,방,공양간,소형창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236-1808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평수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2칸, 화장실, 옥상사용가능
- 1층 공양실 20평,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010-4858-5377

암자임대 및 안내

- 위치 :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지리산 입구 청정 기도 도량
- 법당 1칸, 방사구들방 1칸
- 공양간, 해우소 현대식
-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 1억 3천, 임대 5천만원
- 양도시 절충가능, 암자옆 계곡 있음
- 방향 정남향 기도하며 수행하실 분 최적지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남포5가88번지
- 5층 건물 중 4층 150평
- 원불 380불, 상단 아미타, 관세음, 지장
- 신중단(인등), 영단, 강의실 등, 단청
- 사진 전송 가능
- 가액 : 전세3천만(변경가능) 월세 250만원
  시설비 7천만원(특A급)

010-4564-4428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친환경 삼베타올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15평, 대지 약 240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시설비 일체 없음
- 보시고 결정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35만원(수정가능)

010-8620-8889

마산 암자 안내

- 위치 :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삼존불,용왕당,에어컨 등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800만원,월세15만원 (주변임야 활용가능)

010-7169-987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남포동 영주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공유지 포함 약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행도량으로 최적지
- 가액:1억 6천5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포함)

010-3895-2258

포교원안내

- 위치: 김해시내요지
- 평수: 50평
- 3층건물중 1층, 부처님5존불, 법당장엄함, 쑥찜질방2칸, 쪽방2칸, 큰 거실 있음
- 전세 8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65-720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수원시 정자동 (대단지 아파트 상가)
- 면적: 32평(3층 중 2층) 시설최상 시설 일체 완비
- 양도 :1억 6천 (대출 4천포함) 시설비포함
- 전세 7천5백 (보증금4천5백 시설비3000) 월세 : 보증금 4천 월45만원
-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 전답 3000여평
- 가옥 60여평 한채 토지조성 완비 대형차 진입가능
- 사계절 물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곳 주변 경관 좋음
- 가액 : 4억

010-6253-310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사 찰 안 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서울시 노원구, 건평: 40평중
- 4층 : 법당, 5층 : 요사채
-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 협의후 절충 가능
- 주변이 산과 아파트 단지로 20여년 운영중입니다

010-5237-0408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5〉 잘못된 삶은 없다 ㊦

외로움의 고통 벗어나 '고독' 누려라



병에서 비롯된 '고립'
고통으로 느낄 때 외로움
고독은 영적 수행 필수
외로움 속 고독 평안 찾아야

고립이 주는 고통

모든 인간 존재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던 계획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리에 누워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엄청난 도전일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공동체에 매우 큰 가치를 둔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상가(승가)' 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본래 붓다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불교 승려들을 포함하는 말로 바뀌었다. 오늘날 승가는 깨달음이나 해탈의 길로 가는 수행자를 돕기 위한 영적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 많은 불교도들은 승가가 그들의 영적 추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의지처라고 말한다. 그들은 승가에 귀의한다고 말한다.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 해도 영적인 삶에서 승가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아프기 전에 나는 몇 가지 불교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토니와 함께 매주 명상 모임도 열었다.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 모임을 지도하고 강의를 하곤 했다. 매달 우리 집에서 모임도 가졌는데, 토니나 내가 선정한 깨달음과 진리에 관한 책들을 읽고 토론을 했다. 책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해 지난 모임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며 웃음 섞인 활기찬 두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나에게 첫째가는 공동체였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북부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온 명상교사들이 이끄는 일일 명상 프로그램에도 자주 갔었다. 그리고 나는 일 년에 두 차례씩 앞에서 말한 많은 명상교사들이 지도하는 열흘간의 침묵 명상 수행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난 후에는 이런 활동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었다. 나는 소중한 영적 의지처의 근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낮을 따라다니는 밤처럼 나의 병에 따라다니는 사회적 고립감에도 적응해야만 했다.

"내 병의 영향과 고립의 영향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나와 비슷한 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인터넷 모임에서 어느 회원이 이렇게 썼다. 나 역시 고립 자체가 병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 집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일대일의 개인 접촉으로부터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으로부터, 심지어는 다정한 사람들의 따뜻함으로부터도 고립된다. 우리에게는 변화하는 계절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병원 진료를 위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스트레스로 가득한 외출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편안하지도 않고 희망을 주는 무대도 아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는 어느 여성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녀는 단지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 일주일이나 일찍 혈액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썼다.

우정이라는 주제는 만성병 환자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사람들과 나누던 나날의 교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나로서는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직장을 잃은 것보다도 훨씬 힘들었다. 가슴속에서 한때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로 채워졌던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 고통이란 다름 아니라 그토록 많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은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통이었다. 만성병 환자를 위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

"친구들이 서서히 없어졌다."

만성병은 몇 가지 이유에서 우정에 큰 타격을 준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된다. 예정된 모임 날에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종종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20분이 고작일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러 오기 위해 운전하는 시간보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 주변에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 믿으며, 우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하고 놀았던 사람들과 아픈 이들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이유들을 모두 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우정을 쌓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때 고립 상태에 적응하기가 덜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경험 이외에도 '건강하게 사는 법' 에 대한 온갖 충고에 직면해야만 한다.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모두 좋다고 말하는, 그러면 고립감에 걱정이 보태진다.

외로움과 고독 사이

많은 만성병 환자들이 친구를 잃은 데다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어 고립되고 그 상태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병이 난 후, 고립 자체가 중립적인 상태임을 내가 깨닫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렸다. 사전에는 고립이 '홀로 있는 상태' 로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 설명에 '고통스러운' '슬픈' '힘든' 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그것이 발병 초기에 내가 경험한 고립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고립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붓다가 세 번째 고귀한 진리에서 전달한 반가운 소식을 기억하라. 그것은 마음속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폴 틸리히(독일 출신의 미국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영원한 지금 The Eternal Now》 중 일부를 살펴보자.

"언어는 (중략) 홀로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 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 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홀로 있음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꿀 때 이 말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나는 우리 딸과 함께 나눈 바이런 케이티의 기법으로 돌아갔다. 바이런 케이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딸의 운명을 생각하며 줄곧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서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는 여인' 이라는,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만을 되뇜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멈추었고 딸이 돌아올 때까지 다만 기다릴 수 있었다.

폴 틸리히의 통찰과 같은 맥락에서 나는 바이런 케이티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홀로 있는 상태' 인 고립을 살펴보았다. '집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여인' 혹은 '방 침대에 홀로 누워 있는 남자' 처럼 고립되었다는 똑같은 사실에 외로움이라는 정신적 상태가 따라올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고독이라는 정신적 상태가 따라올 수도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몸이 허약해진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가장 끔찍한 빈곤이라고 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배우자는 이 병을 '말도 안 되는 병명에서 비롯된 가족과 친구들의 오해와 더불어 극심한 고립감 때문에 매우 외로운 질병' 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고립으로 인해 소중한 고독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소중히 여긴다. 고독 덕분에 자신의 삶을 좀 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병 환자를 위한 인터넷 모임에서 어느 여성은 고립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고립이란 아무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독이 영적 수행의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인터넷 모임에서 다른 여성은 "고독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신에게 다가가는 모든 종교 교파에서 실천하는 것" 이라고 했다. 우리 문화가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몇 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독의 문화는 확실히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것이 영적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홀로 있음의 평온함

아주 많은 시간을 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 홀로 있음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은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립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거기에다 지금 상태 이외의 다른 것을 바라는 욕망을 더한다. 이를테면 동반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상태와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받는다. 그것이 붓다가 말한 두 번째 고귀한 진리이다.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라는 것이다. 바이런 케이티의 기법은 여기서도 도움이 된다. '집 안에 홀로 있는 사람' 처럼 당신의 몸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욕망을 보태지 않으면서 그 홀로 있음 속의 평온함을 맛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슬프다' 혹은 '고통스럽다' 라는 단어가 자기 삶의 고립 상태에 반드시 따라올 필요는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01년에 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는 바이런 케이티가 제시한 이토록 귀중한 도구도 없었고 폴 틸리히의 말도 알지 못했다. 나는 외로움의 '빈곤' 으로부터 고독의 '영광' 으로 가는 여행을 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4년이나 걸렸다. 처음에는 고립과 외로움이 같은 말이었고 나는 깊이 고통 받았다. 급성질환 상태이던 초기 6개월이 지나고 나자 친구들이 나를 보러 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토니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토니는 다른 볼일이나,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활동이나, 아이들과 손녀 멀리아를 보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일로 여전히 바빴다.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그리고 많이 울었다.

그러던 중 2005년 어느 날 한 오디오북을 듣게 되었다. 앤 패커가 쓴 《클라우젠 부두에서 다이빙하기 Dive from Clausen's Pier》였다. 어느 부분에서 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한다.

"외로움은 참 재미있어. 마치 어떤 사람 같아. 네가 허락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너를 따라다닐 거야."

이 짧은 세 문장을 듣고 나자 순식간에 내 마음과 가슴이 열려서 홀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고립을 친구로서 더 잘 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외로움의 고통은 고독이라는 훌륭한 동반자로 바뀌었다.

물론 내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에는 고독의 영광 속에 무척 기뻐하다가 어떤 날에는 너무도 외롭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린다. 외로움을 극복할 때 나는 두카라는 첫 번째 고귀한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에서 설명한 수행법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고통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프지 않은 사람조차 외로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조코 벡의 가르침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 순간 내가 외롭더라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런 다음 날씨 명상으로 옮겨 가도 된다. 외로움이라는 마음 상태가 다른 모든 것처럼 영원하지 않음을 나 자신에게 일깨운다. 그것은 불어왔다가 곧 불어 나가서 아마도 고독의 평온함으로 대체될 것이다. 네 가지 거룩한 마음 상태를 연습하면 우울한 시기 동안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그리고 바이런 케이티의 질문을 이용하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생각이 타당한지 살펴볼 수 있다. 그것들은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 혹은 '나는 언제나 쓸쓸할 거야.' 처럼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생각들이다. 이와 같은 불교 수행과 불교에서 영감을 받은 수행들은 고립이라는 중립적인 상태를 외로움의 절망에서 고독의 평온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언제나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끝〉 정리=박아름 기자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만해 한용운 스님

만해의 붉은 눈초리와 살아있는 정신

최근 한국 전통의 한지를 찾기 위해 전주 완주 임실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나는 전통한지의 원형을 찾고자 30년 이상 한지 제작현장을 방문했고 지장들의 생산품을 수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답사는 달랐다. 내 개인의 지적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전통문화 복원과 현실화에 대한 관심에 의해 실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자문은 현 정부가 전통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부처가 한국문화에 대한 전통성과 문명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다만 이런 관심이 진작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까웠다. 현장방문은 한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전통문화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생각하게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실도 목도해야 했다.

전통문화는 자기철학 자기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한지 제작 현장에서 만난 장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도 약했고 가치도 몰랐다. 나아가 전통 한지원형 복원과 재현에 대한 의지도 거의 없었다.

전통한지 제작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정통성은 미약해 보였다. 한국고유의 방식이 아닌 외래적 요소가 다분했다. 그리고



탁주에 발을 씻다. 64×94cm.종이에 수묵. 2013(부분도)
한용운님의 '파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실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사회의 병폐다. 만해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 만해는 저자거리에 있지만 위대해
> 스님 시의 핵심은 역설과 모순
> 현실 돌파해 나가는 예술 보여줘



길고 긴 잠. 186×94cm. 종이에 수묵 담채. 2015
만해의 눈은 항상 빨갛다. 사람의 고통이 있는 곳에 항상 만해의 붉은 눈초리가 필요하다.

한지의 최고 가치인 서화용 종이보다 문종이 생산에 그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천년 한지의 빛나는 광택은 찾기 어려웠다. 참담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한국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는 가짜 전통이다. 한지를 만드는 재료와 도구 그리고 후처리 방식 모두가 국적이 모호하다. 식민지 시대부터 변화한 일본방식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 고유의 재료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산지와 분포 그리고 생산 가능한 양 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공무원과 연구자도 거의 없다.

일제 강점기 이후 파행으로 치달았던 전통 원형이 최소한 일본 지배 이전의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언하기 싫지만 한지 제작현장은 분명 일본 문화의 또 다른 이식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한지 답사 현장에서 불현듯 만해가 생각났다. 수입산 닥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파리 똬를 보면서 만해가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살아있는 한국의 정신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시는 언어의 정수다.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소통시킨다. 표현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시는 사상의 핵심이다. 아니 사상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동물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깊은 세계는 마음의 심층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는 당대의 윤리. 제도를 훌쩍 뛰어 넘는다. 양심의 소리로 바라본다. 그래서 시인은 진리와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만해 한용운, 분명 그는 우리시대의 돌올(突兀)한 선각자이다.

자기 진리를 위해 변절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과 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사람이다. 그의 시는 시대에 갇히지 않고 시대를 뛰어 넘는다. 지금시대에도 낡아 보이지 않는다. 당대에 소환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 살아 있다. 예술의 생명력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를 종교시인으로 가두어서 안 된다.

만해 시의 핵심은 역설과 모순이다. 이 역설과 모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의 시를 이해하는 바로미터이다. 만해는 시를 통해 대립하는 통일을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미학은 전통만으로 안 된다. 오늘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전통이 없다.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예술이고 예술가다. 만해는 저자거리에 있지만 위대하다. 만해의 상기된 붉은 눈초리가 늘, 어디서나 필요한 이유다.

파 리

한용운

이 적고 더럽고 밉살스런 파리야.
너는 썩은 쥐인지 만두(饅頭)인지 분간을 못하는 더러운 파리다.
너의 흰옷에는 검은 똥칠을 하고검은 옷에는 흰 똥칠을 한다.
너는 더위에 시달려서 자는 사람의 단꿈을 깨워 놓는다.
너는 이 세상에 없어도 조금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다.
너는 한 눈 깜짝할 새에 파리채에 피 칠하는 작은 생명이다.
그렇다. 나는 적고 더럽고 밉살스런 파리요, 너는 고귀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어염분 여왕의 입술에 똥칠을 한다.
나는 황금을 짓밟고 탁주에 발을 씻는다.
세상에 보검(寶劒)이 산같이 있어도 나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설렁탕 집으로 궁중연회(宮中宴會)에까지
상빈(上賓)이 되어서 술도먹고 노래도 부른다.
세상 사람은 나를 위하여 궁전도 짓고 음식도 만든다.
사람은 빈부귀천(貧富貴賤)을 물론하고 파리를 위하여 생긴 것이다.
너희는 나를 더럽다고 하지마는너희들의 마음이야말로
나보다도 더욱 더러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없는 죽은 사람을 좋아한다.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 A (50개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불자 세상보기

인성교육법 시행과 불교계의 역할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그간 교육계의 핵심쟁점이 되어 왔던 인성교육법이 7월 21일 시행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 뜨겁게 점화되고 있다. '인성'을 교육하는 문제를 법제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론부터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긍정론에 이르기까지 여론은 다양하다. 물론 인성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회의론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법제화란 국가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법제화는 교육의 특수 영역을 국가질서 속에 강제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성교육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교계의 경우 보다 긍정론 적 관점에서 그 기여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최근의 교육현실은 복잡계(complex system)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복잡계적 이론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창발 하는 모든 현상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보다는 다종다양한 이유와 결과들이 상호 착종(錯綜)을 통해서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계 이론은 혼돈(chaos)의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있지만, 불교의 교리와도 상당부분 일치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잡계 이론은 불교와 교육 그리고 현실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해줄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불교계가 제안해야 하는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이러한 복잡계 이론으로부터 그 구성의 체제를 시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불교의 교리와 교육적 일반 논리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불교계의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불교의 교리에 기반을 두지 만 일반 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차용이 가능한 현실적 내용성을 갖춘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성교육 모델을 완성하려면, 종래 불교계가 진행해왔던 인성교육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그동안 청소년 법회나 수련회, 사찰순례 혹은 템플 스테이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적지 않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리고 불교계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육적 기여와 사회적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불교계 학교나 사찰 등이 이번 인성교육 법제화를 계기로 실질적인 기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의 접근방식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교계가 시행해왔던 인성교육의 방식은 진리의 영역으로 학생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최고의 가르침으로서 종교(宗敎)의 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종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끄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인성교육법 시행을 통해서 제기된 인성교육의 방향은 법의 시행취지 자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목적과 특징을 지닌다. 세속적이라 함은 먼저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학생의 품성을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새로운 불교계가 제안해야 할 새로운 인성교육의 모델은 세속적인 영역인 교육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리에 학생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계 이론은 불교의 화엄장(華嚴藏)의 사유체계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략이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학생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심어 주겠다는 바람, 단선적 인과론에 입각한 논리적 설명방식이나 교훈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계의 인성교육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타인과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이익과 행복을 얻는 첩경이라는 것을 자각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불교계 인성교육의 모델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현실과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자각과 실천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언대

불교통일선언 과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7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2015 불교통일선언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에 주요 참가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진정한 마음의 통일 필요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통일을 해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 분열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동질성 회복'만 강조할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질성 공존'을 통한 민족 통합을 꾀하는 새로운 통일 노력이다.

새로운 통일의 노력에는 '마음의 통일'을 위한 불교계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분단 70년 세월동안 사고방식, 지식, 정서 등 많은 것이 이질화 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음의 통일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며 시급한 과제들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 구체적 실천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의지처에 공백이 생긴다. 이 부분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다. 의지처를 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의지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당장 북한 주민의 종교적 견해와 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도적 원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교 가르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독자적 교류 사업 이뤄져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반목한지 어느덧 70년이 됐다. 분단체제의 공고화와 분단구조의 재생산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5 · 24조치 등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남북교류 전면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불교교류협력 뿐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 대북지원도 중앙정부 통제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즉 정부는 대북교류를 지자체 · 종교 및 시민단체 자율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교계 차원에서도 독자적 교류협력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불교문화유적 공동발굴과 보존사업, 평양에 불교문화원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전통종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교계 차원 통일기금마련이 시급하다.

선언의 실천력 요구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2015불교통일선언 발표 그 자체가 이미 성과다. 그러나 선언이 의도한 바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대한 의지와 행정력이 관건이다. 이는 전적으로 종단의 몫이다. 한반도통일선언 주체는 분단인과의 종결, 70년 세월의 중압감,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 그리고 국제문제의 해법까지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언에 창조성과 현실감, 미래지향성이 결여된 아쉬운 점이 있다.

선언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존, 상생, 합심'에 의한 통일론을 펴고 있다. 이는 남북은 물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덕목임에는 틀림없으나 보다 심층 · 광폭적인 구현방법과 내용이 제기됐어야 한다.

이밖에 화쟁사상을 통일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성이 읽히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호국'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선언문이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호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달리 '호국불교'는 대부분 전쟁과정이나 전쟁 이후 역사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社說

불교방송 신임 사장에게 거는 기대

BBS불교방송 9대 사장에 前 보도국장 출신인 선상신 씨가 선임됐다. 7월 22일 서울 가든호텔서 열린 92차 이사회에서 선 후보자는 21명 이사 가운데 13표를 얻어 신임 사장에 당선됐다. 선출 직후 선 사장 내정자는 불교방송 개국 당시의 벅찬 감동을 재현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는 공채 1기 출신으로 대기업에 다니다 불교방송에 입사했다. 내부 공채 출신이 불교방송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창사 25년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방송국 내부 직원들이 선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얼마 전까지 함께 동고동락 했던 동료였기 때문이다. 당선 기쁨도 잠시 선사장 앞에는 풀어야될 큰 숙제가 산적해 있다. 불교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진 방송 미디어 환경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감하는 라디오 광고 수익이다. 여기에 뿌리깊게 박힌 구성원들의 갈등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회사의 미래에 비젼을 느끼지 못한 젊은 인재들의 이탈도 막아야 한다.

이런 어려움들을 선 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끌며 해결해야 한다. 직원이 이견을 드러내고 갈등이 노정되면 희망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수익 모델을 창출해 경영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 다양한 포교 방송 컨텐츠도 양산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 사장이 25년전 공채 1기로 뽑혔을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방송은 우리 한국 불교계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전파포교매체이다. 그가 내세운 '부처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글로벌 미디어'란 비전이 임기 동안 잘 펼쳐져 다시한번 불교방송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

조계종, 중점 과제에 힘을 쏟아야

조계종은 7월 21일 비공개로 '불기 2559(2015)년도 제34대 중점 종책과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를 살펴보면 조계종은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기획실이 총평을 통해 살핀 주요 성과를 보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세계평화기원대회, 해외구호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있다 반면, 현 집행부 중점 과제인 중앙 · 교구 균형 발전, 총본산성역화 사업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 의견을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에서도 대중공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하반기 '불교사회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더욱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중앙 · 교구 균형 발전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상반기에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종책 사업들이 등안시 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보고회에서도 세계 대회 당시 종무원 차출로 빚은 업무 공백 등도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브리핑을 통해 밝힌 대로 총본산성역화사업은 예산 확보와 사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공약이었던 중앙 · 교구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중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하반기로 계획된 승가 청규 제정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교육원에서 새로운 청규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한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쇄신위원회에서 성안한 승가청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대로 된 청규를 만들어 종도들이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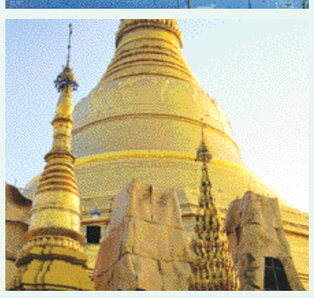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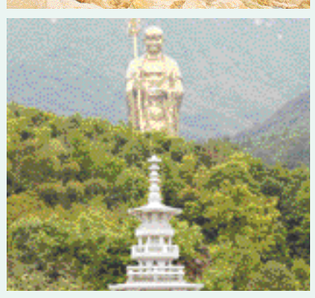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헤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피부의 보습, 영양공급에 탁월한 황칠나무 성분 함유된... 화장품의 명가 고려 한백이 만들었습니다

한백 소온 황칠 화장품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Soon 韓方 황칠

불자님들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황칠나무란?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황칠나무는 영양이 풍부하여 나무인삼이라 일컬어지며 예로부터 풍부한 영양과, 향취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황칠나무는 콜라겐 합성, 항산화제 작용이 탁월하고 수용성 탄닌의 함량도 월등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원료로 피부보습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요인이며 황칠나무는 이 아미노산을 15종이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옻칠이 천년이면 황칠은 만년'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듯 황칠의 금빛은 황제의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료의 특성에 한함)



≫ 황칠나무 성분으로 개발된 소온 황칠 화장품의 특징

(1) 피부 미백, 피부 주름개선, 피부 보습
(2) 외부환경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해 줍니다.
(3)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메마른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4) 첨가된 향이 심신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도와줍니다.

≫ 구성 4종 1set 590,000원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전 품목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 스 킨 :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으로 피부 보습 및 수분 공급을 통한 촉촉함을 유지 해줍니다.
(2) 로 션 :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생기와 활력을 유지 해줍니다.
(3) 에센스 :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으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해줍니다.
(4) 영양크림 : 미백 및 주름개선과 동시에 피부탄력과 윤기를 더 해줍니다.
● 개별 상품 구매 가능합니다. (스킨 7만원, 로션 8만원, 에센스 16만원, 영양크림 28만원)
● 4종 구성 외 샘플 추가해 보내드립니다.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 (주)케이에이치 / 기술제공 : (주)덕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136-37-04-004167 예금주 : 주식회사 덕진
■ 주문 후 입금 확인하여 택배 발송하여 드립니다. (주문 후 3일 소요)
■ 문의 및 주문 :
(주)덕진 02-3674-5704. 010-6856-3313
※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해 드립니다.

“피안행의 길에서 만난 염불수행…

전국염불만일회 안동일 회장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 1940년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안동일 회장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며 4 · 19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통일과 노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운동을 하다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안동일 회장은 10 · 26사건의 김재규와 KAL기 폭파범 김현희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인권운동 이후 1993년 부친 타계를 계기로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를 시작, 본격적인 불자의 길을 걸었다. 1994년 조계종 법률고문을 맡으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염불만일회, 붓다클럽, 중앙신도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으로 염불정진을 이끌고 있다.

염불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간절히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수행이다. 매순간 혼란하지 않는 한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다 보면 세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러한 일념 수행은 개개인에 그치지 않고, 수행에 매진하는 공동체에게까지 번져 결국 일심 정토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불교계가 혼탁할 때마다 염불결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중 ‘염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라 758년 발징 스님이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시작한 이래 조선 1802년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구성돼 한국불교를 쇄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많은 염불결사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를 들 수 있다. 1998년 건봉사에서 시작한 이후 이들은 매년 한차례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 철야정진에 든다. 6200여일을 맞은 7월 25일에는 예산 향천사에서 제18차 정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대회에 앞서 후반기에 접어든 만일결사를 이끌고 있는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75 · 관해)을 만났다.

염불만일결사의 20여년 산증인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 故김재일 법사와 함께 전국염불만일회를 이끌어온 염불정진사의 산증인이다. 2008년 김재일 법사가 타계하자 안 회장은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 염불만일회 등을 이어받아 이끌었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등은 현재 내려놓았지만 그 모태인 전국염불만일회는 직접 챙기고 있다.

“김 법사는 마지막으로 동산이 흔들림없이 재가교육도량의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산은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불만일회는 회향하는 날 까지 뒷바라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염불만일화의 18차 정진대회가 열린 향천사는 안 회장과의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안동일 회장은 대부분의 불자들처럼 어머니 대비심(大悲心) 보살의 영향이 컸다. 예산 향천사로 어머니를 따라간 안 회장은 보산 스님을 친견하고 대추씨로 만든 단주를 선물받았다. 그 것이 불자로 발을 딛는 시작이었다.

이후 안 회장의 마음 속에는 이 대추씨가 불심의 씨앗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청담 스님과 황산덕 교수, 서돈각 교수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안 회장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본격적인 불자로의 길을 걷는다.

1993년 부친의 타계가 계기였다.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 였던 아버지의 죽음은 안 회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마음을 추스르고자 송광사로 단기출가한 이후 안 회장은 불교가 궁금해졌다. 안 회장은 상경해 무작정 조계사로 향했다. 조계사로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당시에는 김재일 법사가 조계사 앞에 동산불교대학을 열어 2년의 불교교육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안 이사장은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불교대학 3기를 졸업하고, 재가불자 모임인 붓다클럽 초대총재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던 때라 수업에 빠지게 되면 강의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구해 보충했습니다. 허탈감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불교공부에 완전히 빠져버렸지요. 그 전 참선 · 사경 등으로 다양한 수행을 해왔던 안 회장이 염불수행에 본격 매진한 것도 이때다.

“김재일 법사가 염불수행을 권했습니다. 공부와 수행은 병행해야 한다구요. 염불 수행에서는 믿음과 함께 실천 수행을 강조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발원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가짐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필요한 수행이었죠.”

안 회장은 김 법사와 뗄 수 없는 인연이었다. 이후 함께 한국재가불자연합을 만들고 염불만일회를 결사했으며, 붓다클럽도 창립했다.

1993년 부친 타계 계기, 불교 입문
종단 법률고문 등 격변기 안정 기여
98년 개혁 당시 법 근거 사태 수습
“중도 가르침, 법치주의에도 적용돼”

故김재일 법사 영향, 염불결사 입재
김 법사 사후 동산반야회 시스템구축
염불 보리심으로 대중교화 서원

매일 아침 108배와 1000염불 정진
2025년 12월 21일 정진회향 다짐
최근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한국인 정신의 구심점, 불교가 맡아야”

염불수행 · 108배 매일 아침 실천

안동일 회장은 “불교를 접하며 평생 염불로 보리심 일으켜 중생의 행복을 이끌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염불만일회 만일결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염불만일을 발원한 것은 1만일만 염불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 마디로 평생 염불하자는 것으로 만일결사가 2025년 12월 21일 회향하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하루의 시작을 염불로 맞이한다. 여기에는 동시에 108배도 진행된다. 하루에 시간 나는대로 염불을 해 1000번 이상 한다. 매일 새벽에는 달라이라마가 암송하는 기도문을 따라하고, 취침 전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즐겨 듣는다.

“바닷물에 돌을 던지면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지만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깊이 수행이 된 이는 어떤 비난이나 언사에도 동요가 없지만 수행이 덜 된 이는 곧잘 화를 내죠. 수행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 회장은 “제 수행에는 다섯가지 목표가 있다”며 “첫 째는 매일 1000번 이상 염불, 둘째는 매일 108배, 셋째는 매일 독경, 넷째는 월 1회 이상 봉사활동, 다섯째는 매월 일정액 보시 등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 회장은 바람직한 염불 방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안 회장은 “염불의 염은 이제 금(今)자와 마음 심(心)의 합성어로 지금 이 마음을 부처님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라며 “전국염불만일회의 경우 아미타경의 육자염불을 주로 염송한다”고 소개했다.

안 회장은 “신심을 가지고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통일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다. 단체로 염불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염불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염불은 하근기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쉬우면서 가장 빨리 부처님께 다가가고,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다른 수행을 하는 분도 염불수행으로 꼭 정진하시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적 가치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신행활동이 바탕이 되어서일까. 법조인으로서 안동일 회장의 활동에서는 꾸준한 수행의 내공이 여실히 드러난다. 안동일 회장은 10 · 26 당시 김재규 변호와 함께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대도 조세형 사건 등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이던 1987년에는 전두환 前대통령의 4 · 13호헌 조치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라는 비판성명을 내 피신하기도 했다.

“모든 사건에서 연기와 인과응보, 중도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이어져 있지요, 그렇기에 법조인은 더욱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구현에 철저히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안 회장은 “불교적 가치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한 지혜의 보고”라며 “보이는 쪽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쪽도 헤아리는 중도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법조인은 공인이기에 어느 직업보다 지사적(志士的) 성격이 강한 선비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장사꾼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교두보 역할을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 고문변호사로 대소사 관장

안 회장은 1994년부터 조계종 법률 고문을 하며 많은 불교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조계종 총무원사 점거 사태 당시 법적 처리였다.

“모든 법은 목적도 중요시하지만 절차도 중요시합니다. 98년 사태가 그 경우였습니다. 당시 개혁회의 측이 총무원사를 점거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정진으로 회향의 삶을”



2012년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린 전국만일염불회의 정진대회 모습. 대회에는 3000 여 불자들이 매년 참여한다.



2003년 안회장이 주도한 불자모임 붓다클럽 창립당시 모습.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안동일 회장 (사진 왼쪽)



2008년 동산반야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안동일 회장

았습니다. 대중들 중에서는 폭력으로 뺏겼으니 다시 폭력으로 뺏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총무원장 직무대행이던 도법 스님은 제 의견을 좇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안 회장은 법원의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공권력의 힘으로 총무원사를 다시 접수했다.

이런 법조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안 회장은 2012년 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상인 ‘명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한국재가불자연합회 상임회장,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중앙신도회 고문 등도 맡고 있다.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세워

최근 안 회장은 또 다른 서원을 세운 상태다. 바로 달라이라마 방한이다. 2014년 7월 출범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에 동참한 안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달라이라마와 인연을 쌓았다. 홍콩 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보고 직접 친견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고,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로 향했다.

여기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티벳 금강경 법문을 들었다.

“나란다 대학에서 범어본 금강경 강독도 감동스러웠지만, 달라이라마의 내공을 담은 법문은 마치 정수에서 쏟아붓는 관세음보살의 관정의식 같았습니다. 이웃 일본은 매년 달라이라마 초청법회가 열립니다. 가톨릭 교황을 초창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회장은 “중국마저도 입장이 변하고 있다”며 “한국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외에도 법륜고문을 하며 월주 스님, 고산 스님, 법장 스님, 지관 스님 등 역대 총무원장 스님의 지척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는 불교와의 인연”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티베트인들이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뭉치듯, 한국 또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현대에 불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부처님의 탄생게에서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멸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달라이라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행복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월호 등 다양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불자들이 함께 이 사회와 국가를 불국정토화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재가불자 “‘참회’에서 시작

안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고 가르쳤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정한 신앙심으로 불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회장은 “법회를 시작할 때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암송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모두가 근본으로 돌아가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불교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불교가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데에는 불자들 개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원래 불교는 4부대중인데 종단 집행부를 보면 최근에야 비구니 자리가 하나 있을 뿐이고, 재가자의 자리는 아직까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재가자의 책임이 큽니다. 기복신앙을 불교로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재가자들도 기복이 아니라 중생제도를 위해 각자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불교발전을 이루리라 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보리심 일으키면 아이도 성불하니

일산의 행복문화연구소에서는 아침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매일 아침 6시 자비도량참법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3명이 헐레벌떡 달려온다. 무릎이 닳도록 오체 투지하고 목이 쉬도록 염불하고 나면 소참 법문 시간이 된다. 그럼 이 선재 동자들과 함께 참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신심 난다.

“자재 법우는 왜 아침 6시에 와서 자비도량참법을 하니?”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 극락에 태어나고 싶고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천진한 모습에 함께 정진하는 동참 대중들은 절로 웃음이 난다. 또한 이 소참 법문은 녹음되어 전국 각지에서 함께 참법 정진하는 대중들에게 매일 공유되니 5명의 선재 동자들은 사랑받는 대중의 스타가 되었다.

자재 법우는 중학교 1학년인데 동생 위광 법우와 사이가 많이 안 좋다. 이미 오래된 원결이 서로에게 맺혀 있다. 이러한 자재 법우와 소참 법문 시간에 발보리심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이미 보리심을 일으켰으니 자재 보살님이 된 거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재 보살님, 일체중생에 당연히 동생 위광도 포함되는 거지?”

발보리심하여 환하게 빛나던 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정말 즉각적인 반응인데, 환하던 얼굴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눈치챌 만큼 빠르게 검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올 것 같아서 보리심 일으킨 공덕을 찬탄해주면 다시 마술처럼 얼굴이 밝아지니 이 얼마나 솔직하고 천진한 모습인가!

어느 날 자재 법우가 개인상담을 요청했다.

“스님, 동생과의 원결을 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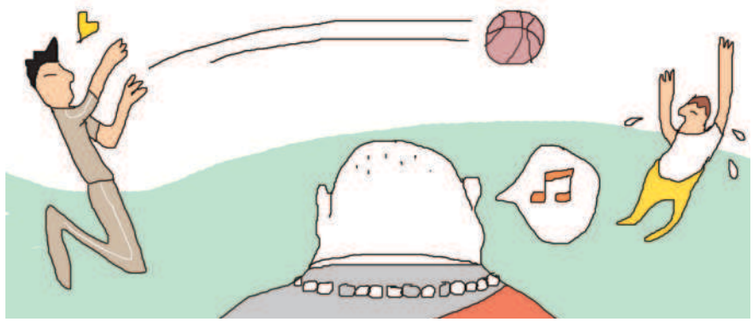
“조언해주는 대로 실천할 거지?”

“네.”

“자재 법우님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 첫째는 자비도량참법을 더욱 열심히 해서 네 마음속 동생에 대한 원결을 풀어야 되고, 둘째는 동생에게 오늘부터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기 위해 노력해서 동생을 자비도량으로 데리고 와야 돼. 알겠지?”

“네.”

자재 법우에게 동생은 원한의 대상이다. 그를 향한 분노에 자주 휩싸인다. 아무리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행보리심을 실천해도 이 깊은 원결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원결 맺힌 상태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 자신의 행복과 일체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원한의 관계를 풀고 싶다. 그래서 참법에 의지해서 보리심을 일으켜 동생과 함께 자비의 도량에 머물고 싶다.


그림 · 박구원

동생에게 원한을 품은 ‘중생심’과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보살심’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동참대중들은 항상 목격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중생심 VS 보살심’의 줄다리기는 수행하는 이들에게 보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과연 자재 법우님의 줄다리기는 중생심, 보살심 누가 이길까?’

소참 법문을 듣는 모든 대중들은 아마도 보살심이 이기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원이 자재 법우님의 보리심을 키우는 촉매 역할이 되었을까? 최근 자재 법우가 동생을 대하는 모습, 자비도량참법에 임하는 자세, 일상생활의 모습과 행주좌와 간의 삼업이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 이제 곧 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참회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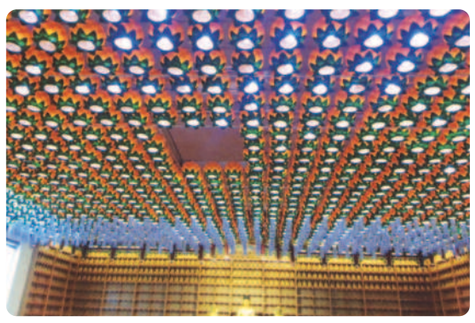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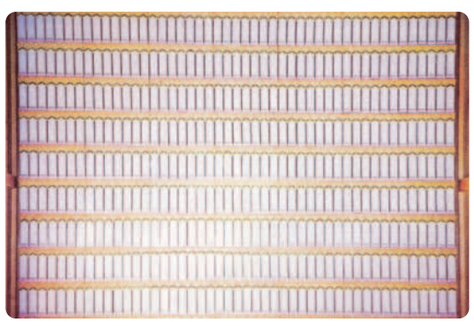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로부터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생겼습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다는 의미

질문 제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무량하고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무의미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큰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읽다가 "일체 중생들이 나로 하여 세상이 있는 것을 안다면 무량 공덕을 얻느니라."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소견으로 볼 때, 어떻게 객관 세계가 저로 하여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선법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참 도리가 있어야 하고, 생활에도 도리가 있어서 중심과 중도, 중용이 있듯이 부처님 법을 진짜로 전수받고 정각을 이루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태어났다 죽고 죽었다 태어나는가 하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봄이 되면 피었다가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 더 차원을 높이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100%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인간은 됐으나 100% 인간이 돼야만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를 탄생시키면 인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100%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덜 된 분이 있고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즉 견성은 했어도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습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기만 하면 또 뭘 합니까?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이 목마를 때 떠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똑바로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글자 하나만 틀리면 모든 것이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가 틀려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현실로 느끼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것은 활구인 것입니다.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도리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이 방대하지만 삼세를 돌아가면서 병풍 둘러친 듯 한 이 세계, 우주 자체가 아마 팔만대장경 못지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에 고정됨이 없이 다 쓰여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글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 그리고 백지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다고 했듯이, 너머에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직결하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경만 읽어서 한다면 있는 문을 찾지만, 문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 가는 나의 근본 선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근본 자리에 모두 놓으라니까 놔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놔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 아니게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 때문이고, 웃는 것도 자기 때문이며, 즐거운 것도 자기이고 슬픈 것도 자기가 있으니깐 슬픈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구가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생겼습니다.

어린이가 자라면서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 가지고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하고 점차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생각하니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이 뺏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약하게 보지 말고 당당하고 패기 있게 믿고 나가세요.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자신을 아주 얕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로 모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은 백날이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어떤 상대이든 얕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둘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상봉을 한다면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가 성불이고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으로 나툴 때, 그때가 바로 열반경지, 구경경지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요, 웃어도 자기요, 못해도 자기요, 잘해도 자기요, 망해도 자기요, 승화돼도 자기인 것입니다.

부처님 형상의 돌을 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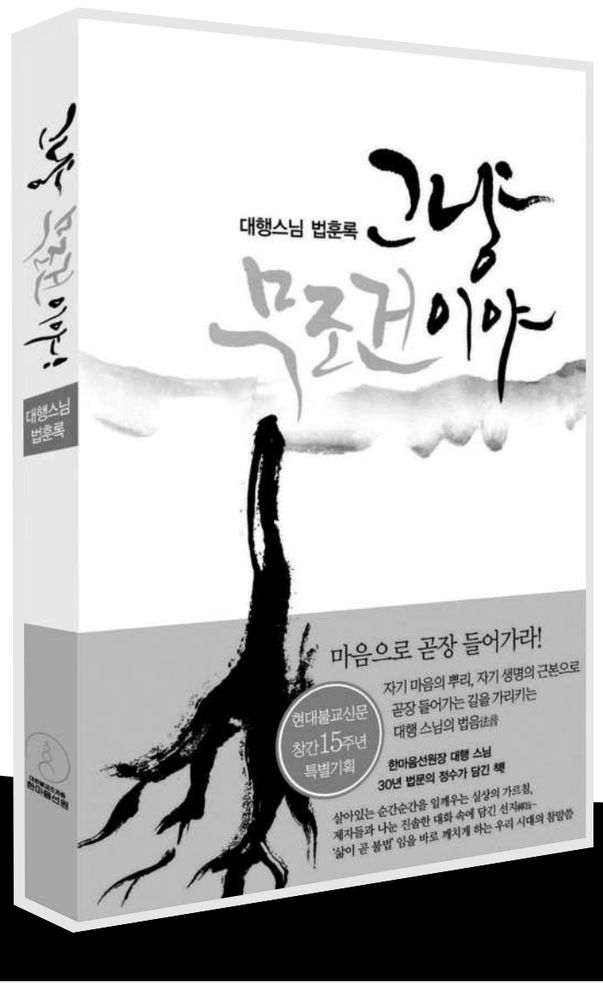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질문 제가 아는 분이 집안 대대로 불자이신데, 산을 개간을 하다가 큼지막한 돌을 캤는데 부처님 형상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 모셔 놓고 물도 떠 놓고 초와 향을 켜고 가끔씩 예불도 드리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 집 안에 불단을 차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답변 부처님을 집에다가 모셔 놓거나 어디서 사 왔다고 해서 갖다 놓고 아침저녁 염불하거나 아침저녁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잘되게 해 달라고 거기다가 마음을 모은다거나 이러지 마세요. 사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벗어나지 못해서 견성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집 방에다가 갖다 놓고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불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그 뭇 중생들의 사불이 되고 말죠. 그러니 오히려 안 모신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산에다 물 떠 놓고 빌거나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셔 놓고 물 떠 놓고 빌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자식 대대로 유전성으로 차례차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내가 정성스럽게만 하면 좋게 되는 줄 알고 온통 그러다가 보면 자기 마음이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사불이요, 그 또한 사불이요,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사불이 되는 것이고 이러니, 거기에서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가고 판단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인생의 순수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를 약하게 보지말고 당당하고 패기있게 믿고 나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공덕이 되게끔 하라.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또는 못났든 잘났든 바로 너에게 네 뿌리가 있느니라.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되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타의의 형상을 믿거나 허공의 이름을 믿거나 그런다면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바깥으로만, 안의 자기는 쑥 빼놓고 바깥으로 부처님이 높이 앉아 계신 줄 알고 '부처님, 부처님! 나를 잘살게 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삼재 없이 해 주세요. 번뇌가 끊어지게 해 주세요.' 별 타령이 다 많지만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밥 먹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잠자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아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죽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깨치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의 영원한 자기의 신을 모르고, 나부터 알아야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법당에 가든지, 가톨릭교나 기독교를 믿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더라도 주처는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데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이러니 이거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차 말하지만,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믿으러 갈 게 없지,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죠. 당신들의 몸도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아주 한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법당에 가더라도, 만 불(萬佛)이 놓여 있더라도 내 한마음의 일 불(一佛)입니다.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 둬야 되겠습니다.

절에 다닐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 절에 처음에 나올 때는 몸이 아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법회에 안 나오면 좀 어딘가 서운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나오면 좋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또 뭐 귀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면서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절에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절에 다니는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 성과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허무한 생각까지 드는데 도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천차만별의 차원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앞서 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와 같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 선장을 믿으면서,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도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놔야지, 그걸 귀신 보이는 걸로 즐거워서 그리로 쫓아간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일거수일투족이 이 마음 안에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젖은 거 마른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또는 좋은 거 나쁜 거, 높은 거 얕은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해야지요. 그냥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해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인의롭고 여유 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서 남을 해롭게 안 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부드럽게, 남의 탓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또 첨보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새도 듣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듣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마음먹은 거를 그렇게 듣고 있는 자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남이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러니만큼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써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롭게 생각을 내 준다면, 모든 거를 다 말입니다, 이롭게 생각을 내 준다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롭게 살려 준다 이겁니다. 그게 '한손' 입니다. 한마음, 한손, 한발로 딛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정신세계의 모든 거를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 두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계가 그렇게 오면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다시 편안하게 놓으신다면 그 곱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혜바라밀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질문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그 여섯 번째에 지혜바라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바라밀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얼른 쉽게 말해서 육바라밀이 따로 없고, 또는 지혜가 따로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가시는 데 마음 쓰시는 것이 지혜로우면 그것이 지혜고, 그 뭐 별달리 따로 없습니다. 그 속의 진의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깐요.

>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되지
>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타의의 형상을 믿거나
> 허공의 이름을 믿거나 그런다면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마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롭고 그거를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물질계에서만 쓰게 되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 물질만 보고, 내 물질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이 될 수가 없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입니다. 공체인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선원 지붕에 칠보탑을 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의 바로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의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써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질문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전깃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 주면은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 순간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같이 한마음이 돼 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그 천백억화신 자체의 손이 한손이 돼 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은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깃줄에다가 이쪽 전깃줄을 붙여 주면은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 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붙여 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 준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써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의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고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
{랄랄라 진관사}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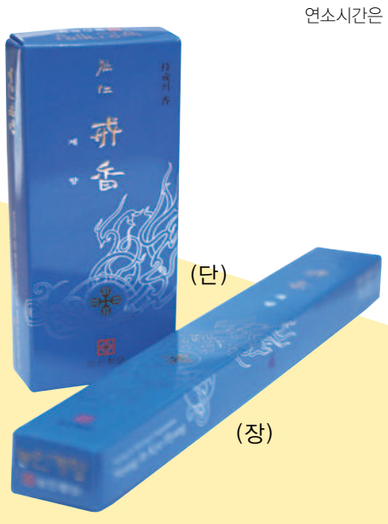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